



9

198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0. 9호

(루게 935)



◇◇◇◇◇◇◇◇◇◇

차 례

◇◇◇◇◇◇◇◇◇◇

조선의 새벽	4
당의 부름 받들고	6
군모우의 별을 우러르며	8
구룡연에로의 길	9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여 빛나는 조국	10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본받겠습니다 14	
숭고한 그 모범을 배우겠습니다	15
제 2 바이올린수	17
병사는 걸어간다	26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36
분노한 남녘이여!	37
소 원 (외 1 편)	39
용해공의 밝은 얼굴	39
10 월의 그날을 향하여!	40
새 주소 새 이름을 찾아서	41

달리는 차바퀴소리도 정다와	42
이른봄	43
진 정	52
그들은 세 병사	53
희곡문학의 형상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54
10월에 사는 마음	58
푸른 불빛	61
다듬은 말	70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찬란히 꽃핀 재일조선작가들의 자랑찬 문학성과	71
기발을 흔든다	77
군사분계선에서	78
고마운 제도, 복받은 세대	79

조선의 새벽

김석주

새날이 동터
푸른 하늘이 열리고
마음도 밝아지는
이 봄날

사랑의 해빛
누리에 넘치는
아 이 아침도
아버이수령님
밝아오는 첫새벽을 맞으시여라

깨끗한 마음
수령님 영상 우러러
생각도 깊어지는
인민의 마음이어

한해에 한번 밝아오는
이날마저
우리 수령님
령을 넘으시여
먼 산기슭 발머리에서
첫새벽을 맞으시던
그 봄날은 언제였던가

이슬내린 오솔길
새벽이 너무 이르다고
간절한 소원을
올리던 그날-

새벽에
잠이 오시지 않는것은
오래전
산에서 싸우실적부터
생긴 습관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의 로고를
이 한마디 말씀속에서

가슴뜨거이 새겨안은
인민의 마음이어

우리 인민을 안으시고
조국의 운명을 안으시고
험난한 길
간고한 세월을 헤쳐오신
수령님의 한평생

시련의 날에는 시련에 찬 인민을 위해
행복한 날에는 더 큰 행복을 위해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고
얼마나 마음쓰실 일 많으셨으면
오랜 세월 것처럼 날마다
첫새벽을 맞으신것이라

날마다
천만가지 일
천만가지 시름을
그이 품에 맡기고
온 누리, 온 우주가 잠들고

우리 수령님
시대의 모든 지향과 념원
먼 미래까지도
한몸에 다 안으시고
날마다 잠 못 이루시나니

이 땅우에 이렇게 밝아왔어라
강토 삼천리에 비끼
조선혁명의 첫 려명도
우리 당이 탄생하던
해빛찬란한 그 아침도

이렇게 밝아왔어라
인간자주로 빛나는 삶의 아침
민주혁명
사회주의혁명

공업화의 메부리를 넘어온
주체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아침도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
이 조선은
찬란한 해돋이지점
여기서 새날이 빛발쳐
누리에 광명은 차넘치고
저 우주가 장엄히 열리어라

아 우리 수령님
먼 그 시절에는
해방의 아침에 약속을 두시였고
전화의 그날에는
행복한 오늘에 약속을 두셨건만

오늘도
행복한 오늘도
산에서 싸우시던 그 시절처럼
언제나 그 언제나
날에날마다
동트는 새벽을 먼저 맞으시는
우리 수령님

수령님이시여
로고 많으신 한평생
이 시대 이 땅우에 펼치신
그 위업 그 사랑
노래로도 이야기로도 다할수 없건만

혁명의 앞길에
조국의 앞날에
밝아오고 또 밝아올
그 새벽과 새벽들을
변함없이 맞으시겠다고 하시니

인민이 올리는 간절한 소원

인자하게 웃으시며 받으시고
이제는 습관이 되어
아무렇지도 않다고
오히려 오히려
인민의 마음을 헤아려주시는
아버이심정이여

하늘에도 땅에도
다 새겨안을수 없는 그 사랑
굽이치는 강물처럼
즐기찬 폭포처럼
천만의 심장을 적시고 올리거니

인민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이신
수령님의 그 깊으신 마음
한량없는 그 자애로움
헤아릴수도 비길수도 없어라

수령님 계시여
끝없이 열린
주체의 푸른 하늘아래
인민의 지상락원이 펼쳐졌고
조국은 누리에
희망의 등대로 빛나라

수령님 계시여
지구우에 밝아오는
새 세기의 려명은 이리도 황홀하고
인류가 맞이할 미래는
그리도 아름답거니

삶이여 약동하라
강산이여 빛나라
수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조선의 새벽으로
누리에 공산주의아침은 밝아오고있어라

국가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모두다 맡겨진 계획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지표별로 어김없이 넘쳐수행하라!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에서-

당의 부름 받들고

윤두만

날마다

순간마다

10 월을 향해 달리는

우리의 마음 어려

밝아오는 이 땅의 아침은

저리도 승엄히 불타는것인가

당이어

찬란한 아침의 기상을 지닌

우리의 당이어

그대 부르는 《100 일전투》의 진군로우에

해가 뜨고

별이 빛나는

격동적인 이 시각

그대의 부름

크나큰 그 믿음

불붙는 열정이 되고

위훈의 나래 되어

숫구치며

들끓으며

나아가는

성스러운 이 하루하루

얼마나 가슴벅찬것인가

걸음마다

순간마다

깨끗한 삶을

당에 바친다는것은

얼마나 크나큰 행복을

우리 지닌것인가

뿌리내리어 반세기

폭풍의 년대와 년대를 넘어

주체사상화의 진군길우에서

여섯번째 대회 맞는 어머니당에

다시 한번

충성의 백날을 바친다는것은

아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많은것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너무도 많은것을

나날이 생각해 하는

고마운 당이어

운명도 미래도

그대 품에 맡겼기에

그대 위함이라면

청춘도 바치고싶고

그대 품에 우리 태어나

주체의 혁명가로 자라기에.

그대 명령이라면

천만리 불길도 헤쳐갈 마음

백열로 끓는 쇠물이

불고불듯이

그렇듯 불붙는 열정으로

《100 일전투》

당대회로 가는 그 길우에
우리의 마음을 새기는 이 시각

아 승리자의 대축전

영광의 당대회 높은 연단우에서
우리 수령님 펼쳐주실
휘황한 새 설계도
가슴불태우며 받아안을
력사의 그 시각을 그리기에

그 마음

지하천길 태양등아래 걸어가는
영웅광부의 눈빛에 어리고
그 마음
천리벌우에 만풍년의 백날을 가꾸어가는
청년분조원들의 충성의 자욱으로 새겨지고

산기슭 비단공장

소문없이 오리오리 천을 짜는
녀인들의 얼굴에도
그 마음
밝은 웃음이 되어 피어나는구나

당의 부름 따르는 길에
기쁨은 샘처럼 솟구치고

미래를 안은 그 심장속엔
산악을 떠옮기고
바다도 밀어낼
투지와 용맹이 나래치나니

속도전의 불바람을 일으킨

《70 일전투》

그날의 그 기백 안고
백날을 하루같이
뜨는 해를 맞으며
가리라 승리의 대축전장으로

우리 한생에

백날은 순간이어도
그 순간을
당의 력사우에
영광으로 아로새기리니

달려가리라

백날의 하루하루를
충성의 하루하루로
주체의 위업
혁명의 력사우에
위훈의 해와 별을
우리 새기며 가리라

군모우의 별을 우러르며

-회령혁명사적관에 있는 김정숙어머님의 군모앞에서-

김흥권

얼마나 기뻐으랴
눈비에 젖고
땀에 젖어 색날은
이 군모를 쓰신채.
김정숙어머님
여기 회령땅에 오시었다면

그리운 고향집에 오시여
이렇게 군모를 벗어놓으시고
이슬이 흐르는
뒤울안의 호박잎도 들어보시며
가난하던 옛집
잠시나마 돌아보신다면

그날은 경사였으리라
백살구꽃 하얀
어머님의 고향이,
행복의 락원으로 펼쳐진
두만강기슭이
진정 오늘에 계시여
회령땅 고향집에 오시었다면...

이 군모였으리
사랑하는 머리태 서슴없이 자르시고
혁명앞에 엄숙히 서약하시며
그리도 정중히 쓰시던 모자

만리 이역에 흩어져
돌처럼 밟히던 겨레들앞에
백두산을 우러러
해방을 바라던 사람들앞에
장군님 모시고 조국을 찾아가리라
그리도 단정하게 쓰시던 군모

어머님 누벼오신

탄알의 비발속은 그 몇만리라
군복입은 가슴에
장군님 행전을 품어 말리시며
엄엄히 타는 눈빛으로
원썬을 쏘아보시던 어머니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몸으로 지켜오신
그 싸움의 고비는 또 얼마이라

백벌의 군복이든
천벌의 군복이든
장군님 주신 파업 다하시교서야
이 군모 벗으시며
땀을 들이시던 어머니

지하공작의 그 어려운 임무도
기어이 다하시교 돌아오시여
조국의 하늘에 빛을 뿌리는듯
별이 빛나는 이 군모 정중히 쓰시고
장군님께 보고올리지 않으셨던가

아 그날처럼 그날처럼
어머님 이 군모를 쓰시고
오늘의 꽃핀 강산을 바라보시며
그날의 그 모습으로
오산덕 고향마을에 서계시거니

어머님을 부르는
수많은 전사들이
어머님의 고향을 찾아
군모우의 별을 우러르며
뜨거운 마음들을 엮는다
혁명의 사령부를 향해
어제도 오늘도 빛나는
그 별빛 가슴에 안으며, 새기며.

구룡연에로의 길

정호수

기암절벽도 단풍에 타고
물도 단풍에 불붙는
금강의 가을
어머님 걸으신
구룡연에로의 길은 어디인가

구슬처럼 부서지는
련주담 맑은 물에
손을 잠그시며
어머님께서 미소짓고 서계시던
그 바위는 어디인가

기암을 돌고돌아 가는길
물소리 넘고넘어 가는길
어머님께서 다는 못가시여
발길 돌리신곳 그 어디인가

아, 어머님
어머님 걸으신 이 길을 걷고싶어
머나먼 물나라너머
이국땅에서 찾아왔노라

어버이수령님 모시고
어머님 오시였던 그날처럼
금강의 만이천봉에
단풍은 물들고
새들은 노래하건만-

백두산 줄기줄기
군복치마자락 날리시며 싸우시던 그날에
그려보시던 금강산보다 더 아름답다고
맑은 웃음 담으시고
수려한 봉우리들 둘러보시던 어머님

황홀한 금강의 아름다움에
만시름을 다 놓으시던 그 순간에도
현지도도를 이어가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길을 받드시려
오르시던 발길을 돌리시던 우리 어머님

저기
선녀들이 무지개 타고 내린다는
구룡연은 지척이건만
별나라 은하수는
내리시는 어머님의 발걸음
막아서건만

웃으시며
후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구룡연의 장엄한 물소리
뒤에 들으시며
오르시던 그 길을 다시 내리시던
우리 어머님
김정숙어머님

한마음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는
어머님의 그 마음을 닮아
금강은 이리도 아름답고
금강은 저리도 수려한것인가

어머님을 기다려
단풍은 지고 또 물들고
옥류동 맑은 물은
호르고 또 흘렸건만
금강을 다시 찾은 어머님의 그 발걸음은
어디서든 찾을길 없어-

금강산
아, 금강산
어머님 돌아서신 그 길 따라 오르며
바라보고 바라보는 내 마음
인자하신 그 모습 우러르니
아름다운 금강산이 숭엄하게 안겨오네.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여 빛나는 조국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

문성락

가없이 맑게 개인 하늘에 해빛이 찬란하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정다운 산천, 숲의 보람의 희열이 넘치는 락원의 강산!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찬연히 빛나는 우리의 조국!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몸소 세우시고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주체의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서른두돛을 맞이한다.

이 뜻깊은 명절을 맞는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았다.

해빛 따사롭게 비쳐내리는 만수대 푸르른 언덕 위에 숭엄하게 솟아있는 조선혁명박물관.

언제나 와봐도 새롭고 올 때마다 혁명의 뜻과 생활의 진리를 가슴가득 안겨주는 여기 조선혁명박물관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역사를 따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국내외참관자들의 물결로 하여 끝없이 설레인다.

우리 당 제 6 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 불타는 열망으로 가슴불태우며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각지 근로자이며 서리발총창 비껴잡고 사회주의조국의 초소를 경각성있게 지켜가는 일당백초병들, 공화국기를 손에손에 들고 조국방문의 길에 오른 재일동포들이며 언어와 피부색이 다른 세계의 혁명적인민들...

쉽없이 흘러드는 참관자들의 대오속에서 삼가 옷깃을 여미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섰노라니 인류력사에 길이 빛날 주체의 위업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살며 싸우는 주체조국의 공민된 끝없는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어오른다.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마음 안고 참관자들과 함께 민주혁명 및 과도기시기의 역사적자료들을 보여주는 여러 호실들을 거쳐 제 2관 35 호실에 들어선 우리는 좌측벽면 한가운데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을 우러러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열어주신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호실에 전시된 자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시여 국가건설의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으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데 대해서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48년 6월에 남북조선 정당, 사회 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를 여시고 통일적민주주의독립국가건설을 위한 방침을 제시하신데 대한 자료들, 해방후 복잡한 환경속에서 건국사업을 비상한 혁명적 의지와 전개력으로 밀고나가신데 대한 자료들...

참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인민에게 바치신 쉬임없는 로고에 의해서 우리 공화국은 지체없이 창건될수 있었고 오늘과 같은 강위력한 사회주의나라의 존엄을 온 누리에 떨칠수 있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해방후 조성된 정세는 얼마나 간고 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가로놓여있었던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가 분렬책동을 악랄하게 벌리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어수한 뒤꼍방에서 《애국자》로 자처하는 형형색색의 탐위분자들이 기여나와 인민들의 눈길을 끌려고 저마끔 주의주장을 내놓았다.

과연 일제통치의 기반에서 해방된 조선은 어느길로 어떻게 나가야 할것인가?

어지러운 탁류가 흐르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우리 인민이 안타까이 모대기고있던 바로 그때에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이 주인된 민주주의새조선건설로선을 등대처럼 밝혀주시였다.

망국의 비운이 짙어가던 그날에 카툰의 화불로 조선혁명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항일무장투쟁의 초시기 두만강연안의 유격근거지들의 하늘가에 인민혁명정부의 기발을 높이 휘날려주신 위대한 수령님.

전조선적인 통일적민주주의중앙정부를 수립하고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로선은 삼천리강산에 해빛처럼 밝게 비치었다.

온 나라에서 새생활창조로 들끓은 인민들은 자기의 손으로 진정한 인민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일떠세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는 북반부에서 일제통치의 악독한 후파를 가셔내고 제반민주개혁들을 실시하였다.

건국의 마치소리 드높은 공장들에서 산업부흥의 노래소리 울려 퍼지고 분여받은 땅에 황금물결이 설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따사로운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생활의 기쁨과 환희로 넘쳤다.

하지만 남녘땅을 짓밟은 미제는 인민들의 창에 의해 세워진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민주주의기발을 들고 애국투쟁에 떨쳐나선 각계 각층 사람들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한편 단독피외정권을 조작하려고 미쳐날뛰었다.

강사의 해설을 듣는 우리의 머리속에는 방금전에 들렸던 34 호실 벽면에 전시된 자료들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신문과 사진자료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8 년 4 월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고 미제의 단선단정음모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구국투쟁으로 전조선인민을 불러일으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조선땅에 반미애국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졌다.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지는 애국의 불길, 민주의 불길속에서 미제의 단독선거음모는 파탄되고 야말았다.

강물처럼 도도히 굽이치는 민주의 물결에 질겁한 미제는 남조선에 끌어들인 제놈들의 침략무력과 피외경찰, 테로단까지 동원하여 강제와 날조의 방법으로 《선거》를 단행하고 리승만을 괴수로 하는 단독피외정권을 조작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의 조선침략은 새로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 땅우에는 민족분렬의 검은 구름장이 한층 더 짙어갔다.

예지의 빛발 넘치는 안광으로 대세의 흐름을 손금처럼 환히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제에 의한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보다 적

극적이며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8 년 신년사에서와 4 월남북련석회의 그리고 6 월의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의 지도자협의회의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방침을 내놓으시고 같은해 7 월 북조선인민회의 제 5 차회의를 여시여 이미 작성공포하시여 전체 조선인민의 지지와 찬동을 받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공화국창건에 앞서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시었으며 8 월에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로 우리 인민을 곧바로 이끌어주시었다.

전시된 자료들은 항일의 눈보라 만리 험난한 길을 헤치시고 조국의 해방을 안고오시었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나날을 보내시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시고싶어하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에 대하여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나라에서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추대한 영광을 지닌 강동군인민들의 경사를 알리는 신문보도며 위대한 수령님을 북반부의 각지 선거구들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립후보로 추대한 군중대회장면을 보도한 자료들,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수반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싶은 심정을 안고 반동경찰의 폭압을 물리치며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는 남녘땅인민들의 활동모습을 반영한 신문보도자료들...

벽면아래 유리함에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안악군 안악면 판오리열성자대회의 이름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청원서와 편지가 보관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이시여.

우리 조선청년들이 갈망하여마지않는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계시는 위원장께 뜨거운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해방후 우리 북조선에서는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인민위원회가 탄생되었으며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농촌청년들에게는 토지의 영원한 주인이 되었고 로동자, 사무원들은 로동법령에 의하여 8 시간로동제가 실시되고 따라서 그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습니다. 또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하여 녀성들도 광범위하게 국가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분투하고있습니다.

이와 반면 남조선에서는 반동파들의 책동과 음모 밑에서 인민들은 신음하고있습니다...》

민족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고 따르려는 남북겨레들의 티없이 깨끗한 마음을 담은 이 한통의 편지.

그것은 시대의 한복판을 소용돌이치는 사상감정을 얼마나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는가.

진렬된 편지들과 청원서들은 곡절 많은 지나간 력사의 나날에 수령의 출현을 애타게 기다려온 우리 인민의 념원을 그대로 진실하게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불타는 열망에 의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는 빛나는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남북총선거를 성과적으로 끝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48년 9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의 제1차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 참가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공화국헌법을 채택하고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내각수상으로 높이 추대하시였다.

산천도, 사람들도 끝없는 환희로 파도쳐 설레이던 그날의 감격을 더듬어보며 우리는 벽면에 새겨놓은 파란 색깔의 수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1948년 9월 9일.

력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의 제1차회의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데 대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념원의 구현으로서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정책을 높이 받들고 그 주위에 굳게 뭉쳐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이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이는 우리 나라에서 자주적인 인민의 국가를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의 실현이며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이 오랜기간에 걸친 투쟁에서 이룩한 고귀한 열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이는 자주적인민의 새로운 출현이었으며 주체조선의 장엄한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사변이었다.

우리는 텔레비죤화면을 통해 그때의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의 제1차회의의장면을 감동깊게 보았다.

극장이 떠나갈듯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 승엄한 분위기가 넘치는 회의장의 높은 연단에서 공화국정부정강을 발표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크나큰 기대와 신뢰, 수령님을 따르는 길에 영광과 행복이 마련된다는 확신을 반영한 신문자료들을 보고나서 우리는 벽면 한가득 펼쳐보이는 력사적인 화폭앞에 다가갔다.

위대한 수령님을 수반으로 하는 공화국정부수립을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장면을 실감있게 보여주는 사진앞에 선 우리는 마치도 그날의 전경을 보는것만 같아 가슴설레이는것이였다.

평양시민들이 참가한 역전광장, 해빛같이 따사로운 미소를 보내시며 주석단마이크앞에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에 넘치신 영상, 수령님을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신 민족의 영광이 넘치는 대회장은 경축의 물결로 세차게 파도쳤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행진해가는 군중들, 그들의 머리위에 새조선의 기상인양 자랑차게 나뭇기는 람홍색공화국기발, 거리를 가로건너간 프랑카드들...

호실 제3벽면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수반으로 하는 공화국정부수립을 경축하여 무산군에서 벌린 군중대회장면과 남조선 각 정당 사회단체들이 통일적인 중앙정부수립을 지지하여 발표한 성명,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보내온 편지들이 전시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영광을 안고 공화국창건경축모임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였다는 《민주조선》보도자료도 참관자들의 가슴을 울리지만 반동들의 소굴 《중앙청》꼭대기의 국기계양대에 공화국기발을 하루동안이나 휘날리게 하여 미제와 리승만피뢰도당을 아연질색케 한 슬기로운 남녘형제들의 투쟁모습을 보도한 자료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얼마나 뜨겁게 전해주고있는가.

지난날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탓으로 망국노의 피눈물나는 생활을 뼈속깊이 체험한 우리 민족이거니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영광 어찌 감격의 파도로 설레이

지 않으며 수령님을 일편단심 받드는 마음 어찌
충검의 숲을 뛰어넘는 불사신의 신념과 의지로
셈숫지 않으랴!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는
강사의 설명을 들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 내각수상으로, 국가
수반으로 높이 모시게 된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
의 행복, 최고의 영예이며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
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령도밑에서 우리
인민이 통일된 한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한결같은 념원의 빛나는 실현이었습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
러모시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부강한 앞날이 있
으며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약속되어있는것
이다.

바로 벽면아래 유리함속에는 우리 나라 인민들
이 처음으로 수여받은 공민증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증과 휘장이 소중히 보관되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신 바로
력사의 그날로부터 우리 인민은 진정한 자주독
립국가의 주인된 영예와 존엄을 떨치게 되었다..

창건된 우리 조국의 앞길을 펼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화면을 통해 우러르는
우리의 눈앞에는 공화국창건과 더불어 잊지 못
할 가지가지의 화폭들이 떠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창건을 준비하시
면서 국장과 국기를 제정하는 사업을 몸소 지도
하시였다.

당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국장에다 리조시기의
경복궁을 그려넣어야 우리의 민족성을 대표할수
있고 국기의 동그라미안에는 보습을 그려넣어야
농업국가인 우리 나라를 상징할수 있다고 떠벌
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영원히 후진
상태에 엮매어놓으려는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
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시고 국장에는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땅아울러감은
벼이삭의 타원형의 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
소를 그려넣고 그우에 찬란한 오각별이 빛을 뿌
리게 하심으로써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
통을 이어 받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를 상징하도록 하시였다.

이처럼 공화국창건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로 아로새겨진 력사의 자취를 가슴뜨겁게 느
낀 우리는 우측벽면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정강에서 강대한
조국의 위용을 가슴뿌듯하게 그려보며 천천히
한쪽의 공화국기발앞에 다가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제정하시여 북조선인
민회의 제 5 차회의장에 내걸었던 공화국기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휘날린 람홍색공화국
기발을 바라보는 우리는 숭엄한 감정에 사로잡히
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저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민주주의혁명의 령
마루를 넘었고 불타는 고지들을 목숨으로 사수했
으며 재더미된 조국땅에 락원의 거리와 마을들을
일떠세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신 그
때로부터 우리 인민은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
어왔다.

3 대혁명의 기치높이 진군의 발구름 올리는 조
선, 이 땅 그 어디에나 철갑들이 솟아 빛나고 풍
요한 들에는 만풍년의 날가리 하늘높이 쌓인다.

아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이 세상
가장 큰 행복을 받아안게 되었고 자주권을 누리
는 영광을 지녔다.

락원의 강산에 행복이 넘치는 오늘도 좋지만
보다 휘황찬란할 래일은 얼마나 희망으로 가슴부
푸는것이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빛나는 조국의
오늘과 휘황찬란한 래일을 눈앞에 그려보며 우리
는 조선혁명박물관을 나섰다.

우리는 다시한번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
러 바라보았다.

한손 높이드시여 이 세상 끝까지 밝히시는 주
체의 그 손길따라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수천수
만의 대오들이 나아간다.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
이다.

한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신심도 드
높이 만수대언덕의 화강석층계를 내리는 우리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따르며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이
끄시는 주체조국을 영원토록 받들어갈 결의로 가
슴불태웠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본받겠습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2부)를 읽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는 혁명선열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2부)를 읽고 제가 받아안은 충격은 실로 큼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무한한 충실성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임으로써 우리들에게 강한 여운을 안겨주었습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혁명적생애의 한 시기에 있었던 투쟁내용을 형상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생활의 참된 구감입니다.

소설에 담겨진 감동적인 사실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김정숙동지께서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과 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니시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무조건 철저히 관철한 내용을 말하고 싶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북만원정에서 갓 돌아오시여 능지영에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게 됩니다.

이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기간의 김정숙동지의 투쟁업적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직접 과업을 주십니다. 그것은 유격근거지 해산방침에 따라 술기막말로 이동하는 상촌근거지인민들을 무사히 데려갈것과 녀성들도 무장투쟁에 떨쳐나서도록 그들을 잘 이끌어줄데 대한 과업이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얼른 얼굴을 들며 장군님을 우러러보시었다. 장군님께서도 김정숙동지를 마주 보시었다.

《꼭 녀성혁명화의 앞장에 서야 하겠습니다. 녀성들이라고 총 한자루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 총을 못들겠습니까? 총을 들고 싸우게도 만들고 조직을 꾸려가지고 적후에서 싸우게도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녀성이 다 들고일어나 싸움에 참가한다면 우리의 힘이 얼마나 커지고 강해

지겠습니까? 꼭 이 문제를 명심해야겠습니다.》

《장군님,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의 말씀을 뜨거운 심장에 새기고새기시었다....

소설에는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과업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술머리우에 흩어진 별무리를 그림계 바라보시며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장군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과업을 반드시 훌륭하게 해내고야말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김정숙동지께서는 술기막말로 이르시여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온갖 난관을 이겨내십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언제나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셨기때문에 부닥치는 어떤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이겨나가십니다.

이동하는 인민들을 무사히 술기막말로 인솔해 오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혁명화를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기시고 늑들에 의해 희생된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국금이형제를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가 하면 남편과 시동생이 억울하게 《민생단》 혐의로 희생된 음전이를 보살피시며 일시적난관앞에서 주저앉아 동요하는 분임이를 엄격히 비판도 하시면서 혁명적계급의식을 높여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한사람을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적들이 육질거리하는 하동거리에 말파리를 몰고 들어가시여 적들의 감시속에서 금실이를 빼내오는 대담한 전투도 벌리십니다.

뿐만아니라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위가 너저분하다면서 음흉하게 책동하는 반혁명분자 리억검이와의 투쟁속에서 확실히, 복녀, 영애, 금옥, 수월, 심씨 등 많은 녀성들을 혁명의 대오에 새워주십니다.

저의 눈앞에는 아직도 내두산 곶골에서 부녀회를 못기 위해 애쓰시는 어머님의 영상이 안겨옵니다.

한때 어느 독립군단체 두령을 했다는 정대환이 자기들이 독립군운동을 할 때에도 술한 조직을 무엇였는데 그것이 종당에 가서는 패를 길러가지고 패싸움만 하였다고 하면서 한사코 반대할 때,

그의 처 오씨가 씹도 못할 무지랭이들이 머리를 들고 부산을 피워 엄엄한 가풍이 깨어져내린다고 불만에 차있을 때 그들이 지난날에 겪은 일을 수 없는 가슴쓰라린 일을 하나하나 절절하게 이야기해주시며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우리 녀성들도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깨우쳐주시어 결국 그들도 부녀회 못는 사업을 극구 지지하게 하신 어머니의 자애로운 영상이...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부녀회를 조직하는 날 이렇게 연설하십니다.

《...우린 이 고품을 하루빨리 **김일성**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나아가는 환한 지역으로 만들고싶어요. 그것이 우리 혁명군들의 간절하고도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고품이 환한 지역으로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떨쳐 일어나는데 아주머니들, 어머니들은 떨쳐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있겠어요? 아주머니들, 어머니들도 모두 한몫 메고나서서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남편과 같이, 자식들과 같이 조국해방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김일성**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싸워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는 절절한 말씀입니까?

이 나라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이 아들딸들을 믿고 설사 한많은 세상을 하직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 고생자욱 많은 거칠은 얼굴우에 웃음을 담고 가시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간절히도 들군한다는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저의 가슴을 격동시켜줍니다. 녀성들은 한갓 부엌데기로 남편공대나 잘하고 자식들 시중이나 잘 들면 그만이지 혁명은 무슨 혁명인가 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있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런 녀성들에게 나라를 위한 성스러운 일에 적은 힘이나마 바쳐싸울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안겨주시었습니다.

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노력에 의해 결국 부녀회가 조직되었고 유격대원호사업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김정숙동지이시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참된 혁명가의 본보기이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대해서는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산모범이십니다.,

술기막골에서, 내두산에서, 하동거리에서 온갖 간난신고를 다 이겨내시며 싸워가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소설의 매 갈피마다에 생동하게 그려져있습니다.

한사람 또 한사람 교양하여 꾸려낸 아직도 짝에 불과한 조선녀성의 앞장에 선 무장대오-그 작은 대렬을 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수고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조선녀성의 새 모습을 보는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니 누가 천대와 멸시속에 살던 녀성들이라 하겠습니까? 내가 삼도만에서 정숙동무한테도 이야길 했지만 녀성들이 떨쳐 일어나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밀어야 합니다. 지금 다른 부대들에도 녀성대원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틈틈히 렬을 지어 설 형편은 못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라고 대견해하실 때 모진 난관앞에서도 흘린적 없으셨던 뜨거운 눈물을 쏟으신 어머니.

참으로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2부)는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이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가장 정확한 대답을 준 생활의 참된 교과서로 됩니다.

때문에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꼭 본받겠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사소한 리유와 조건타발이 없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내고야마는 참된 혁명가의 품성을 키워나가겠다는것을 다시금 굳게 결의합니다.

로동신문사 김명화

송고한 그 모범을 배우겠습니다

저는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제2부)를 흥분과 감격속에 읽었습니다.

소설의 매절, 매장마다 모두가 감동적이고 눈물겨운 이야기들이지만 그중에서도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고결한 품성과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읽을수록 크나큰 흥분을

자아냅니다.

소설에서는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시였던 이 고결한 품모를 감동있게 형상함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품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뜨겁게 느낄수 있게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지였습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광범한 대중이 적극 참가하여야 승리할수 있습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이 적극 참가하여야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언제나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시며 그들을 장군님의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해 온갖 정력을 다 기울여오시는것입니다. 일찌기 어린시절부터 인민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며 자라오셨기에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온갖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그들을 뜨거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키워주시는 김정숙동지.

소설은 갈피갈피마다에서 인민들과 혁명동지들에 대한 그 숭고한 사랑에 대하여 감명깊이 보여주고있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혁명의 배신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아이들까지도 억울한 루명을 쓰고 온갖 박해를 받는것을 보시고 위험도 무릅쓰시고 과감하게 나서시여 근거지안의 어린이들을 아동단조직에 묶어세우시였으며 식량이 떨어져 굶고 있는 술기막골의 집집들에 도라지와 더덕을 캐다가 손수 나누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앞에 맥을 놓고있는 국금이와 영금이형제를 살뜰히 보살펴주시고 《민생단》 혐의로 희생된 남편과 시동생때문에 따돌리움을 받아 쓰러진 음전이며 일시적난관앞에 주저앉은 분임이들에게 재생의 봄을 안겨주시는 이야기는 모두 우리의 가슴을 찡니다. 그중에서도 무시무시한 반《민생단》투쟁으로 가슴조이던 시기에 자신의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창고에 억울하게 갇힌 수많은 동지들에게 주먹밥을 해다주시는 장면 그리고 능지영으로 왜놈 《토벌대》가 밀려들었을 때 펄펄 끓는 죽가마를 이고 산꼭대기까지 오르시여 《민생단》 혐의자들에게 그 더운 죽을 나누어주시는 대목들은 눈물없이 읽을수 없는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동지들을 더 귀중히 여기시여 총알이 귀전을 스치는 속에서도 죽가마를 이고오신 김정숙동지의 크나큰 사랑앞에 대원들은 그것을 죽이 아니라 눈물이 덩어리진 약이라고 목메여 부르짖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두산전투가 련일 계속되던 어느날, 고지에서 싸우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부녀회원들이 밥만 해오고 더운물을 이여오지 않는데 대하여 못

내 가슴아파하십니다. 더우기는 눈덮인 고지에 었디여 오래동안 총을 잡고 싸우는 로인들을 생각하시여 몇길이나 되는 눈속에 빠지시면서도 더운물을 식히지 않고 날라다 사람들의 몸을 덥혀주시기도 하십니다. 로인들은 그 사랑의 보약을 마시고 다시 기세충천하여 원수들을 무찌릅니다.

지난날 독립군시절의 그 젊음을 되찾은듯 원수를 치는 로인들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김정숙동지.

하기에 그 도도하던 내두산 곰골의 정대환로인도 언제나 겸손하시고 웃어른들앞에서 레절박은 김정숙동지의 인품앞에 머리를 숙이고 감탄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흰 눈결같이 깨끗하고 준수한 얼굴에 만사람을 울리는 호소가 넘쳐나는걸 내 인제야 본단 말인가! 어느 하늘아래 저런 딸이 또 있을까.

《내가 너를 인제 다 알았다. 네가 진짜 이 나라의 참된 딸이로구나. 장군님 품이 아니고야 너같은 녀결이 생겨날수 있겠니? 장하다, 천하에 고함쳐 자랑하구실고나!》...

이것이 어찌 정대환로인 혼자만의 감탄의 목소리이겠습니까? 이것은 김정숙동지에 의하여 삶의 보람을 되찾은 금실이형제, 아니 그이의 사랑의 손길에 이끌려 혁명의 길을 뚝뚝이 걷는 수많은 혁명가들의 진정을 합친 뜨거운 목소리인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디를 가나 모든 사람들은 김정숙동지를 《근거지의 누나》, 《근거지의 어머니》로 살뜰히 부르며 따르는것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해빛아래 어머니의 그 사랑속에 자란 수많은 혁명투사들이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고 이 땅위에 가장 행복한 사회주의제도들 마련하였다고 생각할 때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절절하여 가슴에 넘쳐나는것입니다.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끝없는 충성심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어떻게 자기 조국과 인민, 혁명동지들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끼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어머님처럼 한생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우며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일해나가는 참된 혁명가가 되겠습니다.

문예출판사 리종성

제 2 바이올린수

림병순

수도의 가을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가로수 밑으로 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끊어지고 거리의 소음도 불꺼진 창가로 잤아든듯 고요가 깃든 깊은 밤.

보통강가에 새로 일떠선 아파트의 한 창가에서 바이올린소리가 울려나왔다. 입사한 첫날부터 밤마다 어김없이 들리는 바이올린소리였다. 고요히 깊이있고 사색적인 원곡이 처량하게 울리면서 그 어떤 표상의 연쇄로 짓밟힌 조국, 그리운 고향산천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끝없는 동경의 세계를 펼쳐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듣는 사람이 안타까울 지경으로 원선률이 아닌 협주곡의 한 성부에 머물러 온밤 반복하기도 한다.

낮선 이웃들은 이 바이올린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면 사색을 즐기는 사람들은 명상에 잠기기도 하고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은 창가에 서서 바이올린소리가 울려나오는 건너편 창가를 지켜보기도 하였다.

오늘도 바이올린소리는 서곡의 마지막 소절을 넘기지 못하고 끊어졌다간 이어지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반복되었다.

.....

1

지질기사 강현우는 벌써 한시간이나 창가에 서서 바이올린소리가 흘러나오는 건너편 창문을 바라보고있었다. 문장을 걸어올린 창가에 활을 긋는 바이올린수의 뒤모습이 어려있다. 힘있고 부드러운 손동작, 가볍게 움직이는 어깨며 흠이지 않는 몸자세, 우아하고 독특한 음색으로 일관시켜나가려는 열렬한 지향.

연주가의 고심이란 저토록 간고한것인가!

어느덧 그 모습을 지켜보고있는 강현우의 눈앞에는 온밤 시상을 무르익히며 열정을 쏟아붓던 젊은 병사 자기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20 대의 강현우였다.

바위도 나무도 모든것이 화염에 휩싸인 고지에서 전우의 시체우에 피눈물을 뿌리던 병사시절, 그때 정열에 충만된 강현우의 심장속에는 서슬푸른 복수의 시구절이 새겨지기 시작하였다. 전선신문 《승리를 위하여!》에 실린 그의 첫 시는 전사들의 복수기록장마다에 옮겨졌고 처절한 격전을 앞둔 전호가에서 전우들은 그 시를 즐겨 읊

었다.

사단은 강현우의 이름을 병사-《시인》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25 년, 전쟁이 끝나자 그의 초소는 지질부문으로 바뀌어졌다. 꿈이 많고 희망에 불타던 그의 낭만적인 청춘시절은 분망한 탐사생활의 나날에 어느덧 수많은 산발마다에 정열을 쏟으며 흘러갔다. 그의 첫 시에 매혹되었던 전우들은 강현우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게, 인젠 그 배낭을 벗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자네가 산발에서 물러선다구 나무랄 사람은 없을거네. 동무의 공로가 적은가.》

그때마다 강현우의 두드러진 미간에 인상적으로 패인 주름살은 한층 깊어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두고 하는 동료들의 권고에 별로 개의치 않고 쉽없이 험준한 산발들을 묵묵히 걸어나갔으며 하나의 탐사지점이나 자그마한 시료조각에 이르기까지 깊은 주의를 돌리었다.

강현우는 시긋한 시약냄새가 채 가지지 않은 새 지질도를 펼쳐들고 수많은 점과 선들이 마치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이거나 한것처럼 기뻐하면서 동료들의 권고에 항변하듯 갖 탐사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었다.

《지질조사란 화려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람있는 일이지요. 조국의 부원을 창조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걸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조국을 거창한 대양에 비한다면 우리 지질조사원들을 작은 샘물에 비할수 있지 않을까요.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이 숨새여오르는 샘물... 샘물이 많아야 바다는 더 세차게 출렁일수 있습니다.》

오랜 체험속에서 제나름으로 확고하게 굳어진 자기 직업에 대한 하나의 신념이기도 했다.

그러던 탐사생활도 얼마전에 끝났다. 지금 그의 활동무대는 넓은 조국의 산발이 아니라 현미경이 줄지어놓인 자그마한 현미경실이었다.

그가 현미경실로 왔을 때 당비서는 말했었다.

《...탐사의 과학성을 보장하자는겁니다. 정확한 현미경감정은 탐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도 볼수 있지요. 결코 제 2 선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강현우는 지질탐사망치 대신 현미경렌즈를 가지고 수없이 들이쑤이는 광석시편들을 감정해나갔다. 처음 그는 렌즈를 통하여 박편이 내뿜는 여러가지 현란한 색깔을 보았을 때 그 황홀한 세계에 매혹되었고 거기에 취해버리곤하였

다. 마치 남은 정열을 현미경에 갇그리 쏟아붓듯 그는 씹없이 일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바이올린수의 모습은 그의 고요한 마음의 호수위에 끝없는 파문을 일으키며 병사시절의 추억을 조용히 불러왔다.

지칠줄 모르는 정열과 완강한 투지, 희망과 랑만이 찬란히 비껴있는 푸른 하늘에 큰뜻을 그려나가던 병사시절, 그것은 위훈과 영예에 대한 갈망으로 해서 가슴 울렁이던 황홀한 청춘시절이었다.

강현우는 이 순간 그 시절의 아름다운 꿈이 무게구름이 피어오르듯 다시 소생되는지도 몰랐다. 그는 지나가버린 그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윽고 등뒤에서 서재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리었다. 강현우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안해였다. 미구에 50 고개에 올라서는 나이 지만 주름살을 찾아볼수 없는 가름한 얼굴에서 눈빛은 광택을 띠고 빛나고있었다.

안해는 책장앞으로 가더니 들고올라온 푸른 덧가위의 책을 제자리에 꽂아놓았다. 며칠전에 사온 시집이었다,

《아직 주무시지 않아요?》

안해는 측은한 눈길로 강현우의 기색을 조심히 살피었다,

《왜 그런지 잠이 안오는구만...》

언제나 안해앞에선 마음의 고백을 털어놓기를 꺼려하지 않는 강현우였다. 그만큼 안해 역시 남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변화도 민감하게 포착할줄 알았고 그때마다 남편을 깊이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당신이 시를 읽는것을 오랜만에 보는군...》

요즘 와서 가정일의 잔걱정으로 해서 그러는지 책읽는 일이 점점 떠지는 안해였다. 그도 젊었을때에는 동무들한테서 애독가로 소문이 났었고 노래보다 시 읊기를 좋아하였다.

강현우가 사단에서 병사-《시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안해는 전선에 있는 야전병원의 간호장이었다. 안해는 강현우의 이름보다 그의 시를 먼저 외웠었다. 포성이 하늘가에 울리는 병동에서 안해는 부상병들의 침상머리에 앉아 그의 시를 즐겨 읊었다. 언젠가 불타는 전호에서 작시를 랑송하는 강현우를 처음 보았을 때 안해는 울렁이는 가슴위에 두손을 포개었고 병사-《시인》의 장래를 황홀하게 피어오르는 노을속에 그려보았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남편의 생활은 노을처럼 불타지도 황홀하지도 않았다.

안해는 어떻게 보면 어쭙고 또한 런던에 갇든 미소를 띠고 강현우를 지켜보다 옷장안에서 깨끗이 세탁하여 포개놓은 와이셔츠와 양복을 꺼내었

다.

《레이아침엔 꼭 갈아입으세요. 당신은 여기가 산발이 아니라 수도라는걸 잊은가봐요.》

작업복을 입고 집을 떠나면 좀처럼 눈부신 와이셔츠에다 넥타이를 매보지 못하는 탐사대원들의 생활이었다. 강현우는 어느덧 그것이 습관이 되어 집에 와서도 종종 산발을 타던 조사원의 몸차림으로 출근하다가 안해한테 불들리어 칭원을 받는 때가 드문하였다.

《허허... 그런데 넥타이색이 너무 화려하지 않소? 공연히 촌뜨기를 놀림감에 들게 하지 마오.》

안해는 가볍게 눈을 흘기고나서 책장위에 옷을 차근차근 쌓아놓았다.

《참 어제 한상구선생을 만났어요. 빨리 논문을 완성해서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됐어요?》

안해는 호기심어린 눈길로 강현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논문...? 그럴 사이가 없소. 할일이 밀렸는데...》

《할일이 밀렸다고요? 당신은 언제나 그러지요.》

차분히 내리깔린 살눈섭밑 가장자리에 알수 없는 서운함이 어리었다. 안해는 별로 탓하는 기색도 없이 강현우의 기색을 살피더니 창밖으로 몸을 돌리었다.

침묵속에 건너편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바이올린소리만이 씹없이 들리었다. 바이올린소리는 얼마후 잠시 끊기었다가 다시 이어졌다. 지금까지 반복하던 서곡은 끝나고 처음에 울리던 원선틀이 다시 울리기 시작하였다.

《아마 독주회를 준비하는 모양이지요?》

《글쎄...》

《당신은 늙으셨어요. 정열도 식었고... 젊었을 때는 시 한줄을 위해 저렇게 온밤 새우셨지 않아요.》

《허허... 그럼 날더러 이제 시를 쓰라는거요?》

《누가 뭐... 글쎄 논문을 완성하라는게 언제부터예요.》

《그만하오.》

강현우는 안해의 말을 막아버리듯 얼굴을 돌리더니 별안간 책장앞으로 가서 여러가지 번호들을 붙인 광석시편들을 집어들고 《여보, 지금 나의 정열이 어디에 필요한지 아오?》하고 너스레를 떨며 웃어보였다.

안해는 창틀에 기댄채 잠시 원망의 눈길로 강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런 말로 자신을 위안하지 마세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구 이제는 현미경실에 왔으니 조건도 좋지 않아요.》

《허허 ... 당신은...》

강현우는 안해의 말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절절한 소망속에서 울려나오는것임을 깨닫자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었다.

안해는 살느섭을 조용히 치켜올리고 강현우의 마음을 움직여보려는듯 간절한 눈길을 던지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을 다는 모르오.》

《하지만 20 년동안이나 산발을 헤매면서 당신한테 남은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구 이제 남들이 따온 암석시료나 감정해주는게 무슨 보람이 있어요?》

. 《보람이 없다구?... 그건 치졸한 생각이요.》

남편의 입에서 모욕적인 말이 주저없이 새나오자 안해의 눈빛은 대번에 흐려졌다.

《...난 당신을 생각해서...》

《그건 날 위하는게 아니요.》

순간 안해는 원망스럽게 남편을 지켜보다 이슬이 함뿍 피어오르는 눈을 세차게 습뻘이며 소리없이 아래방으로 내려갔다.

그 뒤모습을 이윽히 지켜보던 강현우는 가슴이 답답한듯 창문을 열어제꼈다.

창밖에서 기다리고있기라도 한듯 찬공기가 일시에 방안으로 밀려들며 화끈 단 그의 얼굴을 식혀주었다.

하늘에는 검은 주단우에 보석들이 박힌듯 별들이 반짝이고있었다. 동쪽으로 기울인 하늘가 저쪽에 유난히 크고 둘레에 가락지모양의 고리를 둘러친듯한 별 하나가 은빛같은 빛을 눈부시게 반짝이고있었다.

그밖에 주위에는 큰별, 작은별, 이름없는 무수한 별을 거느리고있다.

강현우는 무한대한 우주공간에서 마치 자기 존재를 찾기라도 하려는듯 머리에 펼쳐진 찬란한 별세계에 취해 오래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2

벽시계가 10 분전 8 시를 가리키자 강현우는 집을 나섰다. 가방을 든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아파트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리었다.

아직 낮설은 이웃들이다. 그들이 다정한 이웃으로 되기에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것이지만 누구나 만나면 가볍게 눈인사로 이웃으로 된 기쁨을 나누는듯싶다.

강현우는 천천히 계단을 내리자 현관문밖에 나섰다. 현관마다에서 산뜻하게 가을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씩씩이 빠져나왔다. 꺾어진 저쪽 현관문앞에서 아이의 손목을 이끌고 나오던 젊은 여인이 누구를 기다리는듯 초조한 눈길로 현관을

지켜보고섰다. 아마도 동행할 남편을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강현우는 무심히 그 여인이 서있는 현관쪽에 눈길을 돌리다 움쭉 걸음을 멈추었다. 방금 너인 앞에서 바이올린통을 든 사람이 현관문에서 나와 거리쪽을 향해 걸어나가고있었다. 보통키보다 좀 벗어나는 체격인데 살집이 없어 그런지 훨씬 커보인다. 칼날같이 주름을 세운 회색양복에 검은색모자를 깊숙이 눌러쓴 그는 사색에 잠긴듯 줄곧 땅우에 눈길을 박고 걸어간다.

밤마다 이웃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 바이올린수가 틀림없었다.

그 사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아 잔토며 콩크리트조각이 널려있는 마당을 이리저리 저저디디며 거리에 나서자 사람들이 한줄로 늘어선 버스정류소에 가서 발길을 멈추었다.

그때 거리 저쪽에서 푸른 띠를 두른 배스가 달려오더니 사람들앞에 와서 속도를 죽이고 미끄러지듯 서버렸다.

강현우는 급한 걸음으로 마당을 벗어나 정류소로 나갔다.

아침이라 출근하는 사람들로 배스안은 붐비었다. 제일 나중에 배스에 오른 강현우는 비좁게 들어선 사람들속을 빠져 앞으로 나갔다. 얼마 앞에서 누군가가 서로 자리를 양보하느라고 싱갱이질을 하고있었다. 배우차림인듯한 젊은 여인과 바이올린수였다.

얼마동안의 싱갱이질끝에 바이올린수는 하는수없이 창가에 들어가 자리에 앉더니 여인의 들가방을 받아 자기 무릎우에 올려놓았다.

강현우는 왼쪽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붐비던 차안은 차차 사람들이 자리를 잡자 조용해지고 배스는 발동소리와 함께 서서히 움직였다. 그때야 강현우는 얼마쯤 떨어져 앞락에 앉아있는 바이올린수의 옆모습을 유심히 살피었다.

그는 책을 펼쳐들고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엔 답을 쌓은듯 줄곧 책장에 정신을 쏟고있었는데 모자밧으로 비죽이 반이나 흰 살쩍이 내놓였다. 눈귀엔 무수한 잔주름살이 그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현우의 눈길은 대번에 굳어져버렸다.

(그 바이올린수가 저토록 늙은 사람이였을가?)

너무나도 상상을 뒤엎은 바이올린수의 모습에서 강현우는 눈길을 떼지 못하고 어리벉벉 앉아있었다.

배스는 어느덧 신서거리리를 지나더니 다음 정류소에 와서 새 손님들을 싣고 다시 떠났다.

바이올린수는 여전히 책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있었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있는 강현우의 눈앞에는 밤마다 잠든 이웃들의 창문가에서

그 어떤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명상으로 이끌어가던 정열적인 바이올린수의 모습이 생동하게 되살아오른다. 힘있게 활을 긋는 부드러운 손동작, 가볍고 활동적인 몸자세, 우아하고 독특한 음색으로 일관시켜나가는 연주가의 열렬한 지향,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완강한 투지... 나이로 보면 자기보다 10 년이나 더 들었을 바이올린수였지만 그것은 마가울에도 시들지 않고 싱싱하게 피어오르는 화초잎의 생동한 모습이었으며 언제나 고일줄을 모르고 씩없이 흐르는 시내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강현우는 순간 바이올린수보다 몇배나 더 늙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자 신경질적으로 눈살을 찌프리었다. 지금껏 강현우는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허물없이 지내는 동료들이나 안해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새나오면 허구하게 웃어넘기었지만 그것은 결코 그 말을 수긍해서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올린수를 대하자 그의 마음은 자신에 대한 끝없는 불만에 휩싸이였다.

무엇이 저 바이올린수로 하여금 지칠 줄 모르는 청춘의 정열과 생의 활력을 소생시켜주는 것일까?

강현우는 그 대답을 찾으려는 듯 조용히 눈을 찌프리고 생각에 잠기였다. 화려한 무대에서 수많은 관중들의 선망의 눈길과 박수속에 떠받들려 명성을 떨쳐왔을 바이올린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늙어도 훼손당하지 않으려는 독주가의 명예로 해서인가?

순간 강현우는 간밤 안해한테 것처럼 열렬히 타이르던 자신의 정열의 한계점을 발견하는 것만 같았다. 일손을 떼고 홀로 현미경실에 앉아있다면 자주 자신의 지나온 생활을 돌이켜보게 되고 그리고나선 마음의 빈구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알수 없는 피로움으로 하여 모지름을 쓰듯 가볍게 몸을 뒤채며 한숨을 지었다.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가지, 개인의 명예보다 사회를 위해 바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그 인간의 가치는 그만큼 빛나고 아름다워진다는 리성의 가르침과 이와는 반대로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동경과 후회가 엮여져 소용돌이치고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그의 앞길에는 두길이 열려있었다. 대학으로 가는 길과 로동현장으로 나가는 길이었다. 그것은 운명의 갈림길이었다.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이 파괴된 수도의 거리를 가슴저리는 마음으로 걷고나서 그가 선택한 길은 두번째 길이었다. 그것도 그 누가 걸어간 자욱을 따라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지혜로 길을 찾아내고 자기의 힘으로 앞길을 열어나가는 초행길이었다. 상

처임은 조국앞에 전사가 같길은 자원을 찾아내는 탐사의 길이었다. 강현우는 이 길에서 자기의 재능과 힘을 아끼지 않았다. 국가문헌고에 보관된 조국의 초기 지질도작성자들의 이름속에는 그의 이름도 적혀있었다. 그가 헤쳐온 행로를 따라 새 광산들이 일어섰고 수많은 영웅들이 태어났다. 조국은 땅속의 광석들이 햇빛을 받아 빛을 뽐듯 상처를 가지고 번영하였다. 비록 자기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도 강현우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발자국앞에 앉아있는 바이올린수의 모습은 광석처럼 굳어진 생활신조를 밀어버리고 마치 분출을 기다리는 용암마냥 가슴속 밑바닥에 무겁게 눌러 세차게 꿈틀거리는 감성의 심지에 불길을 지퍼주고있었다.

강현우는 량미간에 깊은 주름살을 지으며 《잃어버린 것》에 대한 형용할수 없는 갈망에 사로잡혀있었다. 지금이라도 마음의 빈구석을 메꾸며 자기 여생에 그 무엇인가 흔적을 남기고싶은 충동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러자 생각에서 깨어나듯 머리를 들었다.

빠스는 어느덧 역사의 시계탑밑을 감돌아 달리더니 대극장앞 정류소에 멎었다. 차안은 또다시 붐비기 시작하였다.

바이올린수는 읽던 책을 접어 들가방안에 넣어둔다. 녀인과 함께 강현우의 무릎앞을 지나 앞문으로 다가갔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전모를 가까이 대하는 순간 강현우는 너무나도 인상적인데에 놀랐다. 네모난 얼굴에서 분장을 한 사람마냥 튼달리 술이 많은 눈썹, 특징이 없는 평범한 얼굴에서 그것으로 해서 한층 텅텅하고 소탈해보이는 것이 더욱 인상적이었다. 어디서 본 얼굴이었다. 어느 독주회였던가? 음악감상을 즐기는 강현우는 음악회에 자주 다니었으나 출연하는 배우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았었다.

넓은 대극장 앞마당으로 배우들이 한창 출근하고있었다.

바이올린수는 빠스에서 내리자 곧바로 거리를 건너 극장앞마당으로 스적스적 걸어갔다. 젊은 배우들이 그를 보자 모두 공손히 인사들을 하며 무엇인가 인사말을 건네며 미소를 지어보인다.

공연무대였을가? 이름있는 독주자라면 무대나 텔레비전화면에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배우라면 한두사람의 얼굴밖에 모르는 강현우인지라 그 기억은 쉽게 되살아나지 않았다.

빠스는 또다시 반이나 사람들을 갈아태우고 대동강다리를 건너고있었다.

강현우는 줄곧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고있었으나 끝내 다음 정류소에 이를 때까지 기억을 살려내지 못하였다.

사무실 책상우에는 여느날과 같이 수십장의 의뢰서와 암석시편들이 쌓여있었다. 방금전까지 흥분되었던 강현우의 마음은 단죄가 찬물에 식어가듯 차차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그는 먼저 여러 탐사대에서 보내온 의뢰서들을 검토해나가다 새골조사점 120 이라는 지명우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의뢰서에는 거기에서 채취한 20 여개의 암석시편들의 명칭이며 번호, 육안으로 관찰한 암석의 조성이며 구조적특징 등 자료들이 기록되어있었다.

ㄷ탐사대 지질조사원 박상무한테서 보내온 것이었다. 지난 초여름 새골에서 마지막 암석시편들을 의뢰하였다가 강현우의 맹목한 의견을 받은 후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때 갓 지질조사사업을 시작한 박상무의 의뢰서는 강현우를 몹시 실망케 하였었다.

의뢰서에는 지질층서며 광물형성작용 등이 전혀 세분화되지 못하였고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있었다. 그중에서도 이 지구의 지질현상을 간단히 개괄하고나서 광상학적인 개발 가치가 없다고 단정해버린 첩부된 의견은 의뢰서 한 장으로서도 조사원의 성실성을 가려낼수 있는 오랜 경험과 특히 새골지구에 대한 일정한 파악을 가지고있는 강현우의 분노를 자아냈던것이다.

의뢰서에서는 조사원의 성실성을 찾아볼수 없었으며 도면우에 옮겨놓기 위한 극히 실무적인 조사사업에 불과하였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조사원의 자세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강현우는 서둘러 현미경감정을 끝내고나서 편지를 썼다. 그는 될수록 첫걸음을 시작한 박상무가 충격을 받을수 있도록 자극적인 말을 쓰느라고 애를 썼다..

《...동무의 의뢰서에서는 지질조사원의 결백한 마음을 찾아볼수 없는것이 유감입니다. 지질조사원이 지고있는 배낭은 단순한 돌배낭이 아닙니다.

동무의 발자국은 도면우에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것이 아니라 조국의 부원을 찾아내기 위해 필요한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강현우의 편지는 지나칠 정도로 혹독하였다. 그래서 칼날같이 예리하고 무자비한 그 구절뒤에 가리워진 진정과 솔직성, 그리고 조국앞에 지닌 지질조사원들의 숭고한 사명앞에 성실하려는 강현우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지나친 간섭이며 지어는 현미경실에 가더니 어느덧 근시안이 돼버렸다고 비난하기도 하

였다.

그러나 박상무는 그 편지에 대하여 침묵으로 대답하였다. 그것은 오히려 강현우를 불안케 하였다. 자기 편지가 이제 갓 날기 시작한 박상무의 날개를 분질러놓은것과 같은 우려와 한편 자책으로 해서 은근히 그로부터 그 어떤 반응이나 회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박상무는 고집스럽게 침묵을 지켜왔었다. 광물조성의 특징으로 보아 그 주변에 광물용액들이 주입될수 있는 징후가 있으니 다시 조사해보라는 강현우의 충고는 부질없는 하나의 기우로 되고말았다.

강현우는 기다리다 못해 간단한 배낭을 꾸려가지고 그가 속한 ㄷ탐사대를 찾아갔으나 현장에 나간지 석달이 지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강현우는 곧바로 새골지구를 향해 떠났다. 해발 1,800 을 넘는 고산지대의 날씨는 시시각각으로 조화를 부리었다. 방금 원시림사이로 해별이 스며들다가도 하늘은 금시에 검은 구름을 몰아다 한바탕 폭우를 쏟아붓곤하였다. 그는 조사원들이 자리잡고있다는 새골의 한 계곡을 찾아갔다. 거기에는 새로 이영을 올린 초막 한채가 있을뿐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별써 다른 지구로 떠나가버린것이나 아닌가?)

강현우는 불안과 기대속에서 그 밤을 홀로 초막안에서 새웠다. 이튿날도 기다리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덧 수림속에는 눅눅하고 심란한 어둠이 깃들고 성글은 나무가지사이로 달빛이 흘러들었다.

무시무시한 정적이 울창한 숲속을 뒤덮었다. 어디선가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배낭을 베고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정처없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잠못드는 그의 마음을 사정없이 헤집어놓았다. 새벽에 또다시 우리와 함께 폭우가 두번 쏟아졌다.

사흘째 되는 날은 보기도문 개인 날씨였다. 강현우는 해가 뜨자 비에 젖은 옷가지들을 벗어 해별이 드는 나무가지우에 걸어놓고 배낭안에서 쌀을 퍼가지고 썰터로 나갔다. 썰터옆에는 연기에 까맣게 그슬린 돌가마가 놓여있었다. 그것을 보는 강현우의 마음은 지금까지의 고독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대에 사로잡히었다. 그는 숲속에서 삭정이를 꺾어다 불을 지피었다.

그때 초막뒤 숲속에서 나무가지를 헤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현우는 그 소리를 듣자 반가움에 못이겨 급히 그쪽으로 마주 달려갔다. 분명 숲속에서 누군가가 이리로 오고있었다.

《상무동무-》

강현우는 주저없이 동무들을 부르며 소리나는

숲속을 향해 내달렸다. 그러자 숲속에서 갑자기 와사삭-하는 소리와 함께 거무스레한 큰 몸통이 가 솟구쳐오르더니 오던길로 내뿜었다. 그것은 썩터를 찾아내려오던 산짐승이었다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강현우는 이마에서 식은 땀을 씻고나서 놀란 가슴을 진정하려는듯 썩물가에 하염없이 앉아있었다.

한낮이 지나서 흐린 하늘에서 안개비가 소리없이 내리었다. 추석추석 나무잎에서 떨어지는 비방울만이 초막안에 울적하게 앉아있는 강현우의 마음속 빈 공간을 한층 넓혀주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비내리는 초막안에 앉아있는것인가?)

박상무와의 상봉의 순간을 기다리며 일시적이거나 정화되었던 마음은 또다시 이런 생각으로 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흩어지고말았다.

그는 주저없이 초막에서 나와 숲속에서 발길을 돌리었다...

지금 박상무가 보낸 의뢰서를 더듬고있는 강현우의 얼굴에는 애뜻한 미소와 함께 환희와 자책이 뒤엉켜 착잡하게 흐르고있었다. 침묵을 지켜온 지난 몇달여간이 그에게 진정 조사원의 더없이 깨끗한 량심을 키워주었다고 생각하니 강현우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강현우는 시편 하나를 가져다 현미경밑에 놓고 스위치를 넣었다. 그러자 자그마한 암석시편에서 뿜기는 여러가지 빛갈이 렌즈에 반사되어 순식간에 시야에 들어왔다. 그것은 오랜 세일 땅속 깊이에서 고이 간직해온 자기들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듯 각이한 광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황홀경을 이루었다. 그속에서 미세한 광물립자들이 자그마한 맥상으로 나타났다. 서로 짜르면서 올라간 광물의 세맥을 유심히 관찰하고있는 강현우는 그 오묘한 세계를 그려나가듯 감정서에 부지런히 적어나갔다. 암석조성성분에 적지 않은 유색금속광물질이 포함되어있었다. 그것은 새골지구에 대한 자기의 기대가 틀림없었음을 증명해주고있었다.

강현우는 마치 매혹된 세계에서 깨어나지 않으려듯 오래동안 렌즈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한해여름 침묵을 지키며 모대긴 조사원의 고심이 가슴에 절절히 안겨와 눈물겹도록 고마왔다. 세차게 내리치면 칠수록 높이 뿜겨오르는 고무공 마냥 채찍과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높이 날으려는 박상무의 젊은 열정과 기백이 마음에 들었다.

강현우는 현미경실에 와서 처음으로 기쁨을 체험하며 흥분상태에 사로잡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탐사생활의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회상하였다.

이깎나무 우거진 태고연한 설봉산의 깊은 계곡, 거기서는 아침노을이 비길 때면 잠에서 깨어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였다. 까마득한 구름높이로 이끌어간 천두산의 오솔길, 폭우를 헤치고나서 천막속에 들면 수도를 그리며 잠못들던 밤과 밤... 그 로정우에는 실로 사람들이 누릴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랑만이 있었고 또한 시련도 있었다.

오늘따라 그 모든 생활들이 강현우에게는 더없이 귀중하게 여겨졌고 끝없는 감회를 자아냈다.

강현우는 마음을 진정해보려는듯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얼마전까지 늙은 바이올린수로 하여 마음의 빈구석을 발견했던 그는 지금 그 어떤 수치감으로 하여 얼굴을 붉히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강현우의 눈앞에는 언뜻 살눈섭을 조심히 치켜올리고 련민이 깃든 눈길로 바라보던 안해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 말로 자신을 위안하지 마세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구 남들이 따온 암석시료나 감정해주는게 무슨 보람이 있어요.》

순간 창문을 등지고 돌아선 강현우의 얼굴에는 근엄한 표정이 어리었다. 빛을 잃은 그의 눈길은 어느덧 책장안에 쌓여있는 감정자료무지에 가닿았다. 수만매에 달하는 그 자료들은 다만 지질조사원들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였다. 그것을 바라보는 강현우는 마치 자기들의 모든 노력과 기쁨이 그 종이장속에 묻혀있는것만 같아 자연히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옆에서는 새골의 감정자료를 본 젊은 기사들이 마음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떠들어대기도 하고 환성을 지르기도 한다. 그들앞에서 탐사대원의 공지에 대하여 입버릇처럼 외워대던 강현우였다. 그런데 왜 지금 자신의 마음은 기쁨만이 아니라 그 어떤 상실감에 잠겨있는것일까?

강현우는 종잡을수 없는 깊은 심연속에서 빠져나오려는듯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그때 전화종이 울리었다.

《시인선생! 안녕한가?》

전화통에서 왕왕 울리는 절절한 목소리의 주인은 강현우와 한 전호에서 싸운 전우였다. 어느 자재상사에서 지도원을 하다 얼마전에 총국으로 소환된 그는 강현우를 병사시절의 그때처럼 지금도 《시인》으로 부르기를 즐겨했다.

《정말 오래간만일세!》

강현우는 수화기를 들자 즐거운 목소리로 받았다. 늙으면서 더 자별해지는 옛정이 전화줄을 타고 오고갔다.

《래일저녁 바쁜가? 아니면 나하고 약속을 하세!》

《또 무슨 약속인가?》

《구경을 같이 가세. 대극장말일세.》

정말 뜻밖이었다. 명절날에 집으로 초청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구경을 가자고 전화를 걸기는 처음이었다.

《이거 해가 서쪽으로 뜨겠네.》

《아니, 그럴만한 일이 있네. 래일 대극장에서 명배우들의 공연이 있네. 유명한 바이올린수도 출연한다네. 알겠나?》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는 친구의 목소리였다.

《유명한 바이올린수가 출연한다구?》

강현우는 바이올린수라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되물었다.

《그렇네. 아주머니와 같이 오게, 표를 구해놓을 테니...》

친구는 만날 시간을 알리고 급히 전화를 끊었다.

이날 밤이 깊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강현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나무가지를 조용히 흔들며 불어오는 강바람은 수림속의 나무열매같은 짙은 냄새를 실어왔다. 새 주택마을은 어느덧 잠에 취해버린듯 깊은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귀를 기울이면 불꺼진 창가에서 금시 장난 심한 어린것의 잡꼬대마져 들릴상싶다.

저쪽 꺾어진 현관의 창가에서 바이올린소리가 울려나왔다. 오늘도 밤마다 들리는 그 바이올린 협주곡이었다.

강현우는 현관앞마당에 발을 붙이고 그 창가를 지켜보았다. 한층 더 세련되고 여무진 바이올린 소리였다. 온 정력을 쏟아부듯 힘있게 활을 긋는 늙은 바이올린수의 모습이 창가에 어려 끝없이 설레이고있었다.

4

극장은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고있었다.

강현우는 극장에 들어서자 곧바로 옷맡기는데 가서 모자를 맡기고나서 친구가 기다리고있는 중앙홀로 돌아왔다. 그사이 대리석기둥앞에서 친구는 웬 사람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친구와 마주선 사람은 뜻밖에도 이웃 바이올린수였다. 아래우에 검은색 연주복을 입고있는 그는 분장을 해서인지 얼굴은 한결 젊어보이고 희슬희슬한 머리칼은 기름을 발라 곱게 빗어넘기었는데 불빛에 더욱 윤택한 빛을 뽐내고있었다.

강현우는 먼저 안해와 함께 관람석으로 찾아 들어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공연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모양인지 벌써 악사들이 자리를 차지하

고 한창 음정을 맞추는중이었다. 술렁이던 장내는 점차 물을 뿌린듯 조용해지고 늦은 관객들은 발끝걸음으로 다급히 자리를 찾아가고있었다.

옆의 빈 자리는 친구의 좌석이였다.

강현우는 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대여 마음을 가다듬었다. 방금 홀에서 본 바이올린수에 대한 풀지 못한 기억이 또다시 머리를 들었던것이다. 그는 자기가 구경한 음악회의 무대들을 더듬어본다. 수많은 악사들중에서 바이올린독주자들의 모습을 기억에서 되살려보려고 하나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강현우는 면막뒤의 화려한 무대에 바이올린수의 모습을 세워놓고 상상력을 넓혀보기도 한다.

《뭘 그리 생각하나?》

언제 들어왔는지 옆에서 친구가 팔굽을 건드리는데 강현우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시작을 알리는 종이 길게 울리었다. 두번째 종이었다. 현란하게 내리비치던 수백개의 무리등이 서서히 빛을 잃고 무대에는 국부조명만이 한줄기 가냘프게 비치자 그곳에 소개자가 나타났다. 떠나갈듯한 박소리, 순서가 바뀌면서 무대는 관중들의 심장을 틀어쥐였고 온 장내는 하나와 같이 숨쉬고있었다. 면막이 있는 명배우들이 무대에 나타날때마다 관중석은 웅성이는 소리로 설레었다. 강현우와 안해의 마음을 사로잡고있는것은 이웃 바이올린수의 출연이였다. 그러나 그는 좀처럼 무대에 나타나질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올린수에게 쏠리는 그들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지고 기대는 점차 식어져갔다. 공연은 휴식이 있고 다시 2부가 계속되였다. 어둠속에서 면막이 소리없이 오르고 하늘색을 배경으로 웅장한 관현악단이 넓은 무대를 꽉 채우고 앉아있었다. 공연의 마지막순서인 바이올린협주곡이였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이 줄곧 무대만 지켜보고있던 안해는 강현우한테로 얼굴을 돌리더니 긴 살 눈섭을 치켜올리고 뜻있는 미소를 지어보이였다.

드디어 기다리던 시각이 닥쳐왔던것이다. 강현우는 기대에 찬 눈길로 무대를 주시하였다. 소개자가 연주제목과 독주자의 이름을 알리자 옆에 앉아있는 친구의 흥분된 목소리가 귀가에서 울리었다.

《우리 애가 독주를 하네.》

《뭐라구?》

강현우는 친구의 속삭임을 듣자 놀래여 반문하였다. 그 여운이 사라지기도전에 젊은 독주자가 활기있게 무대로 걸어나온다. 늘씬한 몸매에 리지적으로 빛나는 눈, 가볍게 물결을 지으며 넘어간 머리칼이며 아버지의 모색을 그대로 닮은 기름한 얼굴... 그것은 분명 어렸을 때 보던 친구의 아들모습이였다. 관중들은 자기들의 상상보다도

훨씬 젊은 독주가를 무대 한자리에 세워놓고 진심으로 우리나라의 신뢰의 박수를 보냈다. 안해도 경탄과 놀라운 눈길로 독주자에게 박수를 보내고있었다.

그러나 강현우의 눈길은 수많은 악사들이 늘어 앉은 무대를 더듬고있었다. 수십명의 바이올린수들이 렬을 지어 앉은속에서 낮익은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의 눈길은 제일 앞줄의 바이올린수로 부터 뒤줄로 옮겨가며 다시 살피었다. 바이올린수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더듬어나가던 그의 눈길은 한자리에 굳어져버리었다. 바이올린을 한쪽 무릎우에 세우고 깊은 생각에 잠긴듯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앉아있는 제2바이올린수, 그것은 밤마다 창가에 어리던 정열적인 이웃 바이올린수의 모습이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현우의 가슴속에 자기도 가늠할수 없는 뜨거운것이 치솟아올랐다.

젊은 독주가와 늙은 바이올린수, 그에 대한 풀지 못한 의문이 또다시 머리를 들었다. 마주서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와 바이올린수, 순간 기억은 구름짊에 해빛이 새나오듯 생생히 살아났다.

그것은 8년전 함박눈이 내리던 설날밤이였다. 친구의 초청으로 강현우는 그 집을 찾았었다. 오랜만에 자리를 같이한 그들은 병사시절의 회포를 나누었다. 건넌방에서 바이올린소리가 났다.

《누가 타나?》

강현우는 비스듬히 열려진 문틈으로 건넌방을 기웃거리며 물었다.

《아들이네. 요즘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바이올린을 배운다네.》

《그거 참 기록하군그래. 소질이 있는게지?》

초학도 치고선 음색도 세련되었고 선율이 박력있게 흘렀다.

《글쎄 누가 안다나? 오히려 선생이 극성스럽게 따라다닌다니 하는수없이 내버려두는게지.》

친구는 별로 그런 일에 흥미가 없는듯 장안에서 《사슴》 한통을 꺼내 터치더니 담배를 붙여물었다.

바이올린소리가 또다시 울리었다. 이따금 호흡이 끊어지고 박력을 잃게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열다섯살소년의 연주로서는 놀라울 지경이였다.

강현우는 복도에 나갔다가 건넌방을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자그마한 앉은뱅이책상우에 소년이 올라서서 한창 연주에 정신을 잃었고 그앞에는 웬 사람이 옷등을 벗어붙이고 소년의 연주자세를 바로잡아주고있었다.

연주는 몇번이나 끊어졌다가 다시 계속되였다. 땀이 축축히 내배인 소년의 좁은 이마에 넘기지 못한 짧은 앞머리카락 몇오리가 찰싹 오그라붙었

다.

연주는 끊임없이 반복되였다. 그 사람은 수건을 꺼내어 소년의 이마에서 땀을 씻게 하고 무엇인가 소년의 귀가에 대고 속삭이다간 때로는 자신이 직접 연주자세며 활의 각도를 지어보이기도 한다.

붓으로 그려붙인것 같은 시커먼 눈섭으로 해서 한결 숫져보이는 얼굴.

그날밤 셋은 성의껏 마련한 음식상에 마주앉아 술잔을 기울이였다.

친구는 잔이 돌아가기가 바쁘게 성급히 술을 들이키고는 문어회를 집어 소리가 나도록 와작와작 씹었다. 그는 이야기도 많이 하였다.

《현우 이사람, 자네 탐사를 한다구? 난 잘 모르는지는 하지만 자네야 시를 썼어야지.》

강현우는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들고 허구프게 웃으며 대답했다.

《조국의 부원을 창조하는 사업이 바로 우리들의 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네. 알겠나? 우리가 지고다니는 배낭속엔 조국의 보물이 들어있다네.》

《허허, 궁지가 대단한걸... 그러나 자네 시를 썼어야지. 사람들은 시인의 이름은 알고있지만 자네와 같은 지질조사원의 이름은 모른다네... 종수선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이올린수는 피우던 담배불을 천천히 끄고나서 조용한 미소끝에 입을 열었다.

《허허... 시인도 좋고 탐사대원도 좋지요. 탐사대원들은 비록 이름은 없지만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수많은 광산이 일떠서고 그래서 나라가 번영하는것입니다. 우리 생활에는 크게 보이지도 나타나지도 않는 자리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은 못사람들을 위해서 바치는 기쁨이 있기에 보람이 있고 궁지가 있는것입니다.》

바이올린수는 사색이 깃든 선량한 눈으로 친구를 의미있게 바라보았다...

연주는 시작되였다. 숨소리마저 잦아든듯한 장내에 협주곡의 서곡이 고요히 흐른다. 부드럽고 은은히 울리던 선율은 점차 확대되면서 동경과 울분을 안고 처량하게 울려온다. 관현악이 설레인다. 그속에서 섬세하고 독특한 음색의 아름다운 바이올린소리가 뚜렷한 색조를 띠고 가냘프게 울린다. 그러면 처량하게 흐르던 관현악은 그 소리를 조심히 감싸주면서 점차 잃어버린 고향산천에 대한 끝없는 동경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강현우는 줄곧 무대저쪽 수십명의 바이올린수들이 줄을 지어 앉은 뒤에서 활을 굽고있는 신중수의 모습에 눈길을 박고있었다. 그는 지금 온넛을 자기의 선률에 쏟아붓듯 음악의 깊은 세계에 빠져있었다. 매일밤 어김없이 이웃들의 호기

심을 자아내며 울리던 그 모습 그대로.

그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 것처럼 피타는 노력과 정열을 바쳐왔단말인가? 비록 자기의 선물은 짧고 가려낼수 없어도 다만 저 젊은 바이올린수의 선물을 감싸주고 비쳐주기 위해 것처럼 피타는 열정과 고심을 기울여왔단말인가!

젊은 바이올린수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모든 정력을 깡그리 바쳐 활을 그으며 연주에 온 넋을 쏟아붓고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현우의 눈앞은 마치 사막에 가리운듯 뿌얘지고 눈시울은 자꾸만 젖어올랐다.

관현악은 어느덧 주인공의 울분을 안고 몸부림친다. 설음은 울분으로 바뀌여지고 음악은 폭발된 인민들의 분노를 안고 극적으로 발전해간다. 독주가의 울부짖는 선물이 울리면 관현악이 그것을 받아 열렬히 호응하며 절정으로 치달아오른다.

음악은 다시 고요해지면서 원곡이 가지는 형상적내용을 깊이있게 부각해준다. 해방된 고향산천을 그리며 주인공의 세계를 내면적으로 깊이, 보다 사색적으로 울리면서 여운을 남긴채 마지막 소절을 끝맺었다.

침묵뒤에 온 장내가 떠나갈듯이 터져오른 박수와 함성, 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격동을 누를길 없어 손을 높이 들어 흔들기도 한다. 꽃다발을 든 사람들이 무대로 뛰어오른다.

강현우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젊은 독주가는 거둬 안겨주는 꽃다발을 아름이 벌게 받아안고 관중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례하다가 옆에 선 지휘자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더한층 높아지는 박소소리, 무대와 관중은 하나의 호흡으로 들끓었다. 무대에서는 관현악단성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젊은 독주가의 성공적인 연주를 축하하는듯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있다.

뒤자리에 서있는 신중수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열렬한 박수를 치고있었다.

《성공적인 연주예요.》

옆에서 젊은 바이올린수를 황홀하게 바라보고있던 안해가 감동되어 속삭이였다. 그러나 강현우는 그 말엔 관심이 없는듯 줄곧 무대 뒤줄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제야 남편의 눈길을 따라 무대를 더듬던 안해의 눈길이 젊은 바이올린수에 가닿자 박수치던 손이 굳어지고말았다.

젊은 바이올린수는 지금 격동된 심정을 금할길이 없는듯 박수를 치던 손을 높이 들어 흔들고있었다.

그 모습을 정신없이 바라보고있는 강현우는 가슴아픈 자책으로 하여 눈길을 떨구었다. 지금까지 그는 자기만이 개인의 모든 영예를 사회를

위해 바쳐왔다고 생각하였다. 그 그릇된 체념이 바로 저 숭고한 정신을 옹계 가려볼수 없게 하였으며 자기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이해할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지금 강현우의 마음은 더욱 찢기는듯 아파났다. 젊은 바이올린수는 계속 손을 흔들고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현우의 눈에는 뜨거운것이 피여올랐다.

공연이 끝나자 강현우는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뺨스를 타면 심분이면 가당을 길이건만 왜 그런지 이 밤만은 안해와 함께 조용히 걷고싶었다. 그는 사색에 잠겨 가로수길을 걷고있다. 그의 눈앞에는 아직도 못사람들의 선망의 눈길과 환호와 박수, 꽃다발속에 떠받들린 젊은 바이올린수가 아니라 비록 가슴에 꽃다발은 없고 못사람들의 눈길에 띄지 않는 뒤자리에 서있었던 그 보다 더한층 고귀하고 숭고한 젊은 바이올린수의 모습이 얼른거리였다. 그것은 젊은 바이올린수를 위해,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 지혜와 정열과 영예까지를 바쳐 헌신하는 사람에게서만이 찾아볼수 있는 가장 빛나는 아름다움이였다.

가로등불이 강물우에 떠서 그물거리는 신서다리를 건너서 새로 생긴 주택지구에 들어서니 저만큼 앞에 집이 바라보이였다.

지금까지 말없이 무거운 걸음으로 뒤마당으로 들어서던 안해가 문득 발을 멈추었다. 뺨스로 돌아왔는지 벌써 건너편 아파트의 창가에 활을 긋는 바이올린수의 모습이 비끼였다. 언제나와 같은 바이올린협주곡의 선물이 울리였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어디서 저런 정열이 생겨날까요?》

강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안해가 물라 묻는 말이 아니였다. 안해 역시 그 정열이 단순히 자기하나의 명예를 위한것이 아님을 잘 알고있기때문이었다. 자기 명예만을 위한 정열은 끝이 있겠지만 진정 그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바치는 참된 인간들의 정열은 끝도 한계점도 없는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의 《리성》이란 싸늘한 심장우에 세워진 루각과도 같은것이였다. 뜨거운 심장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리성》으로 해서 자기 정열에는 시시로 파동이 생겨났고 참된 인간이 옳을수 있는 숭고한 높이에서 오르지 못하고 그 밑에서 방황하고있었던것이였다!

말없이 숨은 노력으로 조국의 미래를 떠받들고 있는 이름없는 사람들! 강현우는 그들처럼 살고 싶었다. 혁명의 초소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반짝이는 저 못별들처럼...

바이올린소리는 계속되였다. 때로는 원선물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서곡의 한성부에 머물러 반복하기도 한다.

바이올린소리는 계속되였다.

온밤... 끝없이...

병사는 걸어간다

김동호

려객렬차는 동해기슭을 달리였다.
어둠은 짙어갔고 별은 하나 둘 차창에 내려앉았다.

전기기관차의 단조로운 바퀴소리는 자장가마냥 평온한 정서를 자아내며 려객들을 잠에로 이끌어갔다.

려객들은 하나 둘 졸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와 마주앉은 북부지구 7탄광지배인 김성민의 눈엔 더욱 청신한 생기가 차고넘치는듯싶었다.

그는 전쟁때 나와 같은 소대에서 함께 싸운 전우이다. 나는 부소대장이였었고 성민은 1 분대장이였었다.

그와 헤어진지 근 30 년이 되는 오늘밤 남행렬차에서 뜻하지 않은 상봉을 하게 되었던것이다.

그는 그제날의 상사인 내가 상좌로 되었으니 흘러간 세월이 더욱 긴것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그래 어디로 가는길인가?》

나는 라이타를 켜며 성민이에게 물었다.

《출장을 떠났던길에 〈계산척소대장〉 네 가족을 이사시키자구.》

《뭐 〈계산척소대장〉?!》

라이타에선 파르스름한 불이 피어올랐으나 불이 달리지 않은 담배대가 나의 왼손가락쥔에 그대로 끼여있었다.

《잊지 않았겠지?》

《계산척소대장을 어떻게 잊을수 있겠나?》

《소식이라도 알고있나?》

《통 모르네.》

《우리 탄광에 와있네.》

《아-니 어떻게 되어 그리로 갔나?》

《담배나 태우면서 천천히 이야기하세.》

성민이 이렇게 말해서야 나는 입에다 문 담배대에 라이타를 가까이 댔다.

《그래 동문 그가 제대됐으리라는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었나?》

《나이가 나이니만치 혹시 제대됐을수도 있으리라는거야 생각했었지. 그렇지만 글썽 탄광에 있어보지도 못한 소대장동지가 탄광으로 갔다니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네.》

《문제는 거기에 있지. 전화의 그날 내가 맨처음 그를 〈계산척소대장〉이라고 불렀지만 그것이 그의 인품의 전부가 아니라는것을 나는 그와 일하는 몇달사이에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네.》

《그래도 그를 리해하는데는 〈계산척〉이라는 별호가 딱 들어맞지.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잊지 않고있네. 그가 우리 소대장으로 온지 며칠이 안되어 전호파기작업을 하던 일말일세. 그날 동문 혼쌀이 났겠지?》

《뭐 혼쌀까지야. 그저 신입소대장을 대하기가 어지간히 빠근하구나 하고 생각했을 따름이지. 그런데 동문 그걸 여적 기억하고있나?》

《잊을수 없지.》

나는 눈을 간간지런히 쏘프리며 차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고 차거운 달빛이 차창에 부서지였다.

《계산척소대장!》

기억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 별호가 왜 이다지도 가슴을 찢릿하게 해주는것일까...

.....

《성민동무! 왜 규정대로 파지 않았소?》

《딱 한뼘을 못쫓습니다. 그만 바위뿌리가 나와서... 그까짓 한뼘쯤이야 뭐랍니까?》

성민은 더수기를 굵적거리였다.

《동문 명령에 대해서 흥정할 차부요? 한뼘이 아니라 일센치를 더 못파서 값없이 피를 흘릴수 있다는걸 알아야지. 일센치, 일센치말이요. 보병에게 있어서 참호는 갑옷같은것이란말이요. 규정대로 더 깊이 파시오.》...

결국 이렇게 되어 성민은 그를 《계산척소대장》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천대석소대장의 별호로 되고말았다.

나는 차창에서 눈길을 조용히 떼며 성민에게 물었다.

《그래 소대장이 언제 제대됐었나?》

《작년에 제대돼서 우리 탄광에 왔네. 그새 대석소대장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대충 이야기하재도 밤새 걸릴거야.》

그가 이렇게 《계산척소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데 차내 고성기에서 《문경고개》의 장중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옥천강이 생각나나?》

성민은 그날이 방불하게 떠오르는 모양이었다.

《잊을수 없지. 내가 소대장동지하고 함께 걸은 그 모든 나날들을 어떻게 잊겠나?》

...별들이 총총한 겨울의 한밤.

우리 공병소대앞에는 새벽 3 시까지 끊어진 다리를 복구할 임무가 내려졌다.

군화바닥이 땅에 닿기바쁘게 쩡쩡 얼어붙는 강추위, 거세찬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강북판, 강역에서 얼어붙기 시작한 얼음마저 사품치는 급류가 두려운듯 더는 내뺌지 못했다.

하지만 천대석소대장의 뒤를 따라 전사들은 정쟁이를 치는 물속에 침병침병 뛰어들었다.

아름드리 원목을 세우고 철장대를 가로질러 놓고...

한메터, 또 한메터.

시간은 사정없이 흘렀다.

《동무들! 인제 9 분밖에 남지 않았소. 최후돌격으로!》

소대장의 구령에 따라 두셋씩 짝을 무어 원목을 메고가는 전사들.

물속에 곤두박힌 원목을 힘 하니 떠메고 헤엄치듯 물갈기를 헤가르며 저벅저벅 걸어가는 소대장.

다리복구는 5 분을 앞당겨 끝냈다.

대석소대장은 빨리 전사들을 데리고 2 호지점으로 나가 몸을 녹이라고 나에게 지시하였다. 다음 그는 마지막에 이어놓은 다리밀을 다급히 오갔다.

소대장은 아군의 기계화부대까지 무사히 통과시키려면 마지막 련결구간에 원목을 한두대 더 받쳐주어야 안전하리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원목은 이미 다 떨어졌다.

《?!》

한초 또 한초...

나는 소대장을 혼자 남기고 떠날수 없어 잠시 주춤거리었다

이때였다.

항공감시병의 신호에 뒤이어 편대를 지어 날아드는 적기의 아찔러운 동음이 산너머에서 들려왔다.

《2 호지점으로 대피!》

소대장의 추상같은 호령에 뒤이어 세차게 울리는 호각소리.

하나 전사들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소대장께로 옥 모여들었다.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도 마다하지않던 전사들이었지만 이 순간 그들은 명령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것이다.

《이게 뭐요! 동무들!》

성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석은 불이 이는듯한 엄한 눈으로 전사들을 보았다.

《동무들! 이러단 온 소대가 위협에 처하게 되

오. 빨리 2 호지점으로!》

나는 그앞으로 말없이 다가섰다.

람조등불빛이 언뜻 비치는 순간 나는 그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피가 진 그의 눈자위엔 뜨거운 물기가 가랑가랑 고이였었다.

《소대장동지!》

나는 조용히 그를 불렀으나 불몽치같은것이 목구멍을 꼭 막는바람에 미처 뒤말을 잇지 못한채 잠시 침묵을 지키었다.

《소대장동지가 가야 전사들이 따라갈게 아닙니까? 여기엔 내가 서있겠습니다.》

나는 어깨를 들이밀어 원목을 떠메려 했다.

《비키오! 여긴 내가 서있어야 하오, 내가!》

《안됩니다.》

《지휘관은 나요. 동문 전사들을 데리고 빨리 2 호지점으로 대피하십시오! 명령이요!》

《.....》

벽력같이 소리치고는 마른침을 가까스로 넘기는 소대장.

《?!》

순간의 침묵.

전사들이 밀려오고 적기는 점점 가까이에 접어들고.

《소대장동지! 저 전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

가까이에 다가오는 전사들을 뜨거운 눈매로 바라보고 서있던 소대장은 《음-》 하는 소리를 나직이 냈다. 그러고는 머리를 버쩍 추켜들었다.

《부소대장동문 하사관들과 함께 여기에 남으시오. 분대장동문 정각 3 시에 통과신호를 하시오. 나머지 동무들은 날 따라 2 호지점으로!》

불같은 명령을 내린 다음 저만치 가던 대석은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 내앞으로 다가갔다.

《해암동무!》

늘 《부소대장동무.》 하고 부르던 그가 이 순간 나의 이름을 부르는것이였다.

나는 그만 눈시울이 뜨겁게 저려올라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부탁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부름속에 몇천마디의 값진 말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믿음이 하나가득 어려있음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있었다.

대석은 떠났고 나는 그 자리에 들어섰다.

이윽고 소대장과 함께 전사들은 나의 시야에서 멀리 벗어났다.

소대장은 더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하사관들과 어깨 나란히 원목을 떠받들고 뿌리박힌듯 서있었다. 입술이 덜덜 떨리었고 무

수한 별씨들이 눈앞에서 아물거리었다.

나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래도 마음은 자꾸 그리로 쏠리었다.

찰나 《과과-O》 하는 폭음이 귀청을 때렸다. 작렬하는 폭탄, 하늘로 치솟는 불구름, 사처에 흩날리는 얼음덩어리.

나는 엉겁결에 원목을 힘껏 붙안았다. 그리고 눈을 떴다. 그런데 놀랍게도 폭탄은 우리가 서있는 다리쪽이 아니라 몇미터 떨어진 다리아래쪽이었다.

《?!》

폭탄이 터진 그쪽에서 방긋거리는 저 불빛은?! 꺼졌다 켜졌다 하며 이쪽저쪽으로 분주히 오가는 저 불빛!

두번째 폭탄이 또다시 그쪽에서 터졌다. 열풍을 안은 물방울이 얼어든 나의 두볼을 후려치었다.

적기는 주린 승냥이때처럼 불빛을 쫓아 헤엄버렸다.

불빛은 다리쪽에서 점점 멀어져갔지만 물살을 헤쳐으며 걸어가는 자국소리는 더 크게 들려오는 듯싶었다.

그 소리는 돌도 아니었다. 단 하나!

자국은 찍혀지지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다. 화선천리를 달려간 준엄한 그날처럼 그가 지금 땅우를 저렇게 걸어간다 해도 자국은 찍혀지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그 자국은 내 마음속에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영원히 찍혀져있을것이다.

나는 불빛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더 힘껏 원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우리모두는 목놓아불렀다.

《소대장동지!》...

서산에 머리를 숙인 갈구리달이 수집음을 몹시 타는 처녀처럼 명주구름으로 얼굴을 가리웠다가 웃이 구름속을 헤엄쳐나왔다. 그때마다 은빛 달빛이 차창에 비끼곤했다.

밤하늘엔 보석을 휘뿌려놓은듯 크고 작은 별들이 재롱스럽게 깜박이었다.

밤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전화의 그밤은 얼마나 가렬처절했는가!

《옥천강 다리복구는 정말 간고했었지.》

나는 침대칸에 무겁게 서린 아늑한 공기를 가서보려고 이렇게 허두를 뻗다.

《그날 우리는 소대장동지가 아니었다면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을수도 있었을거네.》

《그야 물론이지, 그때 우리가 거길 떠나면서 심어놓은 나무들이 인젠 숲을 이뤘을거야.》

《어느때든 가보게 되겠지.》

《그 다음전투가 무명고지에서 벌어졌던가?》

《아마 그랬던것 같아.》

우리는 거기에서 서로 헤어졌다.

그때 성민은 무명고지를 점령하는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사단군의소에 후송되었었다.

보름만에 회복되어 대오에 돌아왔었지만 대학에 다니던 전투원들을 다시 대학으로 부르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고 성민은 대학으로 떠났었다.

그때 나는 사단선동원강습에 가고 없었다.

《동무가 대학으로 떠난 다음에도 나는 소대장동지하구 내내 함께 싸워왔네. 그러다가 정전직 후에 그와 헤어졌네.》

《그후엔 한번도 만나지 못했던말인가?》

《만나진 못했어두 소식은 종종 얻어듣곤했네. 58년도에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구...》

《누군지 아나?》

성민은 다쫓아물었다.

《잘 모르네. 동문 만나봤나?》

《아-니, 하지만 대강 짐작은 하고있지. 미인이야.》

성민은 사단군의소에 입원해있을 때 외과간호장의 수첩갈피에서 소대장의 사진을 본 일이 기억된다는것이였다.

간호장은 회진을 하다가 그만 실수해서 성민의 머리말에 자그마한 수첩을 떨어뜨리고 나간 일이 있었다.

이름대신에 《맑은 샘》이라고 쓴것이여서 처음에 그는 그것이 누구의 수첩이라는것을 알길이 없었다.

결국 쌓가풀진 길다란 속눈썹밑에 수심을 띤 간호장이 수첩을 찾아헤매는것을 보고서야 성민은 그에게 수첩임자가 아닌가고 물었다.

성민은 이렇게 다짐을 둔 다음에도 한참 끈덕지게 애를 먹이다가 돌려주었다.

처음에 성민은 (오빠일가? 아니면 친척벌되는?)하고 음미해왔으나 그건 초보적인 가설이라고 해도 허황한 판단이였었다.

성민은 간호장이 자기의 가슴속에 깊숙이 파묻어두었을 그 진정을 뽐아보려고 이리저리 텅겨봤으나 그는 전혀 백지상태라고 하며 두부모 자르듯 싹 베어버리었다.

인민군화보에 실린 천대석소대장에 대한 기사를 읽고 감동되어 화보에서 도려냈을뿐이라고 했다.

성민은 소대장에 대하여 성수가 나서 자랑했다.

사단군의소에 편 한떨기의 《두봉화》로 사랑받는 이 간호장이 소대장에게 《미소》를 보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에 더욱 그랬다...

사단군의소 간호장이 분명 애인이었다는 성민의 이야기를 들으려니 《그 독소대장한테 어쩌면 그런 애인이 있었을가?》 싶은 생각이 불쑥 드는 것이었다.

석비레땅처럼 메마르다고 생각되었던 소대장의 감정속에 어떻게 되어 석류속처럼 해맑고 숨처럼 부드러운면서도 양귀비처럼 뿌리내리기 힘들어했을 그 《두봉화》가 그렇게도 쉽사리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가 하는 생각이 나의 머리속에서 맴돌아쳤다.

《나는 소대장동지를 몇번 찾아간다고 버르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네. 좀 자세히 들려주게.》
《한두시간에 그걸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나. 좌우간 내가 그를 탄광에서 처음 만나던 때로부터 시작하세.》

성민이 이렇게 말하자 나는 자리를 고쳐앉으며 바짝 성민이앞으로 다가들었다.

《작년봄이었었네. 하루는 웬 중좌가 지배인동문가고 하며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나.

나는 글을 쓰다말고 문가에 들어선 그를 쳐다보았네.

《아니?》 나는 저도모르게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네. 정말 뜻밖이었었지.

나는 〈소대장동지!〉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그를 마구 부둥켜안았지.

〈성민동무가 여기서 지배인을 할줄이야.〉

〈그럼 전혀 모르고 오셨단말씀입니까?〉

〈알았다면야 벌써 찾아왔지.〉

〈아니 그럼 무슨 일때문에 이렇게?〉

〈제대됐네. 그대 탄광에서 일을 좀 해볼가 해서...〉

비로소 나는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었어. 그런데 내가 출장을 갔다오다나니 그가 탄광에 도착한지 이틀째 된다는걸 전혀 몰랐었네.

그날밤 집에서 그와 회포를 나눈 나는 이튿날 군에서 회의가 있어 그더러 집에서 꼭 쉬라 하고 아침일찌기 집을 나섰네.

군에 도착하자바람으로 나는 소대장동지에 대해서 얘기했네. 우리 탄광보다 더 큰 기업소를 맡겨두 얼마든지 감당할수 있는 일군이라구. 그랬더니 군에서도 타산이 있었다는거네. 그런데 기어이 탄광에 가겠다고 우기는걸 막을수도 없었다는 것이었지. 도에서도 시에 놀려앉히려다 끝내

지고말았다는게 아니겠나. 그래서 그길로 도에 전화를 걸었었지. 울려보내라고 하네. 그러다나니 밤 10 시가 지나서 집에 도착했었네. 그런데 소대장동지가 있을택이 있다. 집사람만 나한테 된

욕을 먹었지. 글썽 잠깐 나갔다가 오겠다고 한 사람이 얼씬도 안했다지 않나.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 옷방에 올라갔더니 기다리지 말라는 쪽지편지가 책상위에 놓여있네.

〈떠났구나!〉 정작 그가 떠났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몇십년만에 나들이왔던 어머니를 한나절만에 떠나보낸것 같아 마음이 허전해지네.

도저히 마음을 진정할수 있어야지.

괜히 사무실에서 서성거리다 자정이 가까와서 집으로 내려왔었네. 별로 마음이 뒤숭숭해지는데 다 휘영청 달밝은 밤이어서 그날밤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네. 머리를 수긋하고 탄광구내를 벗어나려는데 글썽 웬사람이 담벽처럼 앞을 떡 막아서는것이 아니겠나?

대석소대장이었네. 그는 무엇인가 한배낭 잔뜩 걸머지고있었네. 비닐보자기로 밑그루를 동실하게 겹싼 묘목들이었어.

복숭아, 추리, 배, 살구, 이런 족속들이었지.

〈오늘은 금요일로동일이니까... 공지가 많대군.〉

나는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목구멍으로 욱 치밀어올라 가까스로 내리눌렀네. 옥천강이 떠오르네. 소대장동진 거기에 나무를 심고 떠나자고 하지 않았겠나?》...

그랬었다.

아군의 진격로를 보장한 우리 공병소대는 그 이듬해봄에 그곳을 떠나면서 나무를 심었다.

나는 그때 나무를 심으면서도 소대장의 마음속 깊은데까지 다는 알지 못했었다.

온 강토가 불타고있는 때에 하필 그가 나무를 심자했는지. 하지만 파편에 허리부러진 나무들이며 꺼멓게 탄 조국의 산탈을 바라볼 때마다 나무를 심던 그 순간을 잊지 않았고 충신을 닮고 또 닮았다.

《그날저녁 나는 그와 함께 내려오면서 생각던 바를 말했네. 여긴 소대장동지가 아니래두 얼마든지 서있을 사람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래일 도에 올라가라고 권고했었지. 그랬더니 허허 웃으며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탄광에 대해서는 영백지이지만 동발을 드리는 일쯤은 한몫 제낄수 있다는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나는 결코 소대장동지가 일을 못할가봐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지.

〈그렇다면 됐네, 당이 석탄전선으로 부를 때 내가 데리고있던 수많은 병사들이 탄광에 지원해갔네. 솔직히 말하네만 나는 그들이 일하는것을 보고싶었고 병사시절처럼 그들곁에 있고싶었네.〉

〈소대장동지의 심정은 알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그처럼 많은 위훈을 세운 소대장동지를 여기에 붙잡고만 있어서야 도리가 됩니까?〉 하고 나의 심정을 그대로 터놓았네. 그랬더

니 〈뭐요?〉 하고 내 말을 툭 잘라버리며 버럭 성을 내는것이 아니겠나. 가던 걸음을 툭 멈추고 내쪽으로 돌아선 그는 저이기 진정된 기색으로 입을 열었네.

〈내가 성을 낸다고 나무라지 마오. 생각해보오. 내가 무슨 큰 위훈을 세웠단말이요? 그저 동지들이 싸울 때 나도 함께 싸웠을 따름이지.〉

〈왜 위훈을 세우지 않았다고 그러십니까? 적탄이 머리조차 들수 없게 비발칠 때 소대장동지가 돌격 앞으로! 를 웨치며 선참으로 앞장서 달리던 그것이 그저 평범한 행동이었단말입니까. 나뭇탄 불길속에서 끝까지 고사총을 놓지 않고 적기를 죽인것이 그저 평범한 행동이었단말입니까.〉

〈그거야 인민군장병들모두가 다 그러했었지. 그러니 누구에겐들 그런 위훈이 없겠소? 하지만 아버지수령님의 품이 없었던들 우리가 위훈에 대해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이요. 수령님께서 계시여 우리가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 때에도 그것이 위훈으로 높이 떠받들리우며 빛나는것이지. 그런데 내가 그 위훈의 꽃다발을 안고 머리를 휘저으며 인젠 나이 들었다구 안식처나 찾아다녀서야 되겠소? 이렇게 성민동무와 마주서니 옥천강다리복구장이 새삼스럽게 떠오르누만. 그때 성민동무가 얼음장속에 뛰어들어 다리를 지켜낸것은 결코 오늘의 지배인자리를 바라고 한것은 아니지 않소!〉

자-이러지 않겠나. 생각해보게. 그때 내 마음이 어드랬겠나. 왜서인지 눈뿌리만 쩍 저려들네.

잠시 우리 둘사이에는 말이 없었지. 멀리 건설장쪽에서는 용접불빛이 번쩍번쩍하더군.

〈우리가 략동강전투에서 피를 흘렸다구 생색을 내구 략장이 네다섯줄 되게 위훈을 세웠다구 우쭐해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혁명을 하려는 사람이겠소? 나는 위훈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본 일은 없소. 하지만 위훈이란 결코 저 용접불처럼 순간에 빛을 뽐고 사그라지는 그런것일까?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꺼질줄 모르는 불꽃! 식을줄 모르는 불덩어리! 이런것이 아니겠소.〉

그는 덤덤히 서있었네. 그 순간 나는 소대장동지와 마주 서있는것이 아니라 한 시인이 내앞에 서있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때에 받아안은 충격이 너무도 큰때문인지 성민은 잠시 이야기를 멈추었다.

《나는 소대장동지를 만나서 회포를 나누던 날 밤에 그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네. 〈제대명령서〉를 받았을 때 생각은 복잡했다네.

(조국은 아직 분열된채 남아있는데 과연 내가 손에서 무장을 놓고 대오에서 물러서야 하는가?)

이것이 제일 가슴아픈 번민이었었다네.

그렇지만 그의 생각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는거네.

병사에게 있어서 〈제대명령서〉, 이것은 새로운 초소으로 떠나보내는 당의 〈파견장〉이라고할 일세.

새로운 무장! 새로운 초소!

이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서야 할 새로운 초소는 과연 어디인가!

그는 자기보다 먼저 제대된 전우들도 그려보았고 탄광에 보낸 병사-제대군인들한테서 온 여러장의 편지도 꺼내놓았다고 하네. 그속에는 중좌동지도 제대되면 우리 탄광에 와서 함께 일하고 절절한 사연을 담아 쓴 편지도 있었다더군.

바로 이렇게 모대기고있을 때에 아버지수령님께서 ㅈ탄광을 현지지도하신 보도에 접했다고 하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석탄고지를 점령하는 투쟁에서 제대군인들이 한몫을 맡아한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시었네.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전후에도 그랬고 오늘도 변함없이 제대군인들이 어렵고 힘든 돌파구를 앞장서 헤쳐나간다고 높이 치하하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네.

소대장동지의 결심채택은 이때에 이루어졌네.

〈탄광으로 가자! 강행군하자. 어제날의 병사, 하사관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탄광으로 찾아왔다고 하네.

더 이상 내가 그를 떠밀어보낼수 없었다는것이 동무도 리해되겠지?〉

《리해되구말구.》

《그래서 나는 그를 품질감독부가 아니면 기술안전과에서 사업하도록 제기했었네. 규정과 교범을 떠난 그 어떤 타협도 모르는 〈계산척소대장〉이었으니 그 일이야 찝찝먹게 잘하리라 생각했었지.

그런데 어느새 그가 나의 이런 속심을 짚어보았는지 아닌밤중에 불쑥 내 방에 뛰어들었네.

〈파연 답답하구만, 왜 지배인동문 그렇게밖에 생각을 돌리지 못하오?〉

〈뭇말입니까?〉

〈막장에 들어가 일하게 해달라고 그만큼 부탁했으면 듣는척이라도 해야지 않겠소?〉

〈자꾸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토론이 있었습시다.〉

〈그렇다니 어찌는수가 없게 됐구만.〉

결국 그는 기술안전과에서 일하게 되었네. 그에게 휴가를 줬지. 그의 가족을 이사시키자고할

일세. 새로 지은 송림식주택을 한세대 내놓은것이 있었네. 군말이 없더군. 그런지 며칠 지나서 하루는 막장에 들어갔었네.

탄부들이 새로 뚫어놓은 막장으로 가던 걸음이었지. 거긴 동발공들외에 아직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 그런 굴이었네. 그런데 그 굴속에서 마치소리가 땡땡 들리는게 아니겠나. 걸음을 다 그쳐가보니 참 기가 막혀서... 글썽 휴가를 떠나보낸 소대장이 막장에서 동발을 드리고있는게 아니겠나? 그때도 전반적으로 유압식동발을 다 도입했지만 그 구간만은 림시로 나무동발을 드릴 필요성이 제기됐더랬네. 그런데 새로 드리는것도

아니구 금방 드린듯한 동발을 하나하나 뿔로 재여보는것이였네. 얼핏 내 눈에 띄운것만도 중심받침목을 다시 세워준게 여러대 있었구 가름동발에 췌기를 박아준것도 여러군데 보이데. 땡-땡-깡뻑을 울리는 메아리가 그날엔 왜 그다지도 가슴에 쩡 저려들던지 나는 한동안 못박힌듯 서있었네. 그는 내가 온것을 봤는지 못봤는지 그저 수격수격 하던 일을 다그칠뿐이었네. 락수물처럼 흘러내리는 땀을 이따금씩 팔소매로 뺨 훔치기도 하구... 무슨 말로 내가 그의 일손을 멈춰세울수가 있었겠나. 뛰어나왔지. 허술하게 동발을 세운 그 동발공들을 끌고 다시 들어왔네.

나는 소대장동지가 일을 되는데로 건성건성 한 그 동발공을 호되게 닦아세우리라 생각했더랬지.

그런데 글썽 비관은커녕 한마디도 하지 않네. 그러니 그를 대하는 동발공들의 심정이 어땠겠나. 그들은 와락 달라붙어 동발을 다시 드렸지. 동발공들을 내보낸 다음 나는 소대장동지한테 들어있네.

〈왜 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동발공들의 심장이 목석일수야 없지. 잘하는걸 보지 않았소. 앞으론 그런 일본새가 나타나지 않을거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할수 있었겠나.〉

차가 어느 한 역구내에 서서히 들어섰다.

렬차판매원이 사이다를 들고 들어와 차창대우에 올려놓는바람에 이야기는 중단되었다.

나의 눈앞에는 옥천강의 거센 물살을 헤쳐으며 저벅저벅 걸어가던 소대장의 모습이 방불히 떠올랐다.

그 모습은 석탄전선의 지하막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전초병으로 확대되어 조화된 하나의 화폭을 이루었다.

그는 이 땅우에 수없이 많은 자국을 찍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자국이 찍혀질것을 단 한번도 바란 일이 없었다.

차가 다시 역구내를 미끄러져 달리였다.

성민은 병마개를 뽑고 고뿌에 사이다를 부어놓았다.

좁쌀알같은 기포가 뽀지뽀지직 헤엄쳐 우로 솟구쳐올랐다.

그러나 나는 선뜻 들지 못했다.

성민은 내가 소대장에 대해 무엇인가 더 들려줄것을 기대하는것으로 알았던 모양이다.

《후에 알았지만 휴가로 집에 떠나보낸 그날 소대장동진 본선역에까지 나갔다가 새로 배치돼오는 젊은 제대군인들을 만나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는거네.》

오자바람으로 주력입사증은 갓 결혼한 동무에게 넘겨주구... 내가 정말 한심한 지배인이지. 그런걸 전혀 모르고있었으니. 배낭과 보따리는 통채로 제대군인들과 탄부들앞에 풀어놓았었네.》

《소대장동진 전선고지에서도 늘 그러지 않았었다. 마라초를 피울 때 권연 한갑 차례쳐도 갑채로 소대원들앞에 터쳐놓곤했었지.》

《그걸 일일이 말하자면 끝이 없지. 그가 기술안전사업을 얼마나 높이 추켜세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구태여 말하지 않으려네. 어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네.》

그날도 갭안에 들어갔었지. 막장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네. 열기띤 소대장동지의 목소리가 들려 주춤 멈춰섰더랬지.

〈동무가 가면 어디로 갈셈인가?〉

〈아무렴, 앞길이 구만리같은 젊은 사람이 갈데가 없겠습니까?〉

듣고보니 그 며칠전에 나한테 찾아왔던 청년의 목소리였네.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탄광으로 찾아온 동무인데 아직 안착되지 못하고있었네.

〈어디 속 시원히 말을 좀 해보라구. 왜 탄광을 뜨려는거야?〉

〈내가 탄광에 꼭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동무가 꼭 떠야 한다는 법도 없지 않나.〉

〈배우고싶단말입니다.〉

〈누가 그걸 마다하나, 외려 배우는걸 게을리하는 사람에게 매를 내리는 우리 제도가 아닌가.〉

〈그거야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어서 말하라구.〉

〈사실 나는 탄광에 찾아올 때만 해두 두세해로동속에서 단련되구 대학에 갈걸 바랬습니다. 저하고 학교를 같이 졸업한 동창생들이 대건설장에 나왔다가 대학에 거진 다 갔습니다. 나만 탄광에 와서 벌벌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동무들보다 못한게 뭡니까? 그런데 내가 탄광에

나 박혀있자구...)

〈뒤라구. 그걸 말이라구 해. 엉?!〉

〈이거 왜 이래요. 아바이가 뭐 갱장이요 지배인이요?〉

〈난 갱장도 아니구 지배인도 아니야. 탄부야 탄부!〉

동무도 탄부이고 나도 탄부인 이상 결집에 불이 붙었는데 강건너 볼보듯 할수야 없지 않나.〉

〈... ... 〉

〈그래 동문 대학에 갈걸 바라구 탄광에 찾아왔됐다?〉

〈그럼 나한테 그만한 포부도 지낼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포부야 크게 가질수록 좋지. 하지만 그 골통머털 씻기전엔 대학은 고사하구 아무데도 못가. 종개 한마리가 청천강물을 흐리운다고 동무같은 게 젊은 청년들의 얼굴을 깎아내린단말이야, 얼굴을!〉

〈아바이가 정 씨까스르면 나도 할말이 있습니다.〉

〈어서 말하라구.〉

〈글쎄 아바인 늙었으니 갈데가 없겠지만...〉

이 말에 나는 눈을 딱 감았네.

그 청년의 어깨팍을 짹 움켜잡았던 소대장의 손이 맥없이 떨어지구 그 큰 주먹으로 자기의 동가슴을 쿵쿵 쥐여박으며 쓰러지는듯한 환각이 눈앞에 일썌거리네. 누군들 뼈를 에이는듯한 그런 모욕을 당하고 견디여내겠나. 일이고 난장이고 모든것을 쥐여뿌리고 그 자리를 백번 뛰쳐나왔을 거네. 하나 그는 꾹꾹이 서있더군.

장렬한 최후를 마친 전우들의 분묘앞에서도 그는 눈물을 몰랐지만 이 순간 그는 무엇인가 씹어 삼키느라고 지그시 입술을 옥물고있었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순간에 불과했었네. 그는 결코 그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네. 눈물이 아니라 시무죽이 웃더군. 그에게서 웃음이란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지. 오죽하면 전화의 그날에 우리가 〈뚝소대장〉이라고도 불렀됐겠나.

그런데 그가 웃는것이 아니겠나.

그러니 그를 보는 내 가슴이 어떠했겠나.

차라리 소대장이 성품이라도 확 했으면 내 가슴이 그다지 아프지는 않았을거네.

소대장은 웃으며 그의 어깨를 철썩 갈기더군.

〈너석두, 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드나? 켁켁 갑자르면서... 머지 않아 장가도 가야 할 나이일텐데. 애들처럼 그렇게 발딱발딱해서야 어느 처녀가 따라오자 하겠나? 좀 비켜서라구. 저게 서있는게 지배인이 아닌가?〉 내가 가까이에 갔을 때 소대장동진 판전을 부리네. 나는 아닌보살하는수

밖에 없었지.

내가 지나쳐가자 소대장동진 그를 끌고 결골로 가네. 이윽해서 도란도란 소대장동진의 말소리가 들리네.

〈동문 왜 자기 생각만 하나. 탄광에 자원해온 제대군인들을 보라구. 그 동무들이 칠칠야밤 눈비를 맞으며 고지우에서 보초근무를 설 때 아마 동문 책상머리에 마주앉아 시험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파스한 온돌방에 누워자면서 잠꼬대를 했을거야. 제대군인들의 모범을 본받을줄 알아야지. 우리 탄광에 자원해온 제대군인 굴진소대가 첫달에 300%를 했다는 기적적인 사실을 동무도 잘 알게 아닌가. 그래 그 동무들은 동무보다 심장도 작고 포부도 작은줄 아나? 천만에, 동무보다 몇배나 더 클걸세. 그 동무들이라고 왜 대학에 가꿈은 생각이 없었겠나. 그렇다고 동무처럼 막무가내로 떠날 생각만 하면 탄은 누가 캐구 초소는 누가 지키겠나. 여기에도 공장대학이랑 있지 않는가... 그 이야긴 그만하세. 형제가 몇이나 되나?〉

〈저하구 누이뿐입니다.〉

〈누인 뭘하나?〉

〈압축기운전공입니다.〉

〈시집을 갔나?〉

〈작년에 탄광에 자원해온 제대군인하고 약혼을 했습니다.〉

〈보라구, 누이가 얼마나 생각을 잘했나. 동무처럼 등등 떠있었다면 누인 도시청년만 바라봤을거야. 어쩌면 한나무에서 핀 꽃이 그리도 다른가.〉

〈하긴 저의 누인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즘 처녀들이 다 그런건 아니랍니다. 처녀들 눈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그래 하늘만큼 높나?〉

〈대학졸업생, 도시, 이겁니다.〉

〈동문 신통히도 허파에 바람든 처녀들만 봤됐군. 내가 알고있는 처녀들가운데는 그런 동무가 한명도 없어. 내가 하나 골라잡으라나?〉

〈.....〉

〈그건 이제 앞으로 일이고. 이달 전투나 끝나면 나는 가족을 데려오자구 하네. 합숙재미도 좋겠지만 그때면 종종 우리 집에도 다니라구. 서로 다녀야 믿음도 더해지는 법이야. 우리 집사람도 대해보라구. 별로 빼여진덴 없네만 혹시 들을 소리라도 있을는지 알겠나?〉 하고 말하네.

사실 소대장동지 아주머니야 빠진데가 없지. 당원이구 지금은 의사이구. 전쟁에 참가해서 락동강까지 나갔다운 동무가 아닌가? 게다가 얼마나 아름다웠나. 바로 군의소의 〈두봉화〉였으니... 가만 요 며칠전에 그가 나한테 보내온 편지가

있네. 자, 읽어보라구.》

《그럼 들어보게.

〈…그이가 골이 깊고 해발고가 높은 북부란전에 스스로 찾아간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셨지요. 그건 저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하신 질문입니다. 사단군의소에 입원해계실 때 성민동진 그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지요. 그때 누가 그이에 대해 물으면 저는 얼굴부터 붉히곤했습니다. 제가 그이에 대해 알고있었던것은 그리 많지 못했습니다. 불을 뿜는 적화구앞에 그를 내세워도 그의 심장은 떨리지 않으리라는것만은 믿었었습니다. 그저 그런 정도였었지요. 그런데 어언간 30 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인제 그누가 그이에 대해 물어도 막힘없이 무엇이건 다 대답해드릴수 있어요. 그인 비록 제대로 되었지만 여전히 군인이라구. 수리개가 새대로 변했다면 섭섭하겠지만 수리가 수리로 남아있는데야 뭘 마다하겠습니까? 그 어데든지 따라설 결심입니다.〉

보라구, 이 〈두봉화〉가 소대장동진한테 반한것은 결코 그의 직위나 외모때문이 아니였었다는것이 명백하지 않나!

이런 훌륭한 안해를 두고있으면서도 글썽 소대장동진 단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네. 그러면서 그 청년과 말을 마치며 이렇게 뒤를 다는게 아니겠나. 〈녀성들이 남자들로부터 크게 바라는건 융감성과 결단성이야. 어떤 녀성들은 뭐라고까지 하는줄 아나? 융감성, 결단성이 없는 남자는 바지입은 녀자라는거야. 그런 졸장부가 뭘바엔 차라리 치마를 두르고 살라고까지 한대. 융감성 결단성!이것이야.〉

녀성들이 대학생만 쳐다보구 도시만 바라본다는건 어디까지나 동무의 주관이야. 중요한건 사나이의 열이야 열! 나는 동무 나이가 정말 부럽네. 그 나이엔 어찌로 산을 떠밀자고도 해야지. 그리고 단단히 명심해들으라구. 아직은 동무가 처녀들을 사랑할 나이가 이르지만 때가 되더라도 절대로 총각이 처녀들을 찾아다닐 생각을 해서는 안돼. 그럴라치면 일은 벌써 그른거야. 처녀들이 줄을 저서 따라오게 해야 한단말이야. 줄줄 따라오게서리말이야.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겠나? 귀가 좀 열리나?)

이윽해서 〈중좌동지!〉 하고 부르는 그 청년의 목소리를 나는 똑똑히 들었소.

〈아바이, 중좌아바이.〉 하며 입버릇처럼 부르던 그가 그 순간 〈중좌동지!〉 하고 부르더군. 동지라는 그 부름이 왜서 내 가슴을 그렇게도 뜨겁게 적셔주던지. 지금도 생각을 더듬으려니 자꾸만 눈곱이 저려오르네.

잠시후에 그가 갱박으로 뛰쳐나가네. 하나 소대장동진 보이지 않네. 그래서 나는 급히 그가 이야기하던 결굴로 갔겠네.

소대장동진 갱벽에 비스듬히 기대여있었네.

〈소대장동지! 랑해하십시오. 제가 잘 교양하지 못하다나니… 노염을 푸십시오.〉

〈노염이야 무슨… 내가 과한 말을 들은것이야 뽀라오.〉

그는 천천히 갱속으로 들어갔네. 나는 한동안 묵묵히 서서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았더랬지. 그는 분명 옥천강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였네.

동무도 알다싶이 그날 소대장동진 적기를 유인하다가 다리에 부상을 당하고 몹시 비척거리긴 했었지만 결코 쓰러지진 않았겠지. 그러나 이날은 다리에 부상을 당한것도 아닌데 몹시 비척거리었네. 석양이 질무렵 나는 그를 찾았겠네.

그런데 어데론가 자리를 뜨구 없더군.

나는 짚이는데가 있어 갱박으로 나왔지. 전에 파수나무를 심어놓은 그 버럭산기슭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겠네. 쉬는 날엔 종종 그리로 올라가곤 하지. 거게 가면 탄광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거던.

노을이 비낀 탄광마을의 저녁 전경은 그야말로 한쪽의 그림과도 같네. 잠그면 손에 빨간 물이 들것만 같은 저녁노을이 부채살처럼 짝 퍼져있지. 연두색으로 질어가는 파수나무의 파아란 잎새들도 진달래꽃색으로 물들어 탄광마을은 그대로 꽃바다속에 잠겨있는것만 같네.》

《신통히도 승리한 고지우의 저녁노을을 방불케 하누만. 그러니 탄광마을의 아침이야 더 좋을게 아닌가?》

《물론이지. 탄부들이 뭐라는고 하니 아침노을을 맞으면 새힘이 솟고 저녁노을을 바라보면 가슴이 설레인다고 하네. 그러나 그날이야 내 기분이 이전과 같았을리 있나. 저기압이었지. 얼마 멀지 않은곳에 소대장동지가 보이네. 담배라든 쓴 외보듯하던 그가 담배만 풀썩풀썩 피우는게 아니겠나. 그러면서 파수나무사이를 천천히 거닐데. 〈소대장동지!〉 하고 가까이에서 다가서며 나는 그를 불렀지만 뒤말을 이을수가 없었네.

〈지배인동무! 삼사년후이면 복숭아가 열릴것 같소.〉 소대장동진 그 젊은 친구에 대한 노여움은 감감 잊은듯 뜻밖의 말을 꺼내는게 아니겠나.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을 피울수 있다는데 소대장동지의 땀을 그만큼 먹구 자랐으니 인젠 열매가 맺힐 때도 됐지요.〉

〈나야 뭘 한게 있소. 그저 이렇게 이따금씩 소풍이나 하는걸 가지구. 참 그녀석이 점심이나 먹었는지. 내가 너무한것 같애.〉

〈아닙니다. 제가 정말 소대장동질 볼 면목이 없게 됐습니다.〉

〈무슨 그런 당치 않은 말을 하오.〉

〈그녀석이 일단 탄광에 발을 붙인 이상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옳게 이끌지 못하다보니...〉

〈파실나무 한대 자래우자 해도 조런치 않은 일인데 사람을 키우고 다룬다는게 그리 간단하겠소. 나는 그녀석이 그렇게 구새먹은 소릴 할줄은 정말 몰랐댔소. 젊은 친구가 어찌면 머리속이 그렇게 궁글었는지. 나는 그것이 제일 가슴 아프오. 만일 인제 다시 미국놈들이 불집을 터뜨린다면 그도 총을 잡고 전선으로 탄원해나갈거요. 용감하게 싸울테지. 하지만 승리한 그날에 그 동문 자기가 흘린 피의 대가를 꼭 받아내자할거요. 우리가 이젠 2 제대에 서야 하고 새세대를 1 제대에 내세워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1 제대에 나서야 할 성스러운 대오속에 그런 동무가 다문 한 명이라도 끼여있다는것을 알았을 때 정말 참기 어려웠소. 하지만 내가 너무 지나쳤지.〉

그는 담배를 꺼내서 내앞에 내어밀더군요.

〈지배인동무, 며칠전에 농장과수반에 찾아갔댔소. 살충약을 가져다 파수나무에 쳐주라 하더군요.〉

〈이번 금요일로동일에 말끔히 약을 뿌려줍시다.〉

〈... ... 〉

그러구나니 어쩐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

후날에 제대군인호실에 있는 동무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날밤 소대장동지가 소설책 두권하고 대학교재와 노트를 한보따리 싸들고 제대군인호실에 찾아왔다고 하네. 제대군인호실에 그 키 큰 친구의 누이와 약혼했다는 제대군인도 있었네.

어느 조용한 시각에 소대장동진 그 제대군인과 마주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하더라네.

〈그 동무가 소설을 즐긴다는것 같소. 동무가 가져다주면 하오. 그리고 그 동무만을 나쁘다고 나무라선 안되겠소. 동무들이나 나나 다 책임을 져야 할 문제요. 우리 제대군인들은 탄이나 많이 켜는걸로 제대군인구실을 다했다고 뒤집을 지고 나왔아서선 절대로 안되지. 일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사람이 비뚤어져가는걸 보고도 외면하는 제대군인이 있다면 당에서는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거요. 량심있는 당원이라면 용서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지. 그 동물 누가 도와줘야겠소? 나는 제대군인인 동무라고 보오. 다른 사람들보다 심장이 더 높게 뛰어야 할 제대군인이라면 생각도 깊어져야 할거요.〉

우리가 손에 무기를 잡을 땐 조국을 통일하구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구 군기앞에서 선서하지 않았댔소. 비록 우리가 손에서 무장을 놓

았지만 군기앞에서 다진 그 맹세, 그 각오, 그 신념마저 저버려서야 되겠소? 군복을 로동복으로 바꿔입었지만 절대로 병사의 위치, 병사의 자세를 떠나서는 안될거요. 어제날엔 내가 중좌였었구 동무들은 하사관들이였었지만 오늘은 다 같은 탄광의 신입병사가 아니요! 별이 되어야지, 별이! 그러고는 한동안 아무말없이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던 그가 노기에 차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거네.

〈제대군인아파트에서 살림을 하는 한 동무가 아주머닐 친정집에 해산하러 보냈다는게 사실인가?〉

〈예, 그 동무가 3년전에 제대된 동무입니다.〉

〈동무가 가서 타일러주는게 어떻소. 당장 돌아오게 전보를 치라구말이요. 아주머니가 해산을 해두 탄광에서 해야지. 그래야 출생중에 이고장을 밟힐게구 아이의 고향이 이 탄광이 될게 아니요.〉

이튿날부터 대석소대장이 〈날따라 앞으로!〉 하는데 생산이 올라가지 않을수 있나. 지금은 그가 갱장을 하네만. 그달에도 계획을 일주일씩이나 앞당겼었구 오늘까지 그가 책임지고있는 〈청년갱〉은 계획을 한번도 뒤로 미룬 일이 없었네.

옛날엔 탄광이라면 의지가지없는 막벌이군들이나 와서 두더지처럼 땅을 파먹었다지만 오늘이야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지. 내가 어떻게 그걸 루루히 다 설명하겠나? 한번 오라구. 구내에 들어서면 대석소대장이 어떻게 살고있는가를 대번에 느끼게 될거네.

울봄에 공지에 심어놓은 파수나무가지에 새이파리들이 파릿파릿 돌아나와 각가지 새들을 불러들이는가 하면 연주자들의 무대복같은 까만 조끼를 입은 꿀벌떼들이 봉봉거리며 날아에도는것이 가관이라네.

대석소대장의 발기루 버럭산팔짜기에다 꿀벌통들을 곳곳에 주런주런 놔뒀지. 그러니까 탄부들이 좋아할수밖에 없지. 정들면 내 고향이라구 괜히 들떠서 돌아가던 몇몇 젊은 친구들이 마음을 불이니 오죽 일을 잘하겠나?

얼마전에 4호갱에서 뜻하지 않게도 물주머니가 터졌지.

그것을 알고 제일 먼저 달려가 막은 사람이 누군지 알겠나. 소대장동지였단말일세.

그는 전쟁때 부상당했던 다리가 도져서 입원했다가 나온지 며칠이 안된 몸이였더랬네.

물주머니는 끝내 막아내고야말았지. 그런데 소대장동지의 얼굴색이 말이 아니었어. 나는 그가 비상한 의지로 서있음을 알고 억지다짐으로 병원에 보내었네.

그날밤, 침대머리맡에 서있는 나를 알아보고 그는 조용히 나의 두손을 꼭 잡아 가슴우에 올려 놓으며 사르르 눈을 감았다 뜨는것이었네.

〈왜 자기를 그렇게 모릅니까? 쇠고개를 넘어선 몸이라는걸 왜 망각하려고 합니까? 글썄 저기가 어디라구...〉

〈지배인동무! 내가 어떻게 자신을 늙었다고 생각하겠소. 학생몰임 그대로인 내가 처음으로 손에 총을 잡고 화선앞으로의 첫자국을 때던 때가 었그제같은데. 허허...참.〉

소대장동지의 입가엔 서글픈 미소가 가볍게 어리어있었네.

잔주름 잡힌 그의 눈가에 맑은것이 번뜩이었네.

〈지배인동무! 대학에 갈수 있도록 합의를 좀 해주오.〉

그는 문득 나에게 이런 제기를 하는것이 아니겠나.

〈아니 갑자기 입학원서는 두통씩이나 해서 뭘 합니까?〉

〈한통은 대학에 보내달라던 그 키 큰 친구를 주고 나도 공장대학엘 다니려구. 머리를 짧게 하자면 부단히 배워야 할게 아니겠소. 늙었다구 배우는것마저 게을리 한다면 아주 늙어버릴게거든.〉

그는 조용히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있었소. 웃고있는 그를 보니 내 마음도 가벼워지더군.

평시에 웃지 않는 사람은 이런 때에 웃으려고 웃음을 아끼는것이라고 생각되었더랬네. 그는 나에게 은근히 충고도 주었네.

〈내 지배인동무한테 한가지 부탁할 일이 있소.〉

〈무슨 부탁입니까?〉

〈지배인이 막장에 들어가는건 그리 힘들지 않을테지한 종업원들이 살고있는 아파트 창문유리 한장 깨어진거라든가, 합숙식당에 고기나 푸성귀가 떨어졌다는걸 알기란 좀해서 쉬운 일이 아닐게요. 그러나 그걸 해야 지배인이 막장에 들어가도 진짜 빛이 나지 않을가 하는거요. 내가 부탁하고싶은건 이거요.〉

그순간 흔히 스쳐버릴수 있는 이 말이 내 가슴에 얼마나 크게 들려왔는가 하는데 대해선 구태

여 설명하려 하지 않네.

〈지배인동무 생각은 어떻소? 내가 제대된것 같소?〉

〈그럼?!〉

〈나는 한순간도 자기를 제대되었다고 생각해본일이 없소. 나는 영원히 병사로 서있을것이요.〉

소대장동지의 눈에서는 섬광이 일었소.

그날 나의 손을 꼭 움켜잡고 침대우에서 일어난 그는 50 대의 탄부가 아니었네. 옥천강의 소대장, 봉화고지의 소대장, 그 젊음, 그 투지, 그 패기가 그대로 차고넘치는 불굴의 기상 그대로였지. 잠시후였네.

내가 방에서 나오려는줄 알았던지 간호원동무가 조용히 방안에 들어섰었네.

그는 간호원더러 창문을 좀 열어달라더군.

간호원들을 앞질러 내가 창문을 열어주었됐지.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들었네. 밖은 이미 어두웠고 하늘엔 별들만이 반짝이며 빛을 뿜었지.

〈별은 여전하군!〉

나는 이렇게 말해놓고도 내자신이 무엇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억제 못할 걱정이 복받쳐 오르는것이었네.

소대장동진 덩 덩히 앉아서 창문밖을 오래도록 바라볼뿐 아무 말도 없었네.》

이야기는 여기에서 매듭을 지었다.

나의 손가락끝에 끼여있는 다섯대째의 담배가 연회색연기를 모록모록 피어올리며 거의 타들어 갔으나 나는 한모금도 빨지 않았다.

남행렬차는 수도평양을 가까이 하였다.

나는 차창밖에 눈길을 보냈다.

성민이도 차창밖에 시선을 떨구었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새날이 희뵈히 밝아오기 시작한것이다.

성민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가?! 그가 왜 한마디의 말도 없이 묵묵히 앉아있는것일가?!

내가 그러하듯이 그도 걸어온 삶의 마디진 년대우에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길우에 세찬 바람이나 비발에도 지워지지 않을 글발을 새겨보는것이냐 아닐가?!

《영원히 병사로! 》라고...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조국통일의 기본장애이다.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억세게 싸우라!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에서-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김웅하

밀보리 누르러가던
평화로운 새벽이
피빛으로 불타오르던
50 년의 6 월
아직도 풀지 못한 그날의 원한이
저 하늘에 서려있다

어머니의 젖가슴을 찾아
캄캄한 창고의 벽을 허비다
살인귀의 휘발유에 불타버린
신천땅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우리의 가슴을 친다

그 불연기
그 울음소리
지금도 저 검은 구름 드리운 남녘땅에
차고넘치거니

내 오늘은
피에 젖은 광주를 안고
의분에 몸부림치며 일떠서는
온 남녘땅을 안고
침략자 미제-네놈을 단죄한다

사람들이여 보는가
항쟁의 남녘땅
그 땅을 그러안고 쓰러진
이 나라 젊은이들의 가슴에서 흐르는 선혈을

보는가
잔인한 사슬소리 울리는
미국제땅크의 무한궤도
그렇게도 참된 삶을 그리던
너학생들의 옷자락을
물어뜯고 갈가리 찢으며

광장과 거리를 피로 물들인것을

오 사랑하는 내 조국
민족의 넋이 굵아쳐흐르는 우리의 땅
저 남녘땅의 참극을
그 어느놈이 빚어냈느냐

《유신》 없는 삶을 부르짖으며
파쑈의 총검앞에 내댜 애국의 가슴에
기관총을 쏘놈은 누구냐
그를 부추기는놈은 어느놈이나

나서라
피가 마르도록
민주와 자유를 부르는
그 애끓는 가슴에
화염방사기를 뿔으라고 명령한놈은

나서라
할머니의 흰머리우에 칼을 내두르는
악당들의 손이 떨리지 말라고
홍분제를 쳐먹인
흉악한 살인자의 두목은

나서라
그것은 너
민족의 백정 전두환살인악당
그것은 너
미제침략자- 바로 네놈이다

《인권옹호》의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남녘땅을 인간도살장으로 뒤덮은
미제, 너는 피에 주린 승냥이
미제, 너는 인권의 간악한 교살자

광주의 무등산도
태백의 험한 산벼랑도
증오의 총창이 되어 서슬푸르고
남해의 노한 파도도
길길이 솟구쳐오르며
네놈을 단죄하나니

저주가 있으라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의 력사
네놈들로 하여 뿌려진 피의 력사
그 천백배로 복수하리라

해적선의 포문을 열며 이 땅에 기여든
침략과 략탈의 백여년
《해방자》의 탈을 쓰고
온 남녘땅을 인간생지옥으로 만든
분렬의 서른다섯해

네놈은 얼마나 잔인한 만행으로
이 땅을 피눈물속에 잠기게 했느냐
네놈은 얼마나 몸서리치는 죄악으로
인민에게 고통과 불행을 들썩운것이나

무자비하리라
무자비하리라
이 세상 한끝까지 가서라도
무서운 징벌을 안기리라

《유신》의 땅크와 칼부림으로
민주와 자유의 거센 흐름을 막을수 없고
민족의 존엄을 건들리수 없나니
보복의 총탄을 채우던 온 남녘땅이
또다시 분노의 화산으로 터져오르리라

참을수 없는 거례의 분노앞에
피할수 없는 세계의 규탄앞에
《두개 조선》의 흥계를 그러안고
침략자 미제-너는
죄악의 검은 피를 토하리라

6월의 맑은 하늘에
푸른 번개가 달린다
누르려 설레는 밀보리도
끝없는 증오를 안고 몸부림친다
줄기줄기 천만산악도
우뢰를 터친다

네놈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한
풀릴수 없는 백년의 그 원한을 안고
조선은 온 세상앞에 단죄하나니
침략자 미제-네놈은
가장 무서운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가장 비참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분노한 남녘이여!

박세옥

솟구치며 타오르는
항전의 불길은
쌓이고 또 쌓인
원한의 화산이런가

자유를 부르며
민주를 웨치며
불을 터뜨리며 나아가는
오 남녘땅 남녘땅

피발선 하늘아래
불타는 거리우에서

최루탄을 헤치며
총탄을 뚫고 달려가는
너 터져오른 광주여
너 분노한 서울이여

듣느냐
점점이 붉은 피로 꽃나이를 물들이며
항쟁의 거리에 쓰러진
학우의 입가에 아직도 흐르는
그 못다부른 웨침을

보느냐

원쑤의 무한궤도밑에 쓰러지면서도
부서진 포석
불타는 땅을
그러쥐고 일어서는
저 불굴의 녀을

피타는 웨침
목마른 갈망
푸른 하늘아래
자유의 강산을 그려보며
나래를 퍼덕이던
그 청춘의 붉은 심장이
어찌하여 고통을 멈추어야 하는가

피도 많이 뿌려왔다
청와대의 철조망우에
검푸른 마산의 바다가에
의로운 4월의 그 광장에

하지만 하늘마저 가리운 감옥
총칼로 둘러친 교정
그밑에서는 살수 없어
그대로 더는 살수 없어

한목숨 그대들 바라는것은
《유신체제》 없는 자유였고
《유신체제》 없는 민주였고
《유신체제》 없는 미래가 아니었던가

그렇다 높이 들자
자리차고 일어나
틀어진 돌맹이
불길을 뿜는 화염병
탄환을 재워 든 그 무장을

그것은
어두운 남녘땅에
동트는 새벽노을을 불러오는
투쟁속의 자유
투쟁속의 민주

어깨걸고 나아가는
그대들이 추켜든
그 틀어진 주먹을 놓는다면

빼앗아 든 그 무장을 놓는다면
남녘은 영영 감옥이 되리
남녘은 영영 암흑이 되리

흘린 피우에
자유와 민주를
꽃피우고싶어
청춘의 가슴에
참된 삶을 안고싶어

이글이글 불이 이는 눈물
풀어헤친 노한 가슴들
거리와 거리를 부르며
대오와 대오를 이으며
《유신》우에 자라난
새로운 《유신》을
불사르며 나아가나니

원쑤의 칼부림으로도
땅크의 무한궤도로도
인민이 뭉친 힘을
당해낼수 없다
미국도 미국제 총칼도
《유신》독제를 구원하지 못하리니

피로 물든
항전의 광장우에
가슴을 쥐고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서 나아가는 길우에
민주의 새봄은 마중오고
통일의 새날은 밝아오리

오 싸우는 광주여
분노한 서울이여
하늘이 타고
땅이 타는
우리의 강토 남녘땅이여

그대들이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 하늘
그대들의 발밑에 달려오는 그 땅
그 하늘 그 땅우에
민주의 기발은 펄럭이리라!
참된 삶은 푸른 숲처럼 설레이리라!

소 원 외 1 편

주광남

이글이글 강철로에 불길 높으면
늘어날 쇠물량을 가늠하는 마음
이런 날 이런 때엔
아버이수령님 모시였으면...

티없는 쇠물이 백광을 뿜으면
깨끗한 이 마음처럼
맑고 눈부신 쇠물
아버이수령님께 보여드렸으면...

간절한 마음
날을 따라 달을 따라
더해지는 그리움
마음속에 고이 품고 살았더니

아 햇빛도 눈부신 이른아침
몸소 찾아오시여
용해장에 들어서시는 아버지수령님
환하게 웃으시며 로앞에 다가서시여라

만나뵈옵는 벽찬 감격
쇠물로 터져오르고
맑은 하늘엔 쇠물빛 찬란히 퍼지는데

쇠물이 흐르는것을 보니 기쁘다고
만족하시여 용해공들의 어깨를 두드려주시는
자애로운 손길

이 세상 제일 큰 기쁨을 맞으신듯
그리도 밝게 웃으시며
쇠물뽑는 용해공의 보람을
끝없는 영광으로 빛내주시는
아버이사랑이여

수령님 이른아침에 오시니
모시쫄은
품었던 그 소원조차 송구스러워진 마음
용해장에 서계시는 수령님 우리러
쇠물보다 더 뜨거움에 젖어

이런 날 이런 때엔 더 간절해지는 소원
오늘보다 더 많은 쇠물 끓이는 로앞에
오늘보다 더 찬란히 백광뿜는 쇠물앞에
밝게 웃으시는 수령님 모시였으면
아 그런 날 그런 영광으로
우리는 한생을 로앞에 서있으리라!

용해공의 밝은 얼굴

한해전에도 만나셨건만
몇해만에 처음이신듯
아버이수령님 환하신 미소로
용해공의 손을 반가이 잡아주시고

미처 인사도 변변히 못드린채
송구스러이 머리 수그리는
그의 얼굴 찬찬히 살펴보시며
-얼굴색이 좋지 않구만...
심려의 말씀 뜨거이 울릴 때

얼굴을 번쩍 든 용해공

그 무슨 간절한 청을 드리는듯
-아닙니다 수령님
저는 건강합니다

그이께선 잠시 말씀이 없으시였다
용광로의 고압송풍을 위해
머칠밤 지새운 그 수고를 헤아리시고

미덥게 바라보시며 하시는 말씀
-아니요, 동무의 얼굴색은
피곤하다는것을 말하고있소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미소지으시고
자애로운 그이를 우러러
용해공은 선자리에서 말이 없고
눈길만이 뜨거움에 흐리어왔다

뜨거움에 잠겨 깊어지는 생각
여름엔 선풍기의 바람결 먼저 가늠하시고
겨울엔 살림집 온돌방을 짚어보시고
오실 때마다 쇠물의 톤수보다
더 먼저 용해공들의 건강을
념려하시고 보살피시는 어버이사랑이여

세상 더없는 그 사랑에
한생을 바쳐 아까움 없을 마음이건만
그 마음마저 앞서 헤아리신것인가

다시금 녀려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어서 휴양을 떠나라고
사람이 제일 귀중하다고

아 휴양소의 맑은 공기, 포근한 침대
그것만이 어찌 새힘을 안겨주랴
불앞에 살아도 언제나
뜨거이 흘러드는 어버이사랑이 있어
열정은 끓고 용기는 넘치나니

목메여 대답 못드리는 용해공의 얼굴엔
맑은 이슬이 구슬져내렸다
뜨거운 감격속에 못다드린 그 대답이
가슴속에 쇠물로 세차게 끓고있었다

10 월의 그날을 향하여!

차영도

마음도
생각도
오직
10 월에로만 달리는 땅이여라

솟는 해도
지는 달도
오직
10 월을 향해서만 달리는 하늘이여라

시간이여
또 하루 밝아오는 새날이여
《100 일전투》의 총진군길우에
숲처럼 일어서는 기적을 마중하라

우리는
당의 구호를 받아안은 사람
우리는
당의 전투명령을 받은 전사

오, 얼마나 크나큰 우리의 힘이
여기서 태어나는것이나
당의 구호를 새긴 심장
당의 명령을 새긴 가슴

그렇다
우리는 그 심장 그 가슴으로
끓으며 솟구치며
10 월의 그날에로 달려가노라

10 월을 향해가는
백날!
이는 지구의 자전이 주는 시간이 아니다

불타는 충성을 안고
10 월에로 달려가는 우리에게
전투의 나날은 주리라
누구에게는 백날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달을
그대와 나에게는 몇날을 줄것이나!

오, 낮과 밤이 이어지는 전투의 나날이여
가장 깨끗한 량심과
가장 뜨거운 열정을
당에 바쳐가는 나날이여

이 엄숙한 시각에
이 책임적인 시각에
못다한 하루계획을 두고서야
우리 어찌

별이 웃는 조국의 하늘밑을
벗뻗이 걸을수 있으랴

오늘의 이 벅찬 시대의 걸음에
그대와 나의 걸음 발맞추지 못한다면
아 10 월의 그날
우리 어찌 승리자의 함성 우뢰치는 이 땅에
벗뻗이 설수 있으랴

가슴을 더치라
열정을 뿜으라
10 월을 향해!

나래를 펼치라
위훈을 날으라
10 월을 향해!

우리 오늘에 맞고보내는
이 영광찬 하루하루가
얼마나 빛나는 래일의 력사로
후세에 길이 남을것이나

향도의 빛발이

누리에 넘치는 땅
80 년대의 대기념비들이
력사와 시대앞에 솟구쳐오르는 땅

마음도
생각도
오직
10 월에로만 달리는 땅이여라

솟는 해도
지는 달도
오직
10 월을 향해서만 달리는 하늘이여라

오, 당의 구호를 받아안은 심장들이
준엄한 돌격전에 나선 가슴들이
태양이 눈부신 10 월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6 차당대회를 마중가나니

그날을 향해
오, 10 월의 그날을 향해
위훈이여 빛나라
시간이여 앞으로!

새 주소 새 이름을 찾아서

리익주

읍거리를 지날 때 넣어달라며
잊지 말고 우편함에 넣고 가라며
사람들에게 쥐여주는 그 편지들
탐사대원들이 보내는 그 소식들

가도 가도 인적 없는 천고의 수림속
한달에도 몇번 탐사의 로정따라
 옮겨왔고 옮겨갔는 천막에서
남의 주소 빌려서 띄우는 편지

이렇게 부쳤구나
고향집에 보내는 문안편지도
탐사대 본부에 보내는
수많은 새로운 소식들도

오, 천길땅속에 묻힌 광맥을 찾아
조국의 재부만이 아닌

사람들의 새 주소를 주기 위해
바람찬 산정 눈깊은 수림속에서
주소 없이 사는 탐사대원들이여!

이제 그대들이 개발한 산정에
번져가는 발파의 메아리로
새 광산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고
주소 없던 천막자리에 마을이 들어앉아
집집마다 밝은 창문이 열리는 날

아 얼마나 많은 기쁨이 찾아올것인가
집집의 문을 두드리는
편지와 소포봉치들
별방의 할머니 가져오는
좋은 혼처도
새 주소를 찾아서...
새 이름을 찾아서...

깊어지는 갯도를 뒤에 두고
 꽃피는 새 팥산촌의 행복을 뒤에 두고
 또다시 주소 없는 산정-
 새 개발지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선두위치에서
 큰길을 내며 가는 탐사대원들

산과 들 넓은 땅 그 어디에 있어도
 개발의 발과소리로 자기 위치를 알리며

언제나 자신이 걸어온 발자욱을
 조국의 지도우에 새 지명으로 새겨가는 그들

아아, 그들의 주소
 탐사대원들의 주소는
 조국과 함께 있구나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그 크나큰 이름속에...
 그 빛나는 이름속에...

달리는 차바퀴소리도 정다와

강현세

눈부신 해빛
 은빛으로 번쩍이는 철길우에
 섬없이 맞고 보내는 차량들
 들어도 들어도 정다웁구나
 저 차바퀴소리

드넓은 구내 차갈이 철길에
 갈래갈래 화차를 나눠보낼 때
 조국땅 하많은 일터, 하많은 사람들
 나를 어찌 알아보랴만
 그래도 좋아라 나는 차갈이공

들어오는 기관사의 흐뭇한 미소
 오늘도 한차지 쇠물을 더 뽑은
 용해공의 그 기쁨 어린듯
 가락맞는 차바퀴소리도
 흥에 겨운 내 마음 알아주는가

떠나가며 손길 흔드는 화물원
 비단천 필필에 꽃무늬를 새긴
 알뜰한 직포공의 마음도 안아
 갈길을 다우치라 떠밀어주면
 멀어지는 차바퀴소리 다급한 내 마음
 알아주는듯

무거운 재부를 떠싣고
 가볍게 달리는 렬차를 따라
 더 세차게 울려오는 기계소리
 누런 벼이삭이 설레이는 소리
 먼바다 배고동소리도 나는 들어라

행복의 차량 또 하나
 기쁨의 차량 또 하나
 순간마다 늘어나고
 길고긴 화차들을 무어보낼 때
 내 서있는 일터가
 온 나라 일터와 하나로 이어지는듯

떠나가라 화물렬차여
 차바퀴소리 우렁차게
 그리하여 일터와 초소마다
 혁신의 노래가 되고
 기쁨의 노래가 되고 즐거움이 되라

맑은 하늘 눈부신 해빛에
 은빛 철길들이 뻗어간
 여기 차갈이 일터에서
 수령님 불러주신 수송혁명 한길을 지켜
 나는 조국의 모든 일터를 안고 산다

이른봄

김명진

봄빛은 강기슭에부터 찾아들고있었다.
고진강우에 두텁게 덮였던 얼음은 따뜻한 해별을 받으면서 푸르스름한 빛을 잃어버렸다.

모래기슭에 짙 붙어있던 얼음가늑은 얇아지고 밑이 들리더니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리며 맑은 물이 솟구쳐올랐다.

겨우내 숨죽이고있던 여울가에는 어느덧 물결 소리가 높아지고 그우에 나직이 드리운 버들가지는 몽실몽실한 버들꽃들을 가볍게 흔드적이고있었다.

그러나 봄기운은 아직 너무도 약했다.

우중충한 벼랑이 강변에 바투 나앉은 선바위우로부터는 해별이 산그늘을 지우지 못했고 물이 고여있는데도 얼음이 그대로 붙어있었다. 거기에는 낚시꾼이 뚫어놓은듯한 얼음구멍들이 보이군 했다.

강계에서 등교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인순이는 가벼운 걸음으로 강기슭을 거슬러오르고있었다. 읍에서 30 리 떨어져있는 류별작업소까지 뺄스가 다니기는 하지만 봄물이 질어가는 강변에 마음이 끌려 일부러 걸어보는것이다.

자갈돌이 하얗게 깔린 강변을 사박거리며 밟아보는것도 좋았고 물결우에 비죽이 드러난 바위돌들을 위태롭게 골라디더 얼음판에 뛰어올라서는 한참씩 미끄럼을 타며 내달리는것도 즐거웠다. 그리고는 다 자란 처녀의 이 천진한 놀음을 누가 보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으로 서둘러 사위를 둘러보기도 했다.

강역에는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양지쪽 비탈은 해별이 따스하게 비치는데 강우로부터는 겨울의 마지막 입김인듯 차거운 바람이 불어왔다.

인순이는 파란 머리수건을 뒤로 날리며 또다시 종종걸음을 놓았다.

살갗이 맑은 가름한 얼굴에 티없는 웃음이 어린 눈빛, 방싯 열린 작은 입, 머리뒤에 두른 알포름한 나이론수건... 그의 꼭 맞추어 입은 옷에서는 연한 향수내가 풍겼다.

이렇게 얼마쯤 치달아오르던 그는 강굽이에서 주춤 멎어섰다.

음달진 얼음판우에 누구인가 이쪽을 등지고 앉아있었다.

(여기에도 낚시꾼이 있네.)

인순이는 고기잡이에 열중하고있는 사람을 놀

래우지 않으려고 발걸음소리를 죽이며 그옆으로 에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색이 바랜 군복상의를 입은 청년이 어느새 발자국소리를 감촉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인순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담뱃 피어났다.

《창호동무!》

인순이는 공연히 조심성스레 굴었다는듯이 총총히 달려갔다.

청년은 뜻밖에 나타난 처녀를 보고 입귀가 벌여졌다.

《지금 오는 길이요?》

《네, 새벽차에 내렸어요...》

인순이는 등교수업에 갔던 일을 이야기하기보다 평하게 뚫린 얼음구멍을 호기심에 차 넘겨다보았다. 그 주변에는 낚시대도 구렁도 보이지 않고 날이 선 도끼 한자루가 멍그라니 놓여있었다.

《그런데 무얼하세요?》

《얼음두터이를 재보려던참이요.》

《네? 그건 무엇하려구요?》

《얼음녹는 시간을 알아보려고 하오. 검척공이 때마침 찾아왔군.》

창호는 입가에 웃음을 보였다.

인순이는 좀 새롭힌 빛을 띠고 웃주머니에 늘 넣고다니는 접이자를 꺼내여 펼쳤다. 그리고 얼음두터이만큼 곧추 밀어넣고 눈금을 가늠해보았다.

《여긴 좀 두텁소. 이게 다 녹자면 며칠이나 걸릴가?》

《스무날 가까이 있어야 될거예요.》

《스무날씩이나? 그렇게 오래 기다릴수는 없소... 강을 따라가보지 않겠소?》

창호는 도끼를 집어들고 인순이와 걸음을 같이했다. 그는 등교수업과정이며 아버지가 일하는 광산소식을 묻고나서 작업소에서 인순이 오기를 무척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슬며시 내비쳤다.

그 말에는 창호자신의 기다림이 다분히 들어있는듯 얼굴이 좀 붉어졌다.

그야 아무렇든 인순이도 그간 떨어져있은 작업소가 여간 그리워지던게 아니였다. 여기 있을 때는 몰랐지만 변화한 도회지에서 며칠 부대끼고나자 산기슭에 오붓이 들어앉은 림산마을이 간절히 생각키웠던것이다. 울창한 수림과 계곡을 씻어 내리는 맑은 물, 호수처럼 넓게 펼쳐진 물동가와 그기슭에 높이 쌓여진 아름답리 나무들, 숲에

서 러괴된 청신한 대기속에서 마음마저 깨끗해보이는 류벌공들... 이 모든것에 정들고 애착이 가서 이제는 떨어저서는 살수 없을듯이 생각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류벌작업소에서 그가 없어서는 안될 리유를 인순이자신은 알지 못하고있었다. 통나무를 다루고 물결과 겨루어나가는 혈창은 일터에서 그는 한떨기 꽃과 같이 밝고 생신한 기운을 풍겨 주고있다는것을...

인순이는 모든 사람들을 부드럽고 살뜰히 돌봐주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여기는듯했다. 외진곳에서 누가 보건 안보건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는, 나라에서 귀중히 여기는 류벌공들이기에 더구나 사랑과 애착을 기울이고싶어지는지도 모른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울여줄수 있는 그런 친절과 성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돌려주고있었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작업소에 갓 온 한 청년이 자기에게 차례지는 인순이의 그 친절을 애뜻한 사랑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는 몸거둬새에 몸을 들이며 처녀의 눈에 잘 보이려고 애썼다. 그리고 어떤 적절한 기회에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다 한다.

그런 때에도 인순이는 그 해맑은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지 않고

《저에게는 아직 그런 시기가 일러요. 그리고 동무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있으면 일에 더 집중하세요.》 하고 충고를 주었다고 했다.

그때 그 친구가 보기 좋게 코를 싸쥐고 돌아선 것이 어떻게 소문이 돌아 사람들은 미소를 띠우고 인순이를 더 아껴주려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인순이의 마음을 약간 흔들어놓은 그럴만한 일이 생겼다.

그때도 등교수업을 하고 돌아온 인순이는 물동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아침녘이었다. 떼무이나무를 채고있던 인순이는 누구인가 줄곧 자기를 지켜보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허리를 편 그는 제대군복차림의 청년과 눈길이 마주쳤다.

그 청년이 이쪽 떼로 넘어오며 반죽좋게 말을 건넸다.

《좀 쉬어 하지 않겠소?》

《아이, 전 바쁜데요...》

인순이는 수첩에 나무의 립방수를 적어넣으며 이 청년의 이름이 창호라는것을 생각해냈다. 이 젊은이는 그가 등교수업 떠나기전에 군대에서 제대되어왔는데 그동안 떼물이보조공으로 따라다니고있었다.

그저 꽃밭이나 익힌 정도여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도 못했다. 며칠전 사업소적인 축구경기에서

그가 공격수로 이름을 날렸다는 인상만 남아있었다.

인순이는 직감적으로 이 청년이 무엇인가 말하려 한다는것을 감촉하고 다음때로 넘어갈념을 못했다. 만년필마개를 막고 머뭇거리는데 그가 우접좋게 말을 붙였다.

《소장동지에게 제기할게 있어 그러는데 동무의 의견을 좀 듣고싶소.》

《제 의견이 무슨 소용 있어요?》

《동무는 소장동지와 가까운 사이라고 하던데... 조언을 좀 받고싶어 그러오.》

《호호. 〈공격수〉 동무가 왜 그냥 들이떨 생각을 못하고 우회로를 찾고있어요?》

《작전상 필요해서 그러지요. 공격을 하자면 대상을 파악한 다음에 들이대야 더 효과적일수 있지 않소.》

두사람은 어느덧 이야기에 끌려들어 통나무에 가지런히 걸터앉았다가 갑자기 떼가 움썰 흔들리는바람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바로 떼우에 얼굴이 검스레해서 엄격해보이는 석대준소장이 우뚝 서있었다.

청년은 급히 일어서며 군대식으로 몸가짐을 꼳끗하게 폈다.

《여기서 무엇하고있소?》

《네, 방금... 소장동지 이야기를 하던참입니다.》

《내 이야기를?》

《네, 소장동지가 류벌공들의 참된 지휘관이라는걸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의 심정을 잘 알아주고...》

《자, 이 친구 보라. 사람을 세워놓고 올려추고 있다?... 동무를 가만두면 안되겠소.》

《네, 저도 가만있기를 원치 않아서 제기하려던 참입니다...》

인순이는 고개를 수그렸다가 천연스레 말을 번지고있는 청년을 보고는 터지려는 웃음을 막느라 손으로 입을 가리웠다. 청년은 정중히 제기했다.

《소장동지, 보조공으로 떼를 탄지 두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도 단독으로 떼를 맡겨주십시오.》

《두달만에 떼를?...어디서 이런 조급한 친구가 나타났어?》

《저는 해병이였습니다. 어뢰정을 몰고나가던 그 기백으로 하면 못할게 있습니까, 허락해주십시오.》

청년의 어글어글한 눈망울에는 자기 희망을 이루어보려는 간절한 빛이 어려있었다.

인순이의 가슴은 한껏 죄여들었다.

대준소장의 입에서 불쑥 《안되오!》 하는 엄한 목소리가 튀어나올듯싶어 가슴이 오주주해진 그

는 저도모르게 한결음 나서며 말했다.

《소장동지, 창호동무는 때를 훌륭히 물줄 알아요.》

《허허, 어느새 협동작전이 돼있었군. 인순이 말이라면 좀 참작해볼 필요가 있지.》

대준소장의 입귀에 웃음이 떠오르는것을 본 인순이는 모두었던 숨을 나직이 내쉴수 있었다.

하여튼 그때 대준소장이 창호의 익살에 넘어갔던지, 아니면 인순이의 말이 효력을 냈던지 그에게는 단독으로 때를 물수 있는 행운이 차례졌던 것이다.

류벌작업소에 전례가 없는, 신입보조공이 하루 아침에 류벌공으로 승격한데 대하여 그 나이의 젊은이들은 부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입이 가려워했다.

《그 친구 날래단말야. 때도 날래게 잡아타고 처너도 날래게 휘어잡았거던.》

이런 말이 사람들의 입으로 옮겨지고있었다. 얼굴이 환해진 창호를 보고도 다 알만하다고 했다.

하지만 인순이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놀랐고 다음에는 허구픈 웃음을 웃었다. 그는 자기가 창호를 사랑한다고는 생각해보본적이 없었던 것이다.

다른 모든 성실한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창호에게도 친절과 성의를 표시했을뿐이었다. 이제 스물다섯살에 잡힌 인순이는 사랑, 결혼에 대한 문제는 아직 먼 앞날의 일로 생각하고있었다.

그것은 자기의 리상을 실현한 다음에야 부닥칠 문제였다.

통신대학 졸업, 립업부문의 혼치 않은 녀성기사, 새로운 때무이방법의 창안... 자기의 생활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직 일에만 직심해왔었다.

두사람은 얼음판우로 나란히 걸어갔다.

창호는 앞을 곧추 바라보며 은근한 어조로 말했다.

《인순동무가 또 좀 도와주어야겠소.》

《얼음을 까내려는거해방?》

《그렇소. 이번에는 정면공격으로 넘어가야겠소.》

인순이는 눈섭을 내리깔고 덧물이 진 얼음판을 조심히 넘어서며 물었다.

《소장동지에게 말씀드려봤어요?》

《제기했소. 소장동지는 얼음두터이와 면적을 알아보고 토론해보자고 하더군.》

《... ...》

입술을 꼭 다문 인순이의 얼굴에는 한가닥 그늘이 비꼈다. 대준소장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

그는 강을 얼마간 거슬러오르도록 말이 없었다.

× ×

인순이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등교수업 떠나기전에 뒤산에서 떠다심은 꽃나무는 그동안 물기를 머금고 가지가 뽀잇해보였다.

인순이는 화분을 해빛이 잘 비쳐드는 창턱에 옮겨놓으며 전화를 받는 대준소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다. 이즈음에는 왜 움쩍 안하는가, 류벌공시절을 잊었느냐는 대준소장의 말에 아버지가 무슨 우스개말을 하였는지 소장도 어깨를 들석이며 웃었다. 그리고 곧 진중한 낯색이 되어 송화구에 입을 바투 가져다댔다.

《인순이에게서 광산소식을 들었소. 갱목을 더 보내주지 못하는 이 소장의 가슴은 안타깝구려. 여긴 아직 얼음이 풀리지 않았다니까... 해내겠소.》

대준소장은 전화를 끊고나서 벽에 걸린 달력을 이윽히 바라보고있었다.

첫째가 내릴 시기가 늦어진다는 근심에서인지 그의 눈귀에 난 허물자리가 우무려져보였다.

이때 문기척소리가 울리더니 찬바람을 안고 창호가 들어섰다. 그는 대준에게 인사를 하고 손에 들었던 종이장을 책상우에 내놓았다.

《얼음두터이와 면적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음, 수고했소.》

대준은 종이장을 당겨 들여다보고는 손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었다.

《내 계산과 비슷이 맞소.》

《아니, 그럼 소장동지도?》

《소장이 가만 앉아있어서야 되오. 나도 얼음두터이를 재보았소.》

대준은 자리에서 일어서 방안을 친친히 거닐다가 창가에서 멎어섰다.

《창호동무, 오늘아침 방송을 들었소?》

《네, 채취공업부문에서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아마 갱목을 더 많이...》

《아니, 기상예보를 들었는가말이요... 날씨가 더 차지겠따오...》

대준은 창가에서 물러나며 힘들게 뒤말을 이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것 같소. 얼음이 날래 풀릴것 같지 않소. 금년에는 철기가 더 늦어지는가보오.》

《?...》

창호는 긴장한 빛으로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대준은 그런 눈길을 느끼지 못하는척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우수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린다고 하지만 고진강은 그보다 스무날이 늦어지거던... 얼음이 푸석푸석해져야 까낼수도 있소.》

《그렇게 하면 이달 20 일이 넘어야 합니다. 동무들과 토론을 해보았는데 모두 해낼수 있다는겁니다...》

창호는 강의 음달진 구간에 군데군데 남아있는 얼음량이 많지 않다는것을 상기시키듯 말하고 물길을 내는 일은 청년들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그의 검은 눈빛에서는 만만치 않은 고집이 엿보였다.

그의 열은 생각을 깨우쳐주려는듯 대준의 말은 은근히 울렸다.

《너무 조금해하지 마오. 이젠 두달만에 떼를 타던것과는 다르오. 물길을 여는것도 시기가 있는데 너무 서두르다가는 일을 그르칠수가 있소.》

대준소장이 타이르듯 부드러운 빛을 보일수록 창호의 얼굴에는 불만스러운 빛이 짙어갔다. 믿고 기대했던것이 무너져버린 서운한 감정이 밀물처럼 가슴에 흘러들었다.

지금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당 제 6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는데 류벌에서도 일찍 큰결음을 내짚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 앉아서 강이 풀리기를 기다리는 오랜 관습은 깨뜨려져야 한다. 자연이 가져다주는 때몰이시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계절을 앞당겨야 한다.

창호의 말은 웅골차게 울렸다.

《소장동지, 그건 너무 늦잡는것 같습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투쟁에서도 공격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인순이는 사무실한옆에 비켜서서 가슴을 조이며 두사람을 불안스레 바라보고있었다. 창호가 너무 조바심쳐하는것 같았다.

(소장동지 말에 일리가 있어.)

인순이는 얼음까내는 일을 동의하지 않는 대준소장의 심정이 심분 해아려졌다.

창가에 다가서서 고진강을 이윽히 내다보고있는 대준소장은 지나간 시절의 갈피를 더듬어보고있는것 같았다.

어린시절부터 떼에 올라 여린 뼈를 굳히였고 반생을 물길우에 흘러보내며 슬픔과 기쁨, 온갖 고초를 맛보아온 류벌공의 생활...그는 떼를 더 많이 내리려고 누구보다 애쓰고 고충을 겪어온 사람이기도 했다.

어느해 봄인가 그는 많은 로력을 들여 강의

음달진 얼음구간들을 꺼내고 전에없이 일찍 떼를 띄운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무모한 일로 되었다.

얼음섞인 성난 물결은 절기를 어긴 떼들을 좁고 구배진 강의 얼음장말에 사정없이 들이밀었다. 떼는 모두 마사지고 놀대가 부러지면서 대준은 눈가에 상처까지 받게 되였었다.

그런데 그때보다 절기를 더 앞당겨 일을 벌려놓는다는것은 모험이였다.

인순이는 류벌공들에게 순탄한 물길만을 열어주고싶어하는 대준소장의 마음을 잘 알고있었다.

이윽하여 대준소장은 자리에 가앉으며 그루를 박듯 무겁게 말했다.

《안되오. 그렇게 할수 없소.》

《그럼, 강이 풀리기를...계속 기다려야 합니까?》

창호는 참을성을 잃어버린듯 목소리가 조금 떨리였다.

《기다려야 하오.》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만 있겠습니까?》

《육당만 앞세워서는 안되는게요. 좀 더 생각해 보자구.》

창호가 성급해할수록 대준은 태연하고 끔찍없는 빛을 보였다.

그가 한번 안된다고 하면 그만이라는것을 알고있는 창호는 가슴만 들먹이고있다가 격한 어조로 말했다.

《소장동지가 이러실줄은 몰랐습니다! 》

그는 몸을 돌려 바람을 일구며 나가버렸다. 문가를 쏘아보는 대준소장의 안경 낀 얼굴은 엄중해보였다.

인순이는 제 잘못이기라도 한듯 얼굴이 달아올라 고개를 수그렸다가 바삐 뛰어나왔다.

《창호동무!》

그는 다급히 부르며 창호를 따라잡았다.

《그렇게 뛰쳐나오면 어떡해요?》

《동무도 소장동지와 같은 생각이요?》

격한 마음을 누르지 못하는 창호의 눈빛이 날카로와졌다. 인순이는 그 눈길을 받아내지 못하고 서둘러 피하였다.

《저를 아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하지만 소장동지는... 이 강에서 평생 떼를 타온뿐이에요.》

《그렇다고 그 말을 다 따를수는 없소.》

《동무는 소장동지를 너무도 모르고있어요. 소장동지는 누구보다 떼를 일찍 내리자고 애쓰고있어요. 이번 일을 왜 들어주지 않는줄 아세요?...》

인순이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떨렸다.

하지만 창호는 그것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만두오!》

그는 몸을 돌려 강쪽으로 걸어갔다. 찬기운이

풍겼다.

인순이는 분한 생각으로 눈물이 솟아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었다. 그러다가 누가 눈여겨보는것 같아 바빠 몸가짐을 고쳐 피하듯 강변으로 내려섰다. 해별이 사물거리는 강기슭을 따라 발길 닿는대로 한참 걸어올라갔다. 물동가에서 퍼그나 벗어 저 찻레나무덤불이 한껏 어우러진 안침진곳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푸르게 열린 하늘과 아스랑게 뻗어나간 련련한 산발들, 그리고 아직은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자연의 고즈넉한 정적속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싶었다.

생각해보면 순탄하게 흘러가던 그의 생활의 고요한 수면은 깨뜨려졌다.

한때는 어이없는 소문이 돌아 마음이 산란해졌는데 이제는 때몰이시기를 당기는 문제때문에 안타까와하는것이 자기로서도 이상했다.

모든것이... 창호가 와서부터였다.

그가 평온한 자기 생활을 마구 뒤흔들어놓고있었다.

인순이는 찻레나무덤불그늘이 진 얼음판에서 문양같은 꽃잎서리가 녹아내리는것을 보고있었다. 아니 그우에 떠오른 창호의 타는듯한 눈빛을 보고있었다.

그가 좀전에 마주보지를 못하고 서둘러 피하여 버린 눈빛, 이제는 조용히 바라볼수 있는 그 눈빛은 인순이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꾸짖는듯했다.

《...인정에 끌려 무원칙하게 두둔하려는거요?》

인순이는 자기 마음을 랭정히 굽어보았다. 창호의 눈에 비친 자기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가. 그저 레사롭게 흘러가는 류벌생활의 울안에서 모든 일을 이미 해온대로만 따르는데 습관된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가...

그의 선의와 믿음을 자기가 저버린것 같아 인순이는 가슴이 아찔근해졌다.

어딘가 머물러버린듯한 자기에 비해 거센 흐름우에 몸을 실으려는 창호에게는 확실히 공감되는 것이 있었다.

계절을 당겨 빨리 나아가려는 높은 지향, 대담성... 그런 그에게 자기는 너무 랭담한 빛을 보인것 같았다.

그의 높은 지향이 느껴질수록 인순이는 창호의 뜨거운 마음을 미처 헤아려보지 못한 그 어떤 송구스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는 왜 대준소장의 심정을 알고하지 않을가. 자기 생각만 내세우려 하니까 대준소장은 창호를 더우기 조급한 사람으로 보는지도 모른다.

그 성미는 앞으로 일에서 또 어떤 빈틈을 가져올수 있다.

인순이는 창호가 하는 일에 무엇인가 일깨워주고 성심껏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들었다. 그의 힘있는 걸음걸이에 자기를 바투 따라세우고싶었다.

비온뒤처럼 말쑥하고 청신해보이는 이깔나무, 잣나무숲의 끝없는 설레임소리가 들려왔다.

인순이의 마음도 가벼워지는것 같았다.

× ×

석양빛이 스러진 림산마을에는 어스름이 깃들었다. 낮게 드리운 검푸른 하늘에서는 별들이 수집은듯 숨박꼭질을 하고 상현달이 떠올라 푸릿한 빛마저 흘러내렸다.

합숙에 들렀던 인순이는 창호를 만나지 못해 허전한 마음이 되었다. 얼마간 떨어져있는 사무실에 가보았으나 거기에도 창호의 등식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 동무는 어디 갔을가?)

인순이는 걸음이 무거워져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흘러내린 머리를 쓸어올리는 그의 입에서는 가벼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창호가 자기 마음을 알은체하지 않고 일부러 나타나지 않는것 같아 야속한 생각이 들었다. 그가 하는 일에 자기가 공연히 마음을 쓰는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인순이는 그런 생각을 곧 지워버리고 창호를 만나 무엇인가 터놓고 이야기해주어야 마음이 가벼워질것 같았다.

그가 창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인순이는 이런 생각을 하였을것이다.

문득 검검한 강기슭아래서 그림자 하나가 길우로 불쑥 올라왔다.

《어마나!》

인순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굳어졌다. 상대편도 저으기 놀란듯 이쪽을 바라보았다. 창호였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

인순이는 반가움이 앞서 가벼운 탄성을 올렸다. 창호도 사뭇 당황해하는것 같았다. 아마도 그는 울적한 마음을 지우지 못한채 저물도록 강변을 거닐며 자기의 제안을 실현할 방도를 찾아 모대기였을것이다.

《바람을 좀 쏘이더랬소...》

창호는 자기의 내심을 엿보인것을 변명이라도 하듯 이렇게 말하고 걸음을 옮겼다.

《창호동무!》

인순이는 그가 그대로 가벼릴것 같아 종종걸음으로 따라갔다.

《좀 말할게 있어요...》

창호는 걸음이 멈추더니 슬며시 멈추어섰다. 언짢은 감정을 애써 누르고 말할게 있으면 어서

하라는 빛이었다.

인순이는 그를 찾아다닌것을 창호가 알거나 하라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런걸 말하고싶지 않았다.

그에게는 창호가 그대로 뿌리치지 않고 멈춰서 준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정작 그앞에 서자 마음속으로 끌라온 말들이 웬일인지 뒤죽박죽이 되고말았다. 그는 주저감이 들어 머리를 수그렸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창호동무의 제기가 옳은가봐요. 제 생각이 모자랐었어요...》

창호는 씩씩한 빛으로 강건너쪽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너무 랭담하게 대해주는것이 안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던지 인순이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돌렸다.

인순이는 숨을 돌려쉬고나서 또렷하게 말했다.

《하지만 창호동무는 너무 성급해하는것 같아요. 일을 실수없이 하려는 소장동지의 마음도 리해해주어야 할게 아니예요?...》

뜻밖의 타격에 창호는 얼퍼름한 빛으로 인순이를 바라보았다. 푸릿한 달빛아래 그의 눈길은 꽃꽂해보였다.

인순이는 그 눈길을 받아내지 못하면 자기가 더 말할 용기를 잃으리라는것을 느꼈다. 그는 잣아드는듯한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고 창호에게 깨우쳐주고싶었던 말을 다 하고는 고개를 수그렸다.

창호가 자기의 진정을 느껴주기만을 바랐다.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인순이는 창호의 급한 성미 그대로 격한 말이 튀어나오리라는 생각으로 가슴을 죄었다. 그런데 그가 기다렸던 말은 떨어지지 않았다. 창호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는 격한 마음을 애써 누르는듯 몇번 거닐다가 인순이의 앞에 우뚝 멎어섰다.

《내가 그렇게 조급한 사람으로 보이오?》

뜻밖에도 부드럽게 울린 목소리에 인순이는 놀란 눈길을 들었다.

달빛에 비친 창호의 푸른기 도는 얼굴과 눈빛은 마치 《인순동무는 내 마음을 왜 그렇게 몰라주오?》 이렇게 말하고있는듯하다.

인순이의 가슴에는 불쑥 그 어떤 런민의 정이 차올랐다. 자기가 창호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아픈 말을 해준듯하여 가슴이 아릿해졌다.

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다소곳이 수그렸다.

하늘에서는 조각구름이 푸르푸레한 달빛을 지워버렸다. 떨어지면 쟁강 소리를 낼듯 차갑게 여

물어진 별들은 무엇인가 못다한 이야기를 속삭이듯 씩씩이 깜박이었다.

창호는 강너머쪽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굳어진 몸자세를 풀었다. 그는 인순이의 얼굴을 한번 흘끗 쳐다보고는 일부러 뜨직한 어조로 말했다.

《인순동무에게 부탁을 하나 해도 일없겠소?》

《네...》 인순이는 눈길을 들었다.

그의 마음을 괴롭히던, 창호에게서 잃어버릴뻔한 믿음을 다시 찾게 되는 기쁨이 가슴에 피여올랐다.

창호는 진정을 담아 말했다.

《략도를 한장 그려주오.》

《?...》

《전투를 승리로 이끌자면 작전도가 있어야 하지 않소...》

《예, 알겠어요.》

인순이는 상긋 웃음을 지어보이고 고개를 수그렸다. 창호의 말에는 무엇인가 더 큰 기대가 들어있는것 같았다. 자기가 고진강을 잘 알아서만이 아니라 거센 흐름에 들어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에서이리라.

인순이는 창호에게서 강에 남아있는 매 얼음구간에 대한 측정자료를 들으며 그가 고진강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사람은 강기슭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 ×

며칠이 지났다.

요즈음 대준소장은 창박을 내다보는 회수가 잦아지고있었다.

인순이가 화분에 물을 주려고 사무실에 조심히 들어설 때면 무거운 낮빛으로 고진강을 《감시》하는 그를 보게 되곤하였다.

《밤사이에 꽃망울이 더 커졌어요.》

인순이의 가벼운 탄성에도 알은체하지 않고 대준소장은 창가에서 눈길을 떼지 않는다. 《감시》결과는 좋지 못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절기는 늦어지고 강은 아직도 군데군데 남아있는 낡은 《옷》을 벗어던질 념을 안하고있었다.

오늘아침에는 대준소장이 《감시소》에서 나와 물동가의 여기저기를 무거운 걸음으로 밝아보고있었다.

물녘에는 겨우내 끌어내린 나무들이 층층을 이루어 까마득히 쌓여있었다.

나무들을 강물에 굴러내리고 떼바둑을 무어내고 고리쇠를 박는 《쟁-쟁-》하는 도끼질소리는 언제 울릴려는지 물동가에는 고요한 정적이 깃들여있었다.

그때 참나무타리개를 두둑이 쌓아놓은 준비작

업장에서는 창호와 짧은이들 몇이 모닥불주위에 둘러앉아있었다.

싸늘한 강바람이 연기를 한쪽으로 몰아갔다. 창호는 《얼음까지전투구획도》의 네귀에 조약돌을 얹어놓고 이윽히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고진강의 흐름이 그려져있었고 한쪽 여백에는 전투일정이 적혀있었다.

눈길을 떼고난 창호는 옆에 앉은 인순이를 돌아보았다.

《날자를 이보다 더 당길수 있잖겠소?》

창호의 얼굴에서 불만의 빛을 읽은 인순이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자신도 무엇인가 미흡한 점을 느끼고있는터였다.

《일정을 좀 당기도록 토론해봅시다.》

창호는 만년필을 뽑아 락도를 짚어가며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

인순이는 그의 생각을 따르지 못한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 등뒤에서 자갈돌 밟는 소리가 났다.

《여기선 무엇들 하고있소?》

대준의 웅글은 목소리에 모두 일어서 몸가짐들을 바로했다.

창호는 조약돌을 치우고 락도를 들어 그에게 펼쳐주었다.

《음, 지도를 만들었구만?》

대준은 흥미를 느낀듯 그것을 이윽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몇겹으로 접혀있는 락도의 전모를 한눈에 담아보기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소장동지를 방금 찾아가려던참이였습니다. 보시고... 여기에 비준해주십시오.》

창호는 락도의 웃쪽에 《작업소장비준》이라고 밑줄을 그은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다. 그는 한발 늦어진것을 게면책여하면서도 작업소장이 수표를 해주리라는 기대를 은근히 내비쳤다.

대준은 눈길을 들며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이건 누가 만들었소?》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인순이는 포렛이 말했다.

《제가 그랬어요.》

대준은 저오기 놀란 빛을 지었다.

《음, 그러니까 인순이도 이 <작전>에 한몫 끼운 셈이군.》

인순이는 그만 고개를 수그리고말았다.

대준의 묻는듯한 어조에는 그 어떤 불만이 비껴있었다. 창호를 일깨워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의 《작전》에 《가담》해나선데 대한 가벼운 질책과 노여움까지 섞여있는듯싶었다.

《내가 좀 가져다보겠소.》

대준은 품을 들여 그린 락도를 소홀히 대할수 없어서인지, 아니면 여기서 보기가 불편해서인지

인순이가 조심스레 접어주는 종이장을 쥐고 강웃쪽을 두벅두벅 걸어갔다.

모닥불가에는 한순간 침묵이 드리웠다.

애짧은 청년이 눈을 깜박이다가 창호를 돌아보았다.

《소장동지가 우리 의견을 들어줄가요?》

《이제 <공격> 명령을 내려줄거요. 우린 좀더 토론해봅시다.》

창호가 모닥불에 마른 봇나무가지를 얹어놓자 사위여가던 불길은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모임에서 창호는 구체적인 분공들을 주었다. 모두 흥분에 떠있었다.

인순이가 추운듯 몸을 웅송그리며 마지막에 일어서려는데 창호가 한마디 했다.

《내가 저녁에 소장동지를 찾아가 의견을 들어보겠소. 전투일정은 변동이 없을게요.》

인순이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밤, 서늘러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밀림의 저쪽에 떠있던 먹구름장들이 몽깃거리며 밀려나와 달빛을 가리워버렸다.

사위는 갑자기 캄캄해지고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떠돌았다.

인순이는 합숙에 들러보고 나와 길가에 망연히 서있었다. 창호를 만나려고 급히 달려온것이 한발 늦어진셈이다.

대준소장을 찾아가는 창호의 일이 아무래도 마음놓이지 않아 그에게 류벌공들을 아껴주는 소장의 그 마음을 꼭 말해주고싶었는데 벌써 가버린 것이다.

인순이는 산기슭에 앉은 사무실쪽을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에서 두사람의 격해진 얼굴을 보는듯했다. 한번 마음먹은건 굽히려 하지 않고 열렬하게 주장하는 창호, 《안되오!》 낮으나 고집스런 빛으로 그 말을 눌러버리는 대준소장, 두사람의 마주친 눈에서는 불꽃같은것이 튀긴다...

인순이의 가슴은 그 어떤 불길한 예감으로 죄여졌다. 이번 일도 틀어진다면..., 인순이는 그 어떤 충동에 못이겨 종종걸음으로 달려갔다. 찬바람이 진눈까비를 얼굴에 마구 뿌려대고있었다.

인순이는 숨가빠 사무실앞에 이르러 널뛰듯하는 가슴은 가까스로 가라앉혔다.

유리를 댄 문가에 다가선 그는 문고리를 쥐고 망설였다.

방에서는 어딘가 숙연한 분위기가 느껴졌던것이다.

대준소장은 심각한 빛으로 책상에 길게 퍼놓은

략도우에 눈길을 보내고있는데 그 앞에 서있는 창호는 대준소장의 두툼한 입에서 무슨 말이든 떨어지기를 기다리고있는것 같았다.

인순이는 방안의 침묵을 깨뜨리기가 저어되어 문고리를 슬며시 놓았다.

창호가 대준소장의 말을 더 기다리려 하지 않고 그의 옆에 다가가서 손으로 락도를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하자 인순이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었다.

《연묵소와 선바위같은데를 내놓고 대부분구간의 얼음은 푸석푸석한 〈비계〉기때문에 별로 품안들여도 제낄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끼탕을 좀 맥이고… 전투는 래일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대준소장은 잠자코 듣고있다가 불만스러운 빛으로 자리에서 움쭉 일어났다.

그의 눈길은 엄격해보였다.

《무슨 일을 치자고 그러오?》

그는 방안을 무겁게 거닐더니 창가에서 벗어섰다.

《고진강은 물결이 여간 사납지 않소. 일이 잘못될수 있다는것을 생각해보았소?》

대준소장의 꿔뚫어보는듯한 눈길은 마치 창호에게 《나는 이미 쓴맛을 본 사람이요. 일을 그린 다음에 후회해서는 늦소.》 이렇게 말하는것 같았다.

두사람의 눈길은 마주졌다.

대준소장을 똑바로 바라보는 창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뜨겁고 절절한 빛이 넘치였다.

《소장동지, 저희들은 소장동지가 우리를 위하고 아껴주려 하는 그 심정을 가슴뜨겁게 느낍니다. 소장동지가 벌써 오래전에 누구보다 일찍 때를 내리려고 애써왔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창호를 바라보는 대준소장의 안경 낀 얼굴은 한순간 굳어진듯했다.

인순이의 가슴에는 전류처럼 찌릿한것이 흘렀다.

(창호동무는 이미 알고있었구나?)

그는 창호를 너무도 모르고있은것 같았다. 자기는 대준소장이 겪은 실패를 말해주기를 주저해왔는데 창호는 오히려 그를 더 잘 이해하고있지 않은가.

창호의 말소리는 낮으나 가슴을 치듯 뜨겁게 울려왔다.

《…하지만 실패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수 있습니다. 소장동지는 얼음두터이는 재보고있으나 저희들의 심정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진강의 거센 흐름우에서 류벌공들에게 물결과 싸워나가는 의지와 힘을 키워준 소장동지 같지 않습니다. 언제나 첫떼를 몰아내리며 길을 열어준것처럼 이 전투의 지휘관으로 나서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힘을 믿어주시시오. 전사들에게 구령을 내려주시시오!》

대준소장은 타는듯한 눈길로 창호를 바라보았다. 짙은 눈섭이 꿈틀거리는 얼굴에는 경련이 지나가는듯했다.

한갓 욕망을 앞세워 분별없이 나선다고만 생각했던 창호의 가슴에 지닌 뜨거움이 느껴져서인지 아니면 빨리 나아가려는 그들보다 어딘가 머물러버린 자기를 느껴서인지… 이윽하여 창가로 눈길을 돌린 그는 고진강의 거센 흐름을 그려보는데 있었다.

여러해전, 그자신이 불안과 신념의 부족으로 가까스로 열어놓았던 좁고 구배진 물길, 오늘은 그 강을 기어이 정복하고 길들여나가려는 창호네들이 지닌 힘과 지혜, 열정을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준소장은 웃웃 단추를 끌어놓고 안경을 천천히 벗어내렸다. 무엇인가 돌이켜보는듯 안경알을 닦고 또 닦는 그의 손길은 가늘게 떨렸다.

이 순간 인순이는 창호가 다 말하지 못한듯한 절절한 심정을 대준소장에게 터놓고싶었다.

(소장동지, 소장동지는 왜 저희들의 지향을 꺾어줘주려고 생각지 못합니까. 길을 열어주고 구령을 내려주는것이 진정 우리를 위해주는것이라는데 왜 모르세요?)

이렇게 말하고싶은 충동으로 가슴을 설레던 그는 손기척도 울리지 못하고 문을 밀고 들어섰다.

두사람은 놀란듯 이쪽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길을 받자 인순이는 어찌선지 몸이 굳어진듯하여 입을 열수가 없었다. 그는 흘러내린 머리를 손으로 쓸어올리고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고있었다.

《소장동지… 비가 오고있어요.》

그는 가슴에 차오른 안타까운 심정을 눈빛에 담아보였다.

《비가 오다니?》

대준은 물기에 젖어 딸기빛처럼 익은 인순이의 얼굴을 이윽히 바라보더니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 누기찬 바람과 함께 차거운것이 뿌려졌다. 그것은 비방울에 가까운, 아직은 진눈까비였다.

컴컴한 하늘에서 생긴 진눈까비들이 창력과 방안에도 마구 날아들어 녹아버렸다. 대준은 얼굴과 목덜미에 떨어지는 차거운 물기를 맞으며 인순이의 말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말에서 그 어떤 깨우침을 받는듯싶었다.

진눈까비는 곧 비방울로 변할것이다.

대준소장의 얼굴에는 깊은 자책의 빛이 어렸다. 창호와 젊은이들은 다가오는 봄빛을 가슴속에서 움트우고 자라왔다면 자기는 첫비발을 맞고서야

비로소 봄을 알게 된 느낌에서이리라.

이윽하여 그는 창가에서 물러나 자기 책상앞에 돌아왔다.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안경을 천천히 끼더니만 연필로 략도의 옷자리에 힘있게 수표를 했다.

《소장동지!》

창호가 격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부르짖듯 말했다. 인순이는 눈물이 그렁하여 두사람을 바라보고있었다.

× ×

물동가의 새아침이다.

고진강에는 물결소리가 높고 때이른 물안개가 피어오르고있었다.

겨우내 숨죽이고있다가 심호흡이라도 하는듯 얼음이 뚱뚱 떠다니는 물결우로 입김같은 안개가 보얗게 떠올랐다.

강의 략기슭에는 사람들이 하얗게 나와있었다.

봄비는 사람들속에는 인순이의 말그스레한 얼굴도 보였다.

갑자기 강변에서 일어난 환성에 인순이는 눈길을 들었다.

대준이가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처럼 물녘의 높은곳에 올라서 붉은 기발을 번쩍 추켜든것이다.

《발벌!》

힘있는 구령이 물동우에 메아리쳤다.

순간 막혔던 물목이 터지면서 맨 앞에서 흔들리던 창호의 떼가 미끄러지듯 떠내려갔다.

인순이는 앞쪽으로 나가 발돋움을 해 바라보았다.

그러던 한순간 그는 이쪽으로 머리를 돌린 창호의 눈길과 마주쳤다.

오늘따라 더 림름해진듯싶은 그의 얼굴에 환하게 피어난 웃음...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인사이기도 한 그 웃음을 인순이는 오래도록 붙잡으려고 했다.

언제인가 창호에게 충고를 주던 일이 떠오르며 그의 마음을 미처 헤아려보지 못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날에 빚진 송구한 마음도 합쳐 그는 먼 길을 떠나는 창호에게 무엇인가 당부하고 전하고싶은 소중한 말을 그 짧은 순간에 웃음으로 마주보내려 했다.

그런데 눈앞이 불현듯 뿌옇해져 떼무리들을 가

려볼수 없었다. 이름할수 없는 애뜻한 정이 오는 채없이 가슴에 찾아들었다.

봄을 마중해 류벌을 당겨오면서 인순에게는 모든것이 당겨지는듯했다.

언제부터 가슴에 지너온 생각, 대학을 졸업한 후에나 할수 있는것으로 여겼던 새로운 떼무리방법에 대한 구상도 이제는 부풀어오른 꽃망울처럼 서둘러 피어나고있었다.

이때 대준소장도 떼무리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맨앞에서 놀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길잡이처럼 사품치는 물결을 헤가르며 나가는 창호의 모습은 무엇인가 새로운것을 튕겨주는듯했다.

류벌공의 성격은 순탄한 물결우에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사나운 격류속에서 태어나고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봄을 당길수록 더 아름답고 강의한것으로 되는것이다.

대준의 가슴에 한가닥 그들을 던져주던 창호의 조바심, 그것은 그의 성미탓이 아니었다. 보다 빨리 나아가려는 높은 지향과 뜨거움에서 샘솟는 열정이였다.

그것이 부족했기에 대준이자신은 기슭으로 밀려난 물결처럼 조용히 흘러내리려고 하지 않았던가.

이 봄에 보게 된 고진강의 첫물결은 대준의 가슴에도 격랑을 일으켜주는듯했다.

망망한 바다를 향하여 바빠 내닫는 저 거센 물결처럼 사람도 목적지에도 서둘러 나가야 한다. 그 하나하나의 지향들이 합치고 합쳐 생활은 더욱 즐기찬 흐름을 이루는것이 아니라.

대준은 옆에 서있는 인순이를 돌아보고 환희로운 감정을 느꼈다.

처녀의 두볼에 발강게 떠오른 홍조와 눈가에 비친 맑은 이슬... 그것은 처녀의 가슴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열정의 빛이였다.

(봄을 당겨오는 젊은이들... 모든 사람들이 이 들처럼 앞으로 달음쳐나갔으면!)

대준은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을 열어 맑고 신선한 대기를 마음껏 들이키려고 심호흡을 하였다.

앞에는 눈석이가 시작되고 부풀어오른 땅에 새싹들이 다투어 피어나는 고진강의 봄이 무르녹고있었다.

진 정

전찬기

푸르른 논벌
푸름히 밝아오는 새벽에
일찌기도 들에 나섰구나
논물관리원아바이

새벽의 벌바람을 맞아야
하루일의 성수가 난다고
언제나 두렁길에 첫자욱 찍으며
논물에 손을 잠가보는 그 마음
실한 벼포기들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는듯

작년에도 이맘때
평양에서 돌아온 당비서를 만나
서해지구 한 농장을 찾으신 수령님께서
친히 논물에 손을 잠가보신 이야기에
말없이 고개만 숙이더니

그 누가 알았던가
그 밤
싸리끌어구에서 흘러내리는 물길따라
온 분조의 몇십리 물길
하나하나 돌아보며
들판에서 새벽을 맞은 아바이

피약벌 내려쬘이는 한낮이면
더울세라 새물을 대어주고
저녁이면 차질새라 물길을 막아주고
하루해 기울어 집으로 갈 때에도
온 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가고

모내는철 즐거운 실참이면
우리 떠들썩 보퓏에 올라설 때도
물길과 함께 이랑이랑을 살피며
결주를 찾아
마음의 빈구석을 메워주지 않았던가

남모르게 하는 일 너무도 많아
분조장도 작업반장도
평가해주지 못한 로력수첩
근면한 그 마음을 어찌 다 담으랴

잊지 못할 감격의 그 봄날
분여받은 밭머리에서
장군님의 은혜에 목메이더니
이듬해 봄엔 당원증을 가슴에 품고
첫새벽 들판에 충성의 씨앗을 묻던 아바이

그 어느 마을
어느 농장길을 지금도 걸으실 수령님을 우리르며
하는 일보다
받아안은 은혜에 다 보답하지 못한
안타까운 그 진정을 벌판에 두고 사는 사람

그 진정을 푸른 들에 쏟아부으며
물길따라 논물따라 그는 걷는다
아버이수령님 친히 잠그어보신
그 논벌에 서있는 그 마음
아, 당 6 차대회를 맞는 뜻깊은 이해에
수령님께 기쁨드릴 진정을 새겨간다

그들은 세 병사

리광제

그들은 병사
꽃나이 셋이었다
원쑤의 총포탄 우박치는
화선 전호가에

흘러가던 흰구름조차
포연에 끄스는 고지
또다시 타다남은 참나무우에
기발을 꽂았다

결전을 앞두고
위대한 수령님께
피로써 충성의 맹세 올린
세 심장
함께 고동치며

그들은 셋
달아오른 총가목 역세게 들어쥐고
엄숙히
우러러 바라보는
기발!

거기엔 있었다
구수한 흙냄새 풍겨오는
고향의 들판
저녁 들길의 소방울소리

동구길 넘어 전선으로 떠날 때
고개마루에 서계시던 어머니 모습
울안의 돌배나무
정든 모교의 밝은 창문들...

오 거기엔 있었다
조국앞에 선서한 전우들의 그 눈동자
마지막으로 기발을 넘겨주며
수류탄을 안고 떠난 분대장의 부탁

그들은 셋이었다
승엄히 펄럭이는 기
만일 그 기발을 잃으면
그 모든것 순간에 없어지리

그렇다, 그 기발은 내 조국
그것은 자유이며 행복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영원무궁할 광명한 미래...

병사
그들 마지막으로 기여오르는
원쑤를 맞받아 나갔다
달려드는 미제 강도들을 쓸어버리며

그때 조국은
세 심장의 노래를 간직하고있었다
영원히 이 기발을 지키리라!
기발을 지키리라

그때 꽃나이 세 병사
고지를 지켜낸 감격어린 눈빛들에
펄럭이는 람홍색기발
푸르른 조국의 하늘이 비껴흘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튼튼히 지키며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에서-

희곡문학의 형상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구성과 대사형상을 두고-

한류숙

대중교양의 강력한 수단인 문학예술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려면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문학형태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당은 군중을 교양개조하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고있습니다. 군중을 교양개조하는데는 학교교육만으로도 안되며 선전선동만으로도 안됩니다.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들인 소설, 시, 연극, 영화, 음악 등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을 다 동원하여야만 군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모든 문학예술형태들은 다 독자적인 특성을 가지고있으며 서로 보충하고 부단히 발전하면서 대중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한다.

오늘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은 주체적문제사상의 빛발아래 모든 형태에 걸쳐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지난시기 넓고 진부한 틀속에 얽매어 침체상태에 있던 연극예술도 당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창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을 다시 무대에 올리게 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주체시대 혁명연극의 시원을 열어놓은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탄생은 그의 모체를 이루는 희곡문학의 혁신적성과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희곡은 연극예술창조의 첫공정이며 그의 사상예술적기초이다. 깊이있고 내용이 풍부한 희곡문학을 선행시키는것은 연극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그러면 희곡문학의 형상성을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희곡은 본질에 있어서 구성의 문학이며 대사의 문학이다.

희곡이 구성과 대사의 문학으로 되는것은 극의 형식으로 생활을 반영하는 특성을 띠고있기때문이다.

희곡은 작가의 설명과 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생활을 직접 반영한다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희곡의 기본 표현수단은 말과 행동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희곡은 영화문학과 형태상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영화문학은 보다 행동의 문학이라면 희곡은 상대적으로 대사의 문학이다.

희곡과 영화문학의 형태상 차이는 그가 목적하고있는 영화형상과 무대형상의 본질적차이와 관련된다.

영화는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변경시킬수 있고 대상에 부단히 접근할수 있기에 말보다도 섬세한 행동과 특징적인 생활세부를 통하여 등장인물들의 미묘한 사상감정과 사건의 전후관계를 얼마든지 밝혀낼수 있으나 무대는 영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공간이 제한되어있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부적인 미묘한 행동을 보여줄수 없기때문에 오직 대사를 통하여 사건의 전후관계를 해명하고 등장인물들의 사상감정을 밝히며 무대행동을 통일짓는다. 그러므로 연극에서는 영화에 비하여 행동보다 대사를 기본표현수단으로 리용한다.

다음으로 희곡이 구성과 대사의 문학으로 되는것은 강한 극성을 보여주는것을 형상적요구로 제기하고있기때문이다.

극성은 등장인물들의 극적관계가 예리화되었을 때 생기는 미적정서로서 극의 성질을 규정하는 기본징표로 된다.

극성을 떠난 극이란 있을수 없다.

극의 형식으로 생활을 보여주어야 할 형태상특성을 띠고있는 희곡에서 이러한 극성은 구성과 대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구성을 치밀하게 세워야만 이야기를 하나의 재미있고 뜻이 깊은 극으로 엮어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자기가 말하려는 문제를 깊이있게 풀어 의의있는 사상을 강조할수 있다.

이와 같이 희곡은 구성의 문학이며 대사의 문

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희곡의 형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구성을 바로세워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구성은 극에 설정되는 인물과 갈등, 사건과 같은 형상의 모든 요소들을 종자를 뚜렷하게 살리는데로 조화롭게 묶어세우는 기본형식이다.

구성을 치밀하게 세우려면 우선 구성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빈틈없이 맞물리게 하여야 하며 이 모든것이 종자를 밝히는데 복종되게 하여야 한다.

희곡의 구성을 이루는 요소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인물선, 갈등선, 사건선이다.

인물선에서는 모든 인물들이 주인공에게 강한 사상정치적영향을 미칠수 있게 집중되어야 하며 갈등선에서는 기본갈등선을 예리화시키는 방향에서 부차적갈등들이 매여있어야 하며 사건선에서는 주선이 심화발전되면서 긴장성을 띠도록 부선들을 맞물려놓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이야기의 대가 서고 극이 빈틈없이 짜여서 일관성을 띌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문제를 크게 걸지 말고 작게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다가 나중에는 크게 번져지도록 이야기를 꾸며놓아야 한다.

희곡의 구성은 원래 전반부에서는 될수록 이야기를 많이 심어놓고 숨겨오다가 후반부에 와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터치면서 크게 끝맺는것을 원칙적요구로 제기한다. 그럴 때만이 관중들에게 부단히 극적기대와 공감을 던져주면서 시종 극을 흥미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다.

볼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에서는 처음에 황지주와 구장이 농민들의 피땀이 스며있는 성황당부대밭을 서로 빼앗으려 하며 면장자리를 얻기 위해 소작인의 외동딸인 복순이를 군수의 첩으로 섬겨바치려고 하는데서 사건이 발생된다. 이 사건에는 주인공 돌쇠를 비롯하여 서로 이해관계를 갖고있는 선돌마을사람들과 중, 무당, 전도부인 등 계급적원썹들이 말려들어가며 이러한 인물관계에 기초하여 황지주와 구장사이에 무당을 쟁취하기 위한 암투, 중과 무당, 전도부인사이의 말싸움, 박씨와 신수점배와 속적삼사건 등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뒤따르면서 박씨모녀의 곡절 많은 운명선이 절정에 이르게 되고 모순으로 엉켜진 계급적원썹들의 알룩관계가 격화되어 성황당에서의 해피망측한 추태가 벌어지게 된다.

연극의 모든 사건은 복순이 어머니 박씨가 미신을 믿는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 따라서 연극에서 기본사건의 줄기를 타고 흐르는 이야

기는 부대밭을 둘러싼 이야기와 복순이를 군수의 첩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야기로 되어있지만 그것은 박씨가 미신에 기만된데 원인을 두고있으므로 결국 연극의 구성은 사람이 제구실을 하려면 미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제힘을 믿어야 한다는 사상을 밝히는데로 지향된다.

구성을 치밀하게 세우려면 또한 집체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구성의 립체성은 단일한 시공간속에서 깊이있는 내용을 보여주어야 하는 희곡의 본성적요구이다.

구성이 립체적으로 되어야만 형상의 철학적심오성과 진실성을 보장할수 있다.

지난시기 희곡의 결함은 많은 경우 약속과 절차에 의한 극작법에 의거한데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4 막극형식과 정적인 평면무대를 예상한 극을 만든데서 찾아볼수 있다. 때문에 지난시기의 희곡에서는 생활을 될수록 집안이나 집뜨락에 몰아넣음으로써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구속하였고 뒤생활을 전혀 보여줄수 없었다.

《성황당》식 연극의 특성의 하나는 다장면구성형식과 흐름식립체무대를 개척한것이다.

혁명연극 《성황당》에서는 무대를 먼저 설정하고 극인물들의 생활을 보여준것이 아니라 극인물들의 행동과 생활의 흐름을 따라 무대를 자유자재로 바꾸고있다. 때문에 관중들은 영화에서처럼 무대를 보는것이 아니라 실생활을 립체적으로 보게 되며 구경하는것이 아니라 생활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누렇게 익은 강냉이밭과 단풍이 물든 아름다운 선돌마을 풍경이 펼쳐지는 1장과 수양버들 휘늘어진 물방아간의 달밤장면을 보여주는 7 장은 생활의 화폭을 그대로 떠옮겨놓은듯한감을 자아내게 한다.

극구성에서의 립체성은 이와 같이 생활의 모습을 여러모로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형상을 고도로 집중화, 집약화하여 그려낼것을 요구한다.

희곡에서는 생활을 여러모로 다양하게 보여줄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시공간을 무한정 연장시킬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생활을 평면적으로 라렬하면서 극을 무의미하게 끌어가는 결과를 빚어 내게 된다. 희곡의 특성은 될수록 단일한 시공간속에서 작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깊이있게 보여주어 심오한 사상을 밝혀낼것을 요구한다. 형상의 이러한 심오성은 극의 집중화, 집약화를 통해서만 보장된다.

극의 집중화, 집약화를 실현하려면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맞물리게 사건을 잘 짜야 하며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드러낼수 있는 생활국면을 잘 조성해야 한다.

혁명연극 《성황당》에서는 1 장의 부대발문제와 복순이를 군수네 집으로 보내는 사건을 둘러싸고 인간관계를 착잡하게 극적으로 맞물리고있다.

또한 연극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게 밝히는것과 동시에 그 결과가 뒤따르는 다음 사건을 낳는 직접적인 단서로 되게 극을 꾸미고있다.

3 장에서 황지주가 무당을 가로채는 사건은 4 장에서 무당, 중, 전도부인이 한데 모여들어 말싸움을 벌리게 만들며 6 장에서 박씨가 점을 치는 사건은 7 장에서 복순에게 속적삼감을 넘겨주게 하여 종교와 미신에 속히워 모진 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들 모녀의 내면심리를 집중적으로 그려낼수 있게 한다.

극을 펼수록 집약화하면서도 형상의 철학적심오성을 보여주려면 다양한 형상수법을 특색있게 활용하여야 한다.

혁명연극 《성황당》에서는 대조, 과장, 반복, 역전, 착각 등 희극적수법과 묘술을 적용하여 극을 복잡하게 전개시키지 않으면서도 깊이있는 형상을 창조하였다.

황지주와 구장, 황지주의 처와 구장치의 성격과 행동에서의 대조, 주인공 둘최가 황지주앞에서는 그를 헐뜯는 구장의 흉내를, 반대로 구장앞에서는 그를 헐뜯는 황지주의 흉내를 내는 반복, 성황당에서 추태를 부리다가 서로 상대방을 헐갈리어 황지주가 구장치를, 반대로 구장이 황지주치를 부둥켜안는 착각 등 희극적수법들은 형상의 심오성과 집약화를 보장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

희곡의 구성은 인물관계를 맞물리고 사건의 전후관계를 밝히며 이야기를 조리있고 간명하게 엮어나가기 위한데 목적을 두면서도 어디까지나 감정조직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구성에서 사건조직은 극인물들의 감정, 행동이 생겨날수 있는 생활적바탕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다. 작가의 서술적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희곡의 사상은 주로 극인물들의 감정, 활동을 통하여 밝혀진다. 따라서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구성을 세워야만 극적형상의 특성을 살릴수 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구성에서 감정조직은 인물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활을 섬세하게 펼쳐나가며 그러한 생활이 덧쌓

여지는 가운데 인물들의 감정이 축적되고 폭발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바탕은 생활이 그만큼 감정조직은 생활의 논리에 따라야 진실하고 감명깊게 형상될수 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에서 복순이 어머니가 점을 치는것은 지난시기 일제와 계급적원썹들이 강요한 미신에 의하여 기구하게 살아온 자신의 운명이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가봐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가 성황당을 찾아가며 지주처년의 꾀임에 넘어가 큰무당앞에서 신수점을 치는것은 생활의 논리에 맞는 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러나 점괘가 당장 잔치를 앞둔 딸과 헤어질것을 강요하므로 슬픔과 고통, 저주와 한탄으로 일관된 감정이 승화되면서 7 장의 눈물겨운 속적삼이야기가 뒤따른다.

연극의 감정조직은 이와 같이 생활에 기초하고있기에 그토록 진실하고 감명깊은것이다.

희곡의 형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대사를 잘 써야 한다.

대사는 희곡의 기본형상수단이다. 희곡에서는 대사를 통하여 주제사상을 밝히고 극인물들의 성격을 창조하며 사건을 전개한다. 희곡에서 벌어지는 생활과 등장인물들의 모든 행동은 대사를 통하여 련결되고 통일된다.

대사의 형상성을 높이면먼 우선 명대사를 창조하여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뜻이 깊고 알기 쉬운 대사가 명대사이다.

뜻이 깊다는것은 대사의 철학적무게, 사회정치적문제성과 생활적내용의 심오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정치적인 술어를 직선적으로 표현하라는것은 아니다.

대사의 사상정치성은 형상적인 말로 집약되어요긴한 대목에서 물려야만 관중들에게 힘있고 예리하게 안겨질수 있고 강한 인상을 줄수 있다.

대사는 의미가 깊으면서도 생활적으로 진실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

대사의 진실성은 희곡의 생명이다. 대사가 진실해야 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킬수 있다.

또한 통속적이며 설득력있는 대사를 쓰는것은 관중이 보고 듣는것으로 내용을 인식시키는 연극예술의 본성적요구이다.

대사가 알기 쉽게 되어야 한다고 하여 상식적이며 무의미한 말을 길게 늘어놓아서는 안된다. 희곡에서 상식적이며 무의미한 말은 극의 긴장을 늦추고 내용을 빈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대사의 심오성, 진실성, 통속성은 명대

사의 기본특징을 이룬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대사창조에서도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연극의 대사는 모두가 주옥같이 다듬어진 구수하고 감칠맛이 있는 명대사이다.

《우리가 잘살려면말이에요. 없는 귀신을 믿을 게 아니라 제힘을 믿어야 해요.》

《…모두다 잠에서 깨여납시다. 이제 여기두 또 야학을 세웁시다. 아는것이 힘이에요. 모든건 우리들이 어떻게 제구실을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어요. 그러면 우리들두 잘살 때가 와요.》

연극의 종장에서 주인공 돌쇠가 마을사람들앞에서 하는 이 대사는 얼마나 뜻이 깊으면서도 진실하고 알기 쉬운가. 이 대사는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생활의 진리를 조성된 정황에 맞게 조금도 꾸밈이 없이 하는 말하기에 관중들의 심금을 울리는것이다.

대사의 형상성을 높이려면 인민적인 기지가 엿보이는 생활적인 구두어들과 민족적색채가 풍기는 여러가지 비유의 수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특히 장구한 역사적시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인민들의 경험과 교훈, 지향을 간결하고도 형상적인 언어형식으로 표현한 속담을 많이 리용하는 것은 대사의 형상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수법의 도입은 역설적인 빈말을 없애고 대사를 극히 함축시키면서도 그의 사상 예술적품위를 한층 높일수 있게 한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풍자의 특성에 맞게 대사 창조에서 여러가지 형상적인 속담과 비유의 수법을 많이 쓰고있다.

《종교와 미신은 아편과 같다》, 《십년 묵은 학질 때듯》, 《색시가 고우면 처가집말뚝을 보구 두 절을 한다》, 《오라는 딸은 안오구 외통눈이 사위만 온다》, 《중의 머리에 상투》, 《개와 고양이 사이》, 《눈감구 아옹하는 놀음》 등 격언과 리언들을 혹은 대구형식으로 혹은 역설과 대조형식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사건의 리면을 발가놓고 성격의 본질을 예리하게 밝혀냄으로써 대사형상의 철학적심오성을 보장하고있다.

연극에서는 또한 풍자극의 특성에 맞게 뜻이 깊은 속대사를 많이 쓰고있는것을 비롯하여 특색있는 다양한 대사형식과 수법을 창조하였다.

연극에서 특색있고 다양한 대사형식과 수법을 보여준 전형적인 실례는 4 장에서 중, 무당, 전도부인이 종교의 허위성과 기만성, 착취자적본성과

음흉성을 자체폭로하는 말싸움이다.

중: …우리 불교는 예수교같이 그렇게 간사하고 요사스럽지 않습니다.

전도부인: 우리 예수교는 불교같이 그렇게 음흉하구 미개하지 않습니다.

………

큰무당: 우리는 조그만 점상이나 농구 점이나 치지만 너희들은 사람들을 얼마나 속였으면 그 많은 돈들을 굶어모아서 가는곳마다 그렇게 큰 절간이요 레배당이요 하는걸 짓구 거드럭거리니, 그 래두 더 큰 미신이 아니야?

보는바의 같이 이 말싸움은 자체폭로의 수법을 쓰고있으나 조성된 정황과 성격의 론리에 맞으므로 진실하고 설득력이 있다. 이 말싸움은 종교와 미신의 허위성과 기만성만이 아니라 그 착취자적수법의 교활성과 철면피성, 극도의 모순으로 가득찬 종교사회의 부패성까지도 날날이 발가놓고있다. 여기에 이 말싸움을 통하여 보여주는 내용의 철학적심오성이 있는것이다.

희곡창작에서 대사의 형상성을 높인다고 하여 순수 대사의 효과성만을 노리면서 연극화하거나 무대적인 대사를 쓰는 경향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지난시기 희곡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는바와 같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듯한 재담조의 대사형식은 즉흥적인 웃음만을 강요하면서 관중을 회롱하던 신파연극의 잔재이다.

희곡의 형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창작실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것이다.

오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우리 시대 현실의 풍부한 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기 위한 특색있는 형상창조방법을 탐구하는것은 희곡문학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가, 예술인들은 주체시대 혁명연극의 본보기인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부단히 따라배워 희곡문학의 사상예술성을 적극 높임으로써 우리 주체적문학 예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10월에 사는 마음

-평양종합방직공장을 찾아서-

김원복

력사적인 우리 당 제 6 차대회를 앞두고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을 마련하는 충성의 《100 일전투》를 힘있게 벌려가는 나날도 이제는 절반의 날자가 지났다.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을 놓고보면 100 일이란 무수한 시간의 분과 초와 같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충성의 《100 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이 나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차고 뜻깊은 순간순간의 시각이다.

사람들도, 경제와 문화의 그 모든 면에서도 실로 놀라운 기적과 전변이 일어나고있는 100 일전투!

당의 부름따라 올해계획을 한달 앞당겨 끝내기 위한 충성의 《100 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져 영웅적 조선인민의 기상을 영예롭게 떨치는 가운데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생활은 또 얼마나 몰라보게 되였는가...

꽃밭처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옷차림을 한 사람들속에 끼여 평양종합방직공장을 찾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더듬노라니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흐트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방직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질 좋은 천을 더 많이 짜내는것은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더 잘 풀기 위한 중요한 과업입니다.》

평양방직공장은 말그대로 우리 나라의 자립적인 방직공업이 발전해온 훌륭한 본보기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공장을 찾은 구내길은 방금 교대를 바꾸는 시간이어서 방직공들로 붐비였다.

햇빛은 자글자글 뚫었다. 움직이지 않아도 몸에서는 땀이 줄줄이 흘러내리게 무더운 날이었다. 마침 공장정문에 들어서니 수림지대에 들어선것 같았다. 포장도로는 가로수에 꼭 덮이여 길은 그들이 저있었다. 질퍽하게 내뿜었던 땀이 어느새 말끔히 가셔졌다.

우리는 공장에 왔다기보다 어느 공원이냐 휴양소에 휴식의 한때를 즐기러 온것같은 생각이 들었다. 여기도 저기도 모두 울창한 나무그늘이고 아담한 건물둘레에는 나비들이 춤추는 꽃밭이였다.

공장길을 걸느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라고 쓴 대형 횡단구호판이 첫눈에 띄운다. 그뒤로 《모두다 〈100 일전투〉 에로!》, 《모두다 〈100 일 전투〉 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총진군, 총돌격 앞으로!》라는 구

호들이 출근하는 전투원들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듯싶었다. 길양쪽으로는 전교대에서 일어난 혁신적성과들을 알리는 속보판이 자주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곤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추대탑을 돌아 이 공장에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길이 전하기 위해 정중히 세운 자연화강석의 유래비앞에 섰다.

지난날 우리 어머니들은 긴긴밤을 지새우며 물레를 돌리고 돌리여도 자식들에게 옷 한벌 변변히 입힐수 없었다.

사람들이여, 언제부터 이 땅에 가난과 굶주림이 물려가고 입을 걱정 먹을 걱정 모르는 새세상이 펼쳐졌던가. 일찌기 항일전의 그날 가슴깊이 간직 해오시던 어머님께서 주신 돈 20 원을 혈뺀 마안산아동들을 위해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

아, 여기서 쉬임없이 필필이 쏟아져내리는 색깔 곱고 꽃무늬 아름다운 갖가지 옷감을 볼 때 사람들이여,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그 오리 오리에 깃들어있음을 잊지 말라...

우리를 안내하는 동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의 옷감을 심려하시여 한해에만도 여러차례씩 공장을 찾아주시고 현지지도를 주셨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 회수는 수십차례나 된다고 말하였다.

유래비앞을 떠나는 우리는 해방후 나라의 주인된 우리 인민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제일 잘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여기 대동강기슭에 우리 나라의 첫 방직공장을 세워주시고 오늘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의 력사적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음을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장에 오시여 걸으신 로정을 따라 걸었다.

이 공장은 크게 견방직과 평방직으로 나뉘여있다.

우리는 원료직장으로부터 권사, 정방 직장을 돌아보았다. 최신설비로 꾸려진 견직직장 정방공들이 정방차를 타고 오고가는 모습은 마치 날아다니는것 같았고 그들의 손놀림은 무용수들의 동작같았다.

방직은 예술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되새기는 우리는 그들모두가 예술인으로 보였

다.

어데를 가나 하루종일이라도 자리를 뜨고싶지 않을것 같았다.

그 언제나 당의 부름이라든 물속이라든 불속이라도 뛰어들어 영웅조선 로동제급답게 힘차게 전진하는 방직공들!

《100 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직장과 작업반들에서는 당대회에 드릴 선물제품생산을 위한 전투적분위기로 차고넘쳤다.

우리는 직포직장으로 옮겨갔다.

고르로운 기계의 동음은 우리의 마음을 재촉했다. 중앙복도를 지나 현장에 들어선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의 눈앞에는 끝간데 없이 질서정연한 대렬처럼 가로세로 줄맞추어 뻗어간 직기바다가 펼쳐졌다.

줄지어 펼쳐진 직기들은 마치 파도의 마루갈고 직기사이를 헤엄치듯 날아도는 직포공들은 갈매기처럼 보였다.

부지런히 걷는것도 시원치 않아 모두가 뛰어나다. 날씬한 몸매, 문양과 색깔고운 원피스에 가쁜한 앞치마, 빨간 머리수건을 쓴 직포공들은 또한 꽃나비갈게도 보였다. 모든 기계들이 만부하를 걸었다.

《보시는바와 같이 〈100 일전투〉 참가자들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지난 〈70 일전투〉 때에 발휘했던 그 투지 그 일본새이지요.》

이곳의 한 일군은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우리를 전투장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전투장을 돌아보았다.

모든 직포공들이 뛰고 달린다. 실이 끊어지면 기계는 자동적으로 멎어선다. 직포공들은 미처 알아볼 사이 없이 끊어진 실을 잇는다. 기계들은 경쾌하게 돌아간다. 직포공들은 회전수를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애쓴다.

《저 동무가 로력영웅 전옥화동무입니다. 전옥화동무는 제 2 차 7 개년계획과제 9 년분을 이미 끝냈습니다. 충성의 〈100 일전투〉 기간에는 결의 목표 2 배를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직기들사이를 누벼나가는 전옥화로력영웅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감을 더 많이 차례지게 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우리의 마음은 당대회가 열리게 될 10 월에 살고있습니다.》

《벌써 10 월의 그날에 산단말이지요.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

소박한 그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충성

의 선물을 마련하고자 아글타글 일하는 우리 직포공들 김춘옥, 박춘홍동무들은 벌써 2 차 7 개년계획의 11 년, 9 년분 파제를 끝내고 《100 일전투》에 진입하였다.

공장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는 어린 직포공들인 리응숙, 서정실동무들도 년간계획을 지난 4 월에 끝내고 《100 일전투》에 들어섰다.

우리는 방금 교대를 바꾼 김춘옥동무의 결의도 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인데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해내겠습니다.》

그는 신심도 드높이 나는듯이 기계사이를 살피며 나갔다. 그는 단위시간안에 기대당 생산지표를 보장하기 위해 실새없이 달렸다.

이에 맞추어 정비와 수리, 보조작업도 불이 번쩍나게 따라세우고있었다.

박춘홍직포공은 어린애가 넷이나 있는 애기어머니지만 벌써 마음은 10 월의 대축전마당에 닿았다고 하면서 지표 전망을 1 등급으로 짜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는것이다.

경쾌하게 동음을 울리며 돌아가는 직기들은 마치 현악연주가들의 움직임처럼 보였다.

《보시다싶이 우리 직포공들의 마음은 벌써 10 월에 살고있지요.》

우리들은 한 일군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포공들의 날랜 솜씨와 동작들을 황홀하게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지난날 우리 어머니들은 베틀에 앉아 긴긴밤을 지새우며 무명을 짚지만 꿰진 옷을 기울 한조각의 천이 없어 벌거벗고 살지 않았는가.

베적삼 하나를 삼부자가 번갈아입고 바깥출입했다는 말도, 누데기이불 하나에 온 집안식구가 발만 들이밀고 잠을 자며 살았다는 이야기도, 오래전인 아닌 바로 해방전에 있었던 우리 인민들의 살림살이 형편이었다.

그러니 굶으며 모은 돈으로 베적삼이나 무명몽당치마 하나를 입고 시집왔던 어머니들이 그것을 농작물에 넣어두고 아끼고아끼던 그 마음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것이다.

언제한번 비단옷을 입고 살아보았으면 하는 우리 인민들의 평생소원을 풀어주시려고 여기 대동강기슭에 첫 방직공장을 세워주시고 무려 수십차례 현지지도하시며 기율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새기며 우리는 날염종합직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직장에 들어서자 우리의 첫눈을 끈것은 혁신적 성과들을 소개하는 속보와 혁신자들의 림름한 사진들이었다.

임효순, 차형록, 김창화... 그리고 2 차 7 개년계획의 5 년분과제를 완수한 한춘희반장 등 을긋볼긋 속보와 함께 사진들이 여기저기 나붙어있었다.

이것들만 보아도 우리는 날염공들의 기세 또한 짐작할수 있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직장의 한 일군은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날염직장이 걸어온 역사를 개괄해주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차례지는 옷감의 색깔 하나하나에도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수놓아져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산업텔레비존이 설치되어있는 종합지령실로 안내하였다.

텔레비에는 지금 선타액염색기를 보이고있었다.

지령원은 수화기를 들고 그곳 작업반장에게 지시를 주고있었다. 이 종합지령대에서는 날염종합직장의 모든 공정들을 볼수 있고 지령을 줄수 있었다.

종합지령대에서 물러난 우리는 현장에 들어갔다. 공장안은 크고작은 기계들로 꽉 찼다. 끝간데 없는 고운 천필이 필필이 휘늘어져내리는가 하면 포장되어 차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지금 상태로 나간다면 〈100 일전투〉 과제를 25 일간 앞당길수 있습니다. 매개 작업반, 직장들에서 하루 평균 200%이상씩 해내고있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일군은 어떻게 말하면서 《100 일전투》 기간 문제로 뻤던 열고정기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를 탐구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설비개조와 리용률을 높이는데서 혁신적성과를 일으켰다고 했다.

그들이 창안제작한 설비들을 돌아보던 우리가 발걸음을 멈춘것은 기계날염기앞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지도하실 때 이 날염기를 보시고 이 기계를 만가동하여 고운 천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문양이 꽃처럼 아름답다고 하시였다. 이곳 일군들은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날염기를 알뜰히 보수정비하면서 만가동을 보장하여 질좋은 원피스, 브라우스, 주름치마 등 우리 녀성들의 화려한 옷감을 많이 생산하고있었다.

꽃문양도 여러가지였다.

《우리가 짜낸 옷감을 받아든 사람들이 기뻐할 때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감을 마련해주시려고 두메산골의 상점을 찾으시고 인민들이 어떤 천을 요구하며 어떤 색깔과 무늬를 좋아하는가를 헤아리셨습니다.》

감동 없이는 들을수 없는 말이었다. 나라의 옷감을 책임진 날염공들은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탐구를 거듭하여 품종과 색깔을 훨씬 늘려나갔다.

그전에 비해 지금은 염색직물만 해도 《100 일전

투》 기간에 25 종을 더 늘였고 날염직물은 지금의 거의 2 배나 늘였다고 한다.

면염색 조희원작업반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가 생산한 천으로 만든 옷을 하나하나 보살펴주실 때마다 일을 다하지 못한 죄송함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당대회에 충성의 선물을 드리기 위해 하루 170%씩 생산계획을 넘쳐한다고 하였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날염반장 리영곤, 날염공 신영옥동무들도 《100 일전투》 기간 전투과제를 120%로 초과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당 제 6 차대회가 열리게 되는 그 날에 사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꾸밈없는 말이였다. 어쩌면 날염공들도 직포공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가!

10 월의 그날에 사는 마음! 얼마나 가슴을 울려주는 말인가. 그들이 짜내는 천, 날염된 천들이 필필이 늘어져 당대회에 참가하는 대표자들의 마음이 되어 대회장으로 잇닿은 아름다운 심정을 우리도 가슴 가득히 느끼며 날염직장의 마지막 공정인 다음 방으로 옮겨갔다.

우리는 무지개다리인양 필필이 늘어져 흘러내리는 꽃테프속에 서있었다.

감색, 연록색, 자주색, 갈색 그리고 헤일수 없는 연하고도 화려한 색깔의 천폭포.

이불감, 꽃비단, 장식천들이 쉬임없이 흘러내려 종열기로부터 특장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흘러내렸다.

필필이 흘러내리는 꽃무늬 아름답고 색깔고운 갖가지 옷감들에는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살고싶었던 우리 인민들의 평생소원을 풀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담겨있음을 다시한번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우리는 공장을 나서면서 방금 만났던 방직공들의 얼굴을 더듬어보았다.

그들의 마음은 벌써 당대회가 열리게 될 10 월에 살고있다. 세월을 당겨가는 방직공들의 충성의 마음은 우리모두의 옷차림에 비껴있다. 화원의 꽃송이인듯 사람들은 모두가 꽃비단옷을 입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나라의 옷감 생산을 맡은 방직공들은 말한다.

색깔곱고 꽃무늬 아름다운 갖가지 옷감이 차례질 때, 사람들이여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이 그 비단천의 오리오리에 깃들어있음을 잊지 말라고...

인민봉사부문일군들이여!

인민에 대한 봉사성을 높이고 상품공급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사회급양과 편의봉사 사업을 더욱 개선하라!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에서-

단편소설

푸른 불빛

박상준

산간도시의 자그마한 역에 잠깐 멎었던 북행열차는 뿡-하는 기적소리의 여운을 인사처럼 남기고 떠나가버리었다.

개찰구앞에서 복작복작하던 여라문명의 손님들도 뿡뿡이 흩어져가고, 이제는 맞이할 사람도 보낼 사람도 더는 없는듯 넓지 않은 역사앞마당은 텅 비어있었다.

방금 기차에서 내린 형우는 마당가의 화강석의 자우에 트렁크를 올려놓은채 홀로 서있었다.

언제부터 내렸는지 역사앞마당이며, 역건물의 넓은 채양이며 가로수아지들에는 눈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초겨울의 저녁날씨는 쌀쌀하였다.

형우는 온몸으로 스며드는 찬기운을 느끼고 칠눈은 가을외투의 옷깃을 손으로 여미었다. 어딘 줄 알고 이따위걸 입고왔냐는듯 맵짠 눈바람이 회파람소리를 내며 그의 옷자락을 잡아흔들었다.

가로등 한쌍이 머리우에서 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있었다.

그는 제 모자를 벗겨보려고 지긋게도 성화를 부리는 찬바람에 너그럽게 몸을 맡긴채 서있었다.

백지우에 금방 찍어놓은 한쪽의 관화처럼 어둡속에서도 그 룬딱이 뚜렷한 도시의 전경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져있었다.

형우는 자기의 아버지처럼 가까운 최병식로인이 살고있는 이 도시에 올 때면 언제나 고향에 온듯한 푸근한 안정감을 느끼곤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는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5년세월 공을 들인 열공학에 대한 연구논문이 며칠전 연구소합평회에서 좋은 평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아귀를 채 짓지 않은 일이어서 아직 집에는 말을 안했지만 어디서 얻어듣고 알았는지 어머니와 안해의 얼굴도 한결 밝아진듯하였다.

어제저녁에 그의 안해는 책상우에 올려놓은 계산기를 집어들고 그에게 말하였다.

《이젠 이것도 깊숙이 전사해두자요.》

형우의 모든 정신을 빼앗는듯싶던 그 깜찍하게 생긴 물건을 안해가 얄밟게 생각한대도 무리는 아닐것이다.

형우는 어이없어 껄껄 웃었지만 안해를 말리지는 않았다.

연구사업을 위하여 미루어오던 여러가지 잡다한 문제들도 이제는 생각해볼 때가 된것 같았다.

로양권을 들고 두번이나 찾아왔다가 섭섭하게 되돌아간 담당의사에게도 안됐다는 사죄를 해야겠고 단지 시간이 없다는 리유로 번번이 해를 넘겨오던 집문제도 봄에 나가선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오늘아침 갑자기 출장지시를 가지고 그의 집을 찾아왔던 경리원처녀만 아니였던들, 형우는 오래간만에 한번 쉬기로 작정한 일요일의 하루를 가족들과 함께 보냈을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집을 떠나오게 되니 어머니와 안해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좀 섭섭한 일이였지만 그것이 형우의 밝은 마음에 그림자를 지워줄만치 큰일은 아니었다.

이 도시의 건설자들이 새로운 난방체계에 대한 창고고안에서 여러번 실패를 거듭하고있는데 그들에게 조언을 주고 오라는것이 출장지시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출장지가 어디라는걸 알고 오히려 일이 잘 되었다고 하면서 서둘러 길차비를 하여주었다.

《가서 최병식아주버니를 찾아보고 인사를 드려라. 론문이 성사됐다는 말을 들으면 무척 기뻐하실게다.》

형우는 어머니의 당부가 아니라도 최병식로인에 대하여 생각하고있었다.

이제는 나이도 꽤 많아서 모름지기 일손을 놓았을 최병식로인-그는 형우의 아버지 김장쇠의 오랜 친구였다.

해방되기 두해전, 왜놈군수공장의 보이라공으로 일하던 김장쇠가 증기배관의 폭파사고로 죽었을 때 형우는 아직 강보에 싸여있었다.

그가 자라면서도 아버지 없는 설움을 별로 느껴보지 못한것은 옆집에 사는 최병식이 그를 극

진히 위해주었기때문이었다. 최병식은 해방된 다음에도 보이라공으로 일하였는데 하루일을 끝내고 돌아오면 트랙에서 함께 놀고있는 제아들과 형우를 조금도 차별없이 애무도 해주었다.

초중을 졸업한 형우는 대학에 가기전 5 년동안을 최병식의 손밑에서 보이라공으로 함께 일하였다. 밥팩을 옆에 끼고 아침에도 함께 걸어가고 저녁에도 나란히 돌아와 한뜨락으로 들어서는 그들을 거리사람들은 남남처럼 생각하지 않았다.

형우는 남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속으로 최병식아바이를 생각하곤하였다.

재작년에 견학차로 평양에 올라왔다가 집에 들린 그를 만나보고는 그동안 만나보지 못하였다.

형우는 지금 집을 떠났던 아들이 큰일을 한가지 성공하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기분이였다. 겸손도 체면도 최로인앞에서는 필요없을것이다. 나를 키워주고 가르쳐준 보람을 흠뻑 느끼도록 해드려야 한다.

형우는 큰 자랑을 안고 최로인을 만나게 될 광경을 속으로 그려보았다.

이때 누군가가 옆으로 급히 다가와서 그의 팔을 덥석 잡으며 소리쳤다.

《왔구만! 자네가 정말 왔어!》

형우는 와썹 놀라며 옆을 돌아보았다.

그가 바로 최병식로인이라는걸 알아본 형우는 너무도 뜻밖이어서 말이 안나갔다. 이 도시에 오면 의례히 만나게 될 최로인이었지만 기별도 없이 떠난 자기를 역전에서 기다리고있을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였다.

《아저씨, 어떻게 알고 나오셨습니까?》

《허허 어쩐지 자네가 올것 같더라니까》

로인은 형우의 놀란 모습을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웃었다.

《음, 됐네, 잘 왔어!》

로인은 형우의 어깨우에 손을 올려놓은채 그에게 미더운 눈길을 보내었다.

형우는 점점 의아한 생각이 커질뿐이었다. 됐다는건 무슨 소리이고 잘 왔다는건 또 무슨 뜻인지 도무지 짐작이 안갔다.

《그래 어머니랑 아이들이랑 다 편안한가?》

《예, 아저씨는 그동안 앓지 않았습니까?》

《원 앓다니, 앓는것도 한가한 때지 불같은 세월에 어디 그럴 째미 있나?》

로인은 그런건 묻지도 말라는듯 이렇게 대꾸하였다.

예순일곱이라는 나이가 의심스러울만치 로인의 기상은 아직도 펄펄하였고 온몸에서는 건강과 정력이 넘쳐나고있었다.

이래전에 비하여 얼굴의 주름살은 좀 깊어진듯 하였지만 술진 눈섭아래서 시원스레 번쩍이는

눈은 아직도 정기를 잃지 않았다.

《추운데서 이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자구.》 로인은 형우의 잔등을 한손으로 짚고 거리쪽을 가리켜보였다.

그들은 콩크리트다리를 건너 새 거리가 한창 일떠서고있는 건설장쪽으로 잡아들었다. 로인의 말에 의하면 도시주변에 새로 건설되는 농기계공장이 거의 완공될 때가 돼오니까 살림집이며 학교, 탁아소, 유치원 건설장들에도 불이 붙었다고 하였다.

과연 온 도시에 정적이 깊어가는 이 밤에도 건설장만은 들끓고있었다.

용접불꽃이 쉬임없이 쏟아져내리는 고층건물의 까마득한 지붕우에선 연공들이 뒹라고 소리치며 트라스를 조립하고있었다. 사방에서 내비치는 투광등의 교차광선속에 건설장은 대낮처럼 밝았다. 혼합기 돌아가는 소리, 철판 두들겨대는 소리, 밤공기를 켜는듯 아저롭게 울리는 기계톱소리에 사위는 귀가 먹먹할 지경이다.

어둠도 정적도 이곳에서 깃들 자리를 찾지 못하자 밤은 검은 장막을 심술궂게 펄럭이며 눈보라를 몰아왔다.

《허 저 사람들이 기세를 올리는군.》

로인은 무춤 발걸음을 멈추고 건설장쪽을 바라보며 혼자말처럼 중얼거리었다.

《여긴 밤이 없군요.》

형우도 역시 혼자말을 하듯이 이렇게 대꾸하였다.

건설부재를 실은 대형자동차 한대가 그들의 곁을 천천히 지나간다.

《아바이, 창의고안이 잘돼갑니까?》

차창너머로 고개를 숙 내민 상고머리운전사가 로인에게 알은체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어- 자네들 수고하네.》

로인은 웃음을 짓고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형우는 자동차가 굽인돌이를 지나가자 로인을 돌아보며 물었다.

《아저씨 지금도 일을 합니까?》

《허허 일만 하겠나. 기술혁신돌격대 대원이라네.》

《예?》

형우는 놀란 눈으로 로인을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쳐다보나? 하기는 내가 년로보장 받을 나이야 지났지. 하지만 사람이란 술질 때까지 육신을 놀려야 하네. 자넨 아직도 누가 자길 찾았는지 모르겠나?》

《...?》

《바로 내가 불렀네. 창의고안을 하나 했는데 어데 마음대로 돼야지. 그래서 자넨 불려달라고

제기했지. 열공학연구소 김형우하면 이젠 만만치 않은 존재라면서?)》

《아, 그래서 역전에까지...》

형우는 그제야 모든것을 알겠다는듯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혼자서 허허 웃었다.

《그러고보면 오늘 제 단잠을 깨운 사람이 바로 아저씨였군요 》

《단잠을 깨우다니?》

《제가 오래동안 해오던 연구논문도 끝나고 해서 오늘은 하루 폭 쉬려고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출장을 가라는 연락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제 늦잠자는걸 깨운셈이 아닙니까?》

로인은 형우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였다.

《허허- 내가 그전부터 자네가 늦잠자는것하군 기어코 해보군했지. 늦잠을 자다가 깬다면 다행일세. 아무리 큰일을 해놓았다 해도 만족하고 마음을 놓으면 안되는 법이네. 거 듣고보니 신통하이-》

두사람은 마음이 유쾌해져서 마주보며 껄껄 웃었다.

조금 걸어가니까 길옆에 새로 세운 학교건물 한채가 나타났다. 마당에는 아직도 치우지 못한 흙무지가 여기저기 눈에 덮인채 솟아있고 쓰다남은 볼록하며 목재들이 그대로 있었다.

로인은 걸음을 멈추더니 한동안 그쪽을 바라보고 서있었다.

《바로 저 학교건물에다 난방시험을 하고있네. 한쪽에선 마감공사를 하고 한쪽에선 우리가 그 시험을 하는데 일이 좀 급하게 됐지. 저게 빨리 돼야 미장이요 도장이요 하는 공정들이 풀리겠는데 그게 그리 험치 않구먼. 내 좀 들렸다 가겠으니 자넨 먼저 집으로 들어가게.》

로인은 형우를 남겨놓고 아직 사람다닌 자리도 나지 않은 숲길을 밟으며 학교건물쪽으로 걸어들어갔다.

눈우에 큼직큼직한 발자국을 남기며 현관 출입문앞에까지 이른 로인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어서 집으로 가라고 형우에게 손질을 하는것이였다.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형우의 머리에는 이미 까마득한 옛일로 된 어린시절의 일들이 떠올랐다.

천라마대교조가 일어나던 전후시기에 보이라작업반장을 하던 최병식은 며칠씩 직장에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때도 무슨 창의교안을 한다고 했었다. 열세살에 나던 형우와 철영이(최병식의 아들)는 그의 저녁밥이나 아침밥을 들고 찾아가곤하였다. 그러

나 그들은 그가 일하는 보이라칸으로 들어가본적이 없었다. 최병식은 그들이 올 시간이 되면 미리 내다보고있다가 마중나오군했다.

형우와 철영이는 공장밖의 논판이나 동쪽길에서 밥그릇을 전해주고 돌아서야 했다. 어린것들은 아버지가 일하는곳을 한번 보고싶어하였다. 그러나 최병식은 어지러운 자기의 일터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최병식은 보이라실 문앞에까지 걸어가서 지금처럼 뒤를 돌아보며 어서 가라고 손질을 하군했다....

형우는 최병식로인의 지금 모습이 어쩐지 그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우가 어른이 되고 최병식이 저렇게 늙었으니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가.

창의교안증만 해도 뼈람에 그득하다는 로인, 공훈열관리공까지 된 저 로인이 아직도 할일을 다 못했단말인가?

형우는 갑자기 생각이 깊어지는걸 느꼈었다. 그는 트렁크를 눈우에 놓은채 로인의 발자국을 따라 학교건물로 들어갔다. 어느 한방에서 로인의 말소리가 들렸다. 그가 조심히 당긴 출입문소리를 방안사람들은 듣지 못한것 같았다.

로인은 저쪽으로 돌아서있었고 형우와 맞은편에 선 한 청년은 고개를 외로 틀고 서있었다. 자세히 보니 바닥에는 벽돌장들이 널려있었고 청년의 뒤에는 혼합물을 담은 함석통이 놓여있었다. 혼합물이 얼지 말라고 함석통옆에 피워놓은 모닥불에서 장작개비 두어가지가 연기를 피우고있었다. 한쪽 벽에 의지하여 벽돌로 쌓아올린 무슨 구조물이 있었다. 손에 아직도 벽돌망치를 쥐고 있는 청년은 아마 방금전까지 그걸 쌓던 모양이였다.

《3 센치나 넓어졌군, 이만큼이나.》

로인은 손가락 한마디만큼 드리나게 손으로 천 접이자를 청년의 눈앞에 흔들어보였다.

《참 아바이두, 3 센치쯤이야 집짓는데서도 허용오차가 아닙니까?》

청년은 너무한다는듯 외로 돌렸던 고개를 쳐들고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로인은 엄한 눈으로 그를 한동안 바라보고나서 일하였다.

《집은 좀 넓어져도 일없지만 불칸은 그렇게 망탕 쌓으면 안돼. 이게 말하자면 뭐가. 석탄을 되는 말박이나 같은거야. 이걸 앞으로 온 나라에 도입해야겠는데 3 센치씩 넓어지면 석탄이 얼마나 허비되겠는지 생각해봤어? 금은 천평에 달아. 석탄도 금처럼 귀한건데 그렇게 다뤄야지.》

형우는 그제서야 청년이 쌓은 구조물이 무엇이며 또 로인이 왜 성을 내고있는지 짐작이 갔다.

청년이 쌓아놓은것은 새로운 난방체계의 열발 성장치인 불칸인 모양이다.

그것을 혼자서 쌓던 청년이 일을 설쳤다면 꾸준을 듣는것이 마땅한 일이겠지만 지금 형우의 관심은 거기에 가있지 않았다.

로인이 생각해낸것은 아마 새형의 자체식난방 체계인 모양이었다. 보이라건물도 필요없고 품이 많이 드는 배관인입공사도 필요없는 이 방법이 좋은것은 사실이지만 저렇게 자그마한 불칸능력을 가지고 5층건물을 덥히겠는지 의문스러웠다.

형우는 로인과 청년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청년은 점점 어마어마하게 번져지는 로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만 더 엿섰다가는 필경 벼락이 떨어질것이라고 짐작했는지 히죽이 웃으며 타협조로 말하였다.

《아바인 그저... 언제봐야 그렇게 크게만 걸고 든다니까요. 온 나라에 이런게 몇개나 들겠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까짓거 이제라도 헐고 고쳐 쌓읍시다.》

청년은 보매 시원시원한 성미같았다.

《어서 헐게. 신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데로 하지 않아.》

《예? 신심이 없대구요. 야 이거 감투가 점점 커지는데-》

청년은 자기는 결코 신심을 잃지 않았다는듯 맨 옷돌기의 벽돌 한장을 망치로 툭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로인은 한장 또 한장 바닥으로 떨어져내리는 벽돌장들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는 형우가 가까이 다가서자 인기척을 느끼고 머리를 돌리었다.

《먼저 집으로 가라는데 왜 따라들어왔다.》

《천천히 들어가지요 뭐. 그런데 시험한다는것이 이겁니까?》

형우는 얼굴에 웃음을 띠우며 물었다.

《이거네. 불칸구조를 벌써 다섯번이나 고쳐왔는데도 잘 안되는군. 우선 석탄이 죄다 타야겠는데.》

로인은 진중한 낯빛을 짓고 형우에게 자기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얼마전 이곳 도시건설사업소에서는 새로 일떠서는 학교건물의 난방문제를 놓고 확대참모회의를 가졌었다. 그때 논의의 중심에 놓였던것은 보이라를 당장 받아오는 문제였는데 그것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밤깊도록 미결로 남아있었다.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되는 지루한 모임에서는 어지간히 피로를 느낀 사람들의 하품소리만 높아가고 있었다.

이때 최병식로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보이라를 받아올 필요가 없다는 엄청난 선언을 던져놓고나서 새형의 자체식난방형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난방이란게 원리는 그닥 복잡한게 아니어서 로인은 그 창안내용을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시킬수 있었다.

그런데 정작 도입해놓고보니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은 로인의 창안품에 대해 의문을 사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로인은 오래동안 생각던끝에 형우를 불렀다는것이였다.

형우는 최병식로인의 이런 말을 들으며 자신의 어깨우에 실리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었다.

그는 최로인이 한다는 자체식난방시설의 불칸 구조물을 다시금 눈여겨 살펴보았다. 그가 보기에 로인의 방법은 원리에 크게 어긋나는데는 없었다. 다만 로인이 지내 욕심을 부린 나머지 불통을 너무 작게 하지 않았는가싶은 의문이 들뿐이였다. 그러나 서둘러 결론할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는 입을 꼭 다물고있었다.

《그래 어떤가?》

그가 허리를 펴고 일어났을 때 로인이 기대어린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좀 생각해봐야겠습시다.》

신중해서 대답하는 형우의 태도에 로인은 저으기 믿음이 가는듯 의미깊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암 그래야지. 난 자네를 믿네.》

형우는 어깨가 갑자기 곱절이나 무거워짐을 느끼었다.

× ×

이틀후였다.

현장으로 나오던 길에서 형우는 사업소의 기술일군과 마주쳤다. 그 기술일군은 마침 형우를 찾아오려던참이라고 하면서 건설마감공정이 긴장한 지금 창안이 거둬 실패한다면 아무래도 도입문제를 고려해야 할것 같다고 하면서 필수불통규격을 늘구는 방향에서 로인을 설복시켜주었으면 하는 눈치를 보였다.

형우는 그 기술일군의 말을 심중히 들었으나 자기의 속심은 내비치지 않았다. 최로인이 하는 창의고안이 점점 어려운 고비에 들어서고있다는 것만은 더욱 명백히 느껴졌다.

얼마후 그와 헤어진 형우는 현장으로 발길을 옮기였다.

그가 현장에 이르니 첫날 만났던 청년이 휴게실 창관바닥에 벌렁 누워서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청년은 형우가 들어가자 벌떡 일어나며 먼구스러운듯 뒤머리를 쓰적이였다.

《최로인은 어디 갔소?》

《아바인 지금 보수주의자와 싸우러 갔습시다.》

청년의 대답이었다.

《그러면 동무도 함께 가야 할게 아니요?》

《초소도 지켜야지요. 난 지금 근무를 서고있지요.》

《누워서?》 형우는 청년과 이야기하기가 재미 나서 이렇게 물었다.

《참 선생님두. 그래서 기술혁신이 좋다는게 아닙니까. 여기 척 누워서도 저 신호등만 보고있으면 되거든요. 전등이 꺼지면 난방관에 물을 보충 해주지요. 아직 생각중이지만 전기종만 달아놓으면 자면서도 근무를 설수 있지요.》

청년은 제법 손세를 써가며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대로 천정에는 전등 하나가 매달려있었다.

《그런데 최로인은 정말 어디 갔소?》

《글쎄 미장반장이말입니다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아침에 내려와서 우리 신허보이라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머리를 기웃기웃하는게 아닙니까. 난 어찌는가 보자고 가만 있었지요. 내가 무서웠는지 그땐 아무 소리도 안하고 올라가더군요.》

그런데 올라가서는 매 칸에다 난로를 피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릴 mind가는 언제 미장을 해볼지 모르겠다는거해방. 그래서 내가 아바이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우리 아바이가 원칙에두 밝지만 또 얼마나 유식하다구요. 대학통신을 2년째나 다니는데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형우는 처음 듣는 소리여서 깜짝 놀라 물었다.

《정말 아니구요. 그런데 아바이가말입니다. 미장반장한테 한참이나 설복을 했지요. 력기선수를 바라, 제 무게의 세배나 들지 않는가. 석탄을 적게 때고 큰집을 덥히는게 뭐 신비할게 있는가? 그래도 미장반장은 믿어지지 않는지 <력기선수가 우리 미장을 해준다우?> 하면서 공정이 밀리는걸 책임지라고 올려대지 않겠어요.》

형우는 청년이 구수하게 번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었다. 로인을 돕는 길이 불통을 늘구는 길밖에 없겠는가. 3 센치 오차를 놓고도 양보를 모르던 로인이고보면 그가 선뜻 말을 들을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만나본 그 기술일군의 말이며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언제까지고 이 문제를 미룰수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마침 그때 로인이 들어왔다.

《아니 어딜 갔됐습니까?》 형우가 이렇게 물었다.

《응. 줌...》

로인은 왜 그런지 낯색이 좋지 않았다.

청년이 불쑥 물었다.

《미장반장이 뭐라고 그래요?》

로인은 청년을 무섭게 흘겨보며 짹-소리를 질렀다.

《넌 자라는데 왜 일어나서 참견이나. 눈이 새빨갭게 피가 저가지고 오늘밤에 어떻게 불을 보겠다고...》

《글쎄 난 잠이 폭 들었는데 형우선생이 들어와서 깨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신호장치를 한창 설명해드리던 참이예요.》

청년은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형우에게 눈을 꿈쩍거리었다.

로인은 너한테 속지 않는다는듯 눈을 부라렸다.

청년이 자리에 눕자 로인은 형우를 이끌고 밖으로 나왔다.

《가만 떠들진 말게. 이거 야단났군. 난방관이 얼어터졌네.》

로인은 휴게실쪽을 한번 돌아보고 가만가만 말하였다.

《예? 얼마나 얼었습니까?》

형우가 놀라서 물었다.

《4층과 5층에 서너군데씩관이 터졌네. 저너석보기가 또 딱하게 됐는걸 알면 기가 죽을거야.》

실패의 쓴맛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려는 로인의 결곡한 마음에 형우는 눈곱이 뜨겨워졌다.

바로 그런 온정으로 자기를 키워준 로인이었고 일생동안 남들을 위하여 오직 불만 때오는 로인이었다.

그런 로인에게 거둬 실패의 쓴맛을 안기게 되는것이 형우는 가슴이 아팠다. 얼어터진 난방관 앞에서 로인이 받은 심중의 타격이 얼마나 컸으랴. 했지만 그는 조금도 그런 내색없이 오히려 청년을 녀려하여 혼자 피로를 묵새기고있다.

형우는 더 이상 로인에게 시름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당장 새로운 방도가 나지 않는 이상 안전한 길을 택하는수밖에 없었다.

《아저씨 불통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로인이 놀란듯 그를 쳐다보았다. 그 눈길엔 그 어떤 믿음이 상실당한 섭섭함과 피로의 빛이 다분히 어려있었다.

형우는 말문이 막히는것 같은 주저감이 들었으나 이왕 내친김이라 자신의 속심을 털어놓았다.

《그렇게 해도 석탄은 꽤 많이 절약될수 있습니다.》

《그만하게!》

로인은 더는 듣기가 피로운듯 언짢은 기색으로 불통걸을 지나 문쪽으로 걸어갔다.

형우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아저씨!》 그는 로인의 뒤에 대고 불렀다.

로인은 그 자리에 우뚝 섰다. 그러나 그를 멈

취세운것은 형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로인은 불길이 이글거리는 불통안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탄삼이며 불갈구리들을 집어서 벽에 기대여 세워놓았다.

그 다음에야 형우를 돌아보는 그의 눈에는 침통한 빛이 어려있었다.

문밖을 나선 로인은 어깨를 푹 낮추고 어딘가로 걸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나온 형우는 끌리듯이 그의 뒤를 따라걸었다.

땅거미가 기여다니는 이런 거리로 로인과 함께 걸어본지도 이제는 까마득하였다. 돌문처럼 굳게 닫힌 로인의 입을 여는것이 그 시절에는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형우에게는 로인의 목소리를 다시는 들어보지 못할것만 같은 막막한 생각이 들었다.

바람 불고 춥고, 게다가 눈까지 내리는 음산한 날씨였다.

두사람의 어깨우에 말없이 내려앉은 눈은 그 피로운 침묵을 더욱더 무겁게 해주는듯싶었다. 건설장구내를 벗어난 그들은 강변을 따라 곧바로 뻗어 나간 주택거리로 잡아들었다.

형우는 아까부터 자기의 귀뿌리를 후려치던 눈발이 좀 뜰해지는걸 느끼었다.

바람이 이제는 자려는 모양인가.

그렇리 없다는듯 길가의 가로수아지에서 아츠러운 회파람소리와 함께 눈가루가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형우는 그제서야 바람이 불어오는 강쪽으로 로인이 자리를 바꿔서 걷고있는것을 알았다. 그 시절 어린 형우와 함께 길을 걸을 때면 언제나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그 버릇이 저도모르게 되살아난 모양이었다. 형우는 가슴속이 찢릿해지는걸 느끼는 순간 저도모르게 약해지려는 마음을 가까스로 눌렀다.

그러는데 로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물론 불통을 늘구어도 얼마만큼 석탄은 절약될수 있네. 그러나 아직 여유가 있어.》

형우는 로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그렇지만 사람은 석탄을 때서 그 열을 죄다 리용할수는 없습니다.》

《리치가 암만 그래도 난 한덩이의 석탄도 버리지 못하겠네.》

로인은 더는 그런 말을 말라는듯 딱 잘랐다.

《자네가 말하는걸 나도 배웠네. 유효열량은 총열량과 같을수 없다는 부등식말이야. 그런데 난 처음부터 그 부등식기호가 마음에 없더군.

생기기도 보기싫게 생겼지. 철길에 통나무를 가로질러놓은것 같지 않나?》

형우는 로인의 고집도 딱하였지만 부등식기호를 철길에 가로막힌 통나무처럼 여기는 그의 생각이 어이없어서 터져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았다.

로인은 웬일인지 오금을 꺾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 다음은 장갑을 벗고 땅바닥에 가만히 손을 가져다댄채 화석이 된듯 그 자리에 굳어졌다.

형우는 그의 이상한 행동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로인은 형우의 목소리를 듣는지 못듣는지 아무응대도 없었다. 그는 얼어붙은 대지에서 그 어떤 맥박이라도 느끼는지 숨소리를 죽인채 한모습으로 앉아있었다. 형우는 그제서야 제가 딛고선 곳을 내려다보였다. 멍석을 폈다가 방금 걸어낸 것처럼 그곳에만은 눈이 하나도 없었다. 거리의 한쪽가역을 따라 이렇게 눈이 녹은 자리는 긴 띠를 늘어놓은듯 멀리까지 뻗어있었다.

형우는 이것이 땅속에 묻힌 난방관의 열방출에 의한 현상이라는걸 인차 일수 있었다.

그는 로인을 따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았다.

순간 그는 무춤 굳어져버렸다. 로인의 마음을 밟고 왔다는 때늦은 뉘우침이 강하게 뇌리를 쳤던것이다. 열의 부등식이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이곳에서만은 로인앞에 그런 말을 삼가해야 했을 것이었다.

그는 용서를 빌듯 로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 다음 불뉘인 자기때문에 더쳐놓은 로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듯 땅바닥에 손을 가져갔다.

로인은 의미깊은 눈으로 형우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자네가 말하던 부등식이 바로 이거네. 이것때문에 난 일생동안 자그마한 탄광 하나를 그저 태워버렸네. 그것만 해도 가슴아픈 일인데 이제 그 아까운 석탄을 더 버리라니 내 마음이 좋겠나?》

형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로인을 설복하기 앞서 그의 마음부터 알았어야 했을것이였다.

(그런 로인을 위해 내가 지금껏 무슨 말을 했던가?)

형우는 생각이 깊어졌다.

그는 로인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어깨에 닿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쳐들었다.

《실패를 했지만 아무때든 되긴 될걸세. 화가 복으로 되는걸 보려면 화를 피하지 말아야 하는 법이네.》

로인은 마치 자기는 앞일을 환히 다 내다보고 있다는듯 심상한 어조로 말하였다. 형우는 대답없이 로인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였다.

《허허 사람두, 내가 자네말을 전혀 새겨듣지

못하고 웅고집을 쓰는줄 아나? 자네 말처럼 지금 만든 불통이 작을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일러. 말하자면 제 할일을 다 못한 셈이지. 그리고도 불통을 늘굴 생각부리 한다면 이게 잘하는 일인가?》

로인의 그 말을 들으니 형우는 막혔던 가슴이 얼마간 열리는것 같았다.

로인의 말에는 탓할데가 없었다.

우선 연소효율과 열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도와주고 불통이 작다 크다 하는 소리는 그때 가서 꺼냈어야 할것이였다.

《자 이젠 이길로 들어가보게. 난 지금 열망사업소엘 찾아가는길이네. 인발판을 좀 얻어다가 얼어터진 판을 바꿔야 할테니까.》

로인은 집으로 통하는 골목길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함께 가십시오.》

《허허, 자넨 옛날이나 똑 같군. 따라다니길 좋아하던 그 성미가말이네.》

《아저씨를 따라다니면 첩이 좀 빨리 드니까요.》

형우도 마음이 가벼워져서 웃음을 띠우며 대꾸하였다.

《웬걸, 이제야 내가 자넨 따라다녀야지. 어서가보게. 소장을 만나서 말만 몇마디 하고 가면 되니까 혼자 가도 되네.》

로인과 헤어진 형우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은 후 다시 현장으로 나갔다.

청년은 목직해보이는 메자루를 지팡이처럼 거꾸로 쥔고 양수기실 문기둥에 비스듬히 기대서있었다.

무슨 일때문인지 서리맞은 호박잎처럼 온몸에 풀이 죽어있었다.

그는 형우가 다가오는것도 모르고있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소?》

형우가 이렇게 묻자 청년은 스르시 고개를 돌려 한번 힐끔 쳐다보기만 하고 말이 없었다.

형우는 두어시간전만 해도 흥겹게 코노래를 부르던 재미있는 이 청년이 기가 죽은데는 심상치 않은 일이 분명 있을거라고 짐작하였다.

《말을 하오. 무슨 일인지.》

《사고를 났습니다.》

《무슨 사고요?》

《난방판들이 얼어터쳤습니다. 제가 그만 양수기피대가 끊어진줄도 모르고...》

《피대가?!》

형우는 처음 듣는 소리라 어지간히 놀랐다. 청년은 저질러놓은 일을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다는듯 후하고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형우는 뇌리를 치는 깨우침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어디 가보지요.》

청년은 형우를 데리고 양수기앞으로 다가갔다. 끊어진 피대가 안전틀우에 얹혀있는 양수기는 숨을 죽이고있었다..

《3 층엔 물이 얼지 않았소?》

《예, 그렇지만 4 층엔 세군데나 터쳤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큰일입니다.》

청년은 시커먼 눈을 슴벅거리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소?》

《아닙니다. 지내보니까 늙은이들이란 속이 여간 깊지 않더군요. 내앞에선 껄껄 웃으며 돌아서가지곤 혼자서 끄꿍 앓으니 그거야 어디 속이 죄어서 보겠습니까?》

혼자서만 안고 모대기던 시름을 다 털어놓게 되자 청년의 얼굴은 좀 밝아지는듯싶었다. 그러나 지금 형우의 관심은 청년의 말에 가있지 않았다.

피대가 끊어진데도 3 층에서 얼지 않았다는것은 양수기 없이도 물순환이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자연순환-이 방법으로 하면 인발판이 없이도 자체식난방형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압력이 낮아서 인발판이 아닌 단점판이나 수지판으로도 될수 있을것이다.

단숨에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형우는 심장의 박동이 급해짐을 느끼였다. 그러나 형우의 이런 심정을 알리 없는 청년은 여전히 희떠운 소리로 자기 생각을 말했다.

《참 선생님, 한가지 부탁하자요. 오늘밤엔 아버지를 집에 좀 불러주십시오. 그 아버지나 불들어두자면 식은죽먹기지요. 그저 석탄얘기만 꺼내면 밤새도록이라도 자리를 뜨지 않는 아버지니까요. 난 이제 합숙에서 동무들을 데려다가 밤중으로 난방판을 전부 고치겠어요.》

《그래 난방판은 있소?》

청년은 이 한마디 물음에 그만 눈이 휘둥그레진채 다시는 입을 벌리지 못했다.

형우는 어쩐지 이 청년만 보면 최병식로인과 함께 보이라공으로 일하던 그 시절이 떠오르곤하였다.

최병식로인은 긴긴 세월을 두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키워서 내보내고 새로 맞이했을것인가.

형우는 이 창의고안이 아마도 로인의 마지막 창의고안으로 될것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 그러면 이 청년은 로인이 키워낸 마지막 제자로 될것이 아닌가. 청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혈연비슷한 친근감이 느껴지던것은 우연이 아닌것 같았다.

《너무 걱정 마오. 난방관이 터진건 아바이도 알고있소.》

《예?!...》 청년은 놀라와했다. 방금전까지 생각하던 계책이 아무 쓸모도 없었다는걸 알자 그는 멧적은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형우는 흥분에 뜬 얼굴로 신심에 넘쳐 말했다.

《가만있소. 잘하면 될것 같소.》

《?!...》

청년은 그제서야 형우의 눈이 이상한 광채를 띠고 번쩍임을 보았다.

그들은 곧 방으로 되돌아왔다. 책상에 마주앉자 형우는 본능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가 찾는 계산기는 거기에 없었다. 출장 떠나기 전날밤 안해가 그것을 뺨람속에 집어넣던 생각이 났다.

형우는 흰종이 한장을 놓고 책상앞에 마주앉았다. 그의 눈은 긴장을 담아 번쩍이었다. 연필 달리는 소리와 함께 흰종이우에는 활발한 글씨의 수식들과 수자들, 보아서는 그 뜻을 알수 없는 화살표들과 동그라미들이 나타났다.

《원인을 찾았습니까?》

청년이 의문과 기대어린 눈길로 쳐다보았지만 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결과가 수자로 나타나기전에는 어떤 단정도 내리지 않는것이 그의 성미였다.

형우는 피륙 로인의 난방체계에서 연소방법을 바꿔볼 생각을 해낸것이였다.

송풍기의 바람에 의하여 많은 탄가루가 타지 않은채 날아간다는것을 알고있었지만 송풍기 없이는 높은 열을 얻을수 없다는 기성관념때문에 그자체를 없앨 생각은 아직 못하고있었다.

방금 알아낸 자연순환식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였다.

형우의 머리속에서는 송풍기를 대신하여 불칸안에 설치해야 할 2 차공기흐의 위치며, 가장 합리적인 가열기의 구조가 무르익어갔다.

순간 그는 자리를 차고 벌떡 일어섰다.

《됐소. 무동력자연순환식으로 하기로. 그러면 될수 있겠소.》

형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자 청년이 대변에 환성을 질렀다.

《정말입니까?》

형우는 대담대신 빙그레 웃으며 종이의 아래쪽에 그려놓은 불칸략도를 내밀었다. 그것을 들여다보던 청년이 문득 고개를 들었다. 한없는 고마움에 차서 바라보던 청년의 눈에 불시에 눈물이 글썽해졌다.

《고맙습니다. 아바이가 막 기뻐할겁니다.》

청년이 기뻐 어쩔줄 모르는데 문이 열리며 어

께가 처진 최로인이 흐린 얼굴로 들어섰다. 아마도 갔던 일이 잘되지 않는 모양이였다.

청년이 먼저 총알처럼 아바이에게 달려갔다.

《아바이 뵈었습니다. 뵈어요.》

《?!...》

영문을 모르는 로인이 얼떨떨해서 두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형우가 웃음어린 얼굴로 로인앞에 다가갔다.

《아저씨 찾았습니다. 자연순환을 리용하면 됩니다. 송풍기도 없앨것 같습니다.》

《뭘라구?!》

로인은 형우가 그린 도면이며 그가 하는 말마디들을 주의깊게 살피더니 이윽고 큰 시름을 덜어놓은듯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난 자네가 이럴줄 알았네. 고마우이!》

진심으로 감사해하는 로인의 그 모습을 보자 형우는 어찌선지 눈물이 콧 솟을것 같아 얼른 창가로 돌아서고말았다. 창밖에서는 저녁노을이 연분홍빛 고운 색깔로 온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있었다.

× ×

머칠이 지났다.

최병식로인이 오래동안 고심하던 창의고안이 거의 성사할 때가 되었다는 소식은 그의 아들 철영이가 일하는 서해지구 항구도시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로인은 어제 받은 아들의 편지에 그 소리가 적혀있는걸 보고 저으기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편지에는 이번 일만 끝나면 일손을 놓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부탁이 적혀있었다.

소문이라는건 날개가 달린 모양이여서 누구도 걸잡지 못하는 법이지만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이 일을 들고다니면서 세상을 번거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로인에게는 못마땅하게 여겨졌다.

아들은 지난 가을에 찾아왔을 때에도 로인을 제 집으로 모셔갔으면 하는 의향을 한번 비쳤다가 본전도 못찾고 돌아간 일이 있었다.

《내 아직 할 일을 내 못다 했으니 가있거라.》

로인은 그때 여러말을 안하였다.

거리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창의고안을 하나 시작했다는것을 알고있던 아들은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제 말이 통하지 않을것을 짐작하고 이 문제를 다음기회로 미루었었다. 이것이 로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창의고안으로 될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측은 이런 전말을 가진것이어서 전혀 무근거하다고는 할수 없었다.

로인은 창의고안이 실패를 거듭할 때는 젊은이들처럼 기력이 넘쳐 뛰어다니였지만 성공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역시 근심거리 하나가 점점 커지는것을 느끼었다.

이것만 끝나면 나는 정말 할일없는 폐인이 되고 마는가 하고 생각하니 밤에도 잠을 잘수 없었고 속이 항상 무직해왔다.

일때문에 그 아무리 큰 근심을 안고 산대도 그것은 두려울게 없었다.

그러나 일손을 놓는다는것은 로인에게 있어서 차마 하지 못할 노릇이었다.

로인에게 있어서 일생에 해놓은 일이라곤 불뎨 것밖에 없었다.

그가 한 일은 그 어디에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당에서는 그에게 공훈열관리공이란 높은 칭호까지 주었지만 그 영광을 제 분수에 당한 일로 생각해본적은 한번도 없는 로인이었다.

로인의 가슴속에는 일생동안에 작은 탄광 하나를 헛되이 태워버렸다는 엄청난게 큰 자책이 자리잡고있었다.

그 손실을 가지고 이 고마운 세상과 셈을 해야 한다는것이 로인의 마음을 무겁게 하여주었다.

요즈음에 와서 청년의 익살이 점점 늘어갈수록 로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짙어가고있다는 것을 형우도 모르지 않았다.

형우는 그 까닭을 이해할수 없었다.

성공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지 이미 겪어서 알고있는 형우이기에 더욱 그러하였다.

방금전 일만 해도 그랬다.

아침에 출근하여 작업복을 갈아입으려는데 뜻밖에도 미장반장이 와서 로인을 찾았다.

《아바이, 열이 오릅니다. 방안이 후끈후끈합니다.》

미장반장은 숨이 차서 소리쳤다.

로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미장반장이 찾아왔다는게 기뻐서 잠깐 반색을 하였지만 그 밝은 낮빛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그래? 미장반장이 만족했다면 일이 괜찮게 되는 모양이군. 자네들이 어서 올라가보게. 온도계를 가지고...》

《아바이, 같이 올라가봅시다.》

청년이 이렇게 간청하며 로인의 팔소매를 잡아끌었다.

《뭘 셋씩이나 밀려다니겠나. 가서 재보게. 23도가 기준일세.》

로인은 더 말할사이 없이 나무침대우에 누울 차비를 하는것이였다.

《아저씨, 어디 편치않습니까?》

《아닐세, 그저.》

청년은 영문을 모르겠다는듯 형우를 쳐다보았다.

《그럼 편히 누워계십시오. 우리가 인차 올라가 보고 오겠습니다.》

형우는 청년과 함께 매 층 매 방의 온도를 재어보고 적기까지 하느라고 오랜 시간을 지체하고 지금 내려오는길이었다.

측정결과는 좋았다.

로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이 측정결과만 가지면 능히 그를 기쁘게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두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들은 휴계실문을 벌컥 열었다.

방안은 텅 비어있었다.

(어딜 가셨을까?)

두사람은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있는 로인의 밤색 양복을 보고 그가 먼데로 가지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둘은 랑쪽 계단을 지켜서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로인을 못보았는가고 물어보았다.

봤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형우는 로인이 친하게 지내는 목수아바이를 찾아 목공작업장에까지 가보았으나 거기에도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형우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잠간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때 머리우에서

《여보게 형우!》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형우는 고개를 쳐들고 소리나는쪽을 올려다보았다.

흰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보이라굴쪽우에서 로인이 자기를 내려다보며 꺾꺾 웃고있었다.

(아니, 저길 왜...)

형우는 깜짝 놀랐다.

그는 두손으로 입나팔을 만들어대고

《아저씨!》하고 마주 불렀다.

로인은 그에게 올라오라고 손짓을 하였다.

형우는 철근사다리를 딛고 굴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이사람! 조심하라구.》

로인이 내려다보며 이렇게 소리쳤다.

형우는 로인이 굴뚝우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처럼 기뻐하는가 하는 생각에 쇠가름대에 손바닥이 짹짹 얼어붙는것도 느끼지 못하였다.

그가 굴뚝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로인은 여전히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짓고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로인은 연기가 쉬임없이 솟아오르는 굴뚝아구리안에 한손을 잡고있었다.

《아저씨 무슨 일입니까?》

형우는 로인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제마음도 활짝 개이는것 같았지만 그의 행동이 의아하여 이렇게 물었다.

《이걸 좀 보게.》

로인은 굴뚝에 넣었던 손을 꺼내어 형우앞에 내보였다.

손에는 흰 손수건이 쥐여져있었다.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알릴락말락한 검은 얼룩이 저있었다.

《일이 아직 남았네! 봤지? 철영이녀석이 올지도 모르겠는데 자네가 좀 말을 해주게. 나한테 아직도 할일이 남았다고...》

로인은 피땀침을 한손으로 부여잡고 손수건을 들여다보았다.

세상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일터에서 불러내려고 하는 지금 오직 이 얼룩진 손수건만이 그의 옷자락에 매여달리며 가지 말라고 불드는것 같았다.

그것은 창고고안의 성공에도, 요즈음 부쩍 늘어난 청년의 익살에도 개입줄 모르던 로인의 가슴에서 일시에 그늘을 가져주는 커다란 기쁨이었다.

형우는 방금전까지만도 무거운 시름이 비끼여 것처럼 이지러졌던 로인의 얼굴이 갑자기 활짝 밝아진 까닭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 그만 가슴속에 후더운것이 그들먹이 차오르는것을 느끼었다.

형우는 로인이 쥐고있는 손수건에 말없이 손을 뻗었다.

그 다음 그것을 두손으로 받쳐들고 마치 거울속에 제 마음을 비춰보는 심점으로 오래동안 들여다보았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얼룩이가 없었던말인가?

나에게 이처럼 커다란 기쁨을 안겨준 그 론문에는 이런 얼룩이가 과연 없을것인가?

하늘에서도 땅우에서도 채 못다한 일을 찾을 아는 로인, 늘 자기 사업을 돌이켜보며 자책속에 사는 로인-그의 만족은 과연 어디에 한계가 있을것인가-

자그마한 일을 끝내고 안도의 잠자리에 파묻혔던 자기를 흔들어 깨워 이 높은곳으로 이끌어준 최병식로인-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은인이며 스승이었다.

× ×

《어서 떠나게. 일이 안될 땐 또 찾겠네.》

최병식로인은 형우의 등을 가볍게 밀어주며 말하였다.

출발을 재촉하는 기관차의 기적소리가 밤공기를 찢며 길게 울려 메아리쳤다.

《어서 타십시오.》

청년이 들고있던 트렁크를 형우에게 넘겨주었다.

형우는 모자를 벗고 로인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여 작별인사를 하였다.

청년은 헤어지기가 못내 서운하듯 형우의 손을 인차 놓지 못하였다.

형우가 승강대에 오르자 기차는 다시한번 기적소리를 울리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형우는 어둠속에 점점 멀어져가는 로인의 모습을 눈으로 붙잡고있었다.

그는 저도모르게 눈곱이 축축히 젖어들며 앞이 흐려지는바람에 로인의 모습을 놓치고말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로인이 섰던 그 자리에는 충성의 한길을 따라 쉬임도 만족도 모르고 끝없이 달려가라는 로인의 바래움인듯 신호등의 푸른 불빛만이 오래도록 빛을 뿜고있었다.

다듬은 말

본래 말
명시하다

다듬은 말
똑똑히 밝히다, 보이다,
뚜렷이 밝히다, 똑똑히 보이다...

명세표

밝힘표

명칭

이름

명판

기관이름도장

명의

이름

모

아무개, 아무, 어떤

모

털

모델

본보기

모래분사기

모래뿌리개

모래살포기

모래뿌리개

모면하다

벗어나다

모방

본따기

모사

옮겨그리기

본래 말
모성

다듬은 말
어머니, 애기어머니, 아이어머니

모세관

실관

모자칸

애기어머니칸

모자이크

쪽무이그림

모작

본따짓기

모작서술

본따글짓기

모장갑

털장갑

모직

털실천

모체공장

어머니공장

모타

전동기

모포

담요

모피

털가죽

모필

붓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찬란히 꽃핀 재일조선작가들의 자랑찬 문학성과

김래경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재일조선작가들속에서 이룩된 자랑찬 문학적성과들은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을 위한 조국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면서 전반적인 조선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의 해외교포운동사상을 구현하여 총련이 결성된 때로부터 25 뽕이 되는 해이다.

총련의 결성은 재일동포들의 애국사업과 생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인 사변으로 될뿐만아니라 재일조선작가들의 창작활동에서도 새로운 전변을 가져온 사변으로 된다.

총련을 몸소 무어주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육친적사랑과 세심한 보살피심을 떠나서 재일동포들의 해외공민된 영에도 재일조선작가들의 창작에서의 자랑찬 성과도 생각할수 없다.

오늘 재일조선작가들이 창작한 문학작품들이 재일동포뿐만아니라 조국인민들에게 커다란 사상미학적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총련애국사업과 조선문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총련결성은 재일조선작가들의 문학을 옹게 방향짓고 주체적인 조선문학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으로 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 조선공민들은 자기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면서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특히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인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를 뚝고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주체사상을 훌륭히 구현하였으며 한덕수의장동지를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고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앞당기며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총련이

결성됨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은 비로소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명확한 투쟁강령과 과학적인 사업방법을 소유한 믿음직한 해외교포단체로서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총련이 걸어온 25 년간의 빛나는 로정은 백전백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재일조선인운동에 빛나게 구현하여온 보람찬 투쟁의 로정이였으며 내외반동들, 사대주의자, 민족허무주의자, 변절자들의 악랄한 파괴책동을 이겨내며 온갖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영애와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친 자랑찬 로정이였다.

총련이 결성되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됨으로써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재일조선작가들의 창작에서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총련의 지도밑에 1959 년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이 결성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총련애국문학예술운동은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문예동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에 기초하여 창작에서 일체 불건전한 사상적요소들을 극복하고 반동적인 부르조아문예사상조류와의 투쟁을 강화하여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적내용과 예술적수준을 건전한 토대우에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모든 재일 작가들과 예술인들로 하여금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문학작품들을 더욱 왕성하게 창작할수 있게 하였다.

오늘 재일조선작가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의 갖은 박해와 파괴책동을 물리치면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오의 통일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가고있으며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고 조국통일위업과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관계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고있다.

작품창작에서 주체방향을 옹게 설정하고 그것을 예술적형상으로 진실하게 일반화하는 문제는 작품의 사상에술성과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적도이며 근본요인으로 된다.

재일조선작가들은 작품창작에서 주체적방향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를 구현한 총련의 방침에 튼튼히 의거하여 설정하고있으며 우리 혁명과 총련애국사업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예술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그리하여 재일조선작가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과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한 송시작품들을 비롯하여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과 조국통일위업에 바쳐진 새로운 주제의 작품들이 수많이 창작되었다.

재일조선작가들에게 있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작품에 정중히 모시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자량은 없다.

이것은 재일조선작가들의 창작에서 기본주제로 되며 다른 주제의 작품에 관통하고있는 기본열정이며 주되는 사상적기백이기도 하다.

재일 70 만동포들이 깨끗하고 숭엄한 마음으로 그러보며 동경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번영도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예도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사랑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한평생을 오로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오시였으며 오늘도 우리 인민을 끝없는 위훈과 빛나는 승리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암담한 비운에서 허덕이던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개척하신 가장 고귀하고 빛나는 한평생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우리 인민을 끝없는 행복으로 이끌어주신 자애깊은 사랑의 한평생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재일동포들을 망국노의 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주시고 공화국의 해외공민의 영예를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살며 싸울수 있도록 크나큰 신임과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신 자애로운 아버지시다.

그러기에 재일동포들과 재일작가들은 한결같이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우러르면서 그이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최상의 영광과 긍지를 안고 해와 달이 다하도록 그이께 충성다할 결의를 송시형식에 담아 격동적으로 노래부르고있다.

헌시 《60 만이 드리는 충성의 노래》(한덕수), 장시 《수령께 드리는 노래》(한덕수), 서정시 《찬가》(허남기), 서정시 《그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 이시네》(남시우), 서정시 《감격의 이날》(정화흥), 단편소설 《태양의 품》(량우직) 등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에 바쳐진 송가작품들이다.

장시 《60 만이 드리는 충성의 노래》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경사의 날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예순돛에 즈음하여 헌시형식으로 창

작된 장시이다.

장시는 20 여성상에 걸치는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시여 비운에 처했던 조국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해방된 조국인민과 재일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승리와 행복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빛나는 혁명업적에 대한 레찬,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최대의 민족적공지감을 가지고 격조높은 서정으로 노래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잃었던 모든것을
다 찾아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조국을 찾아주시고
청춘을 찾아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찾아주시고
삶의 보람을 찾아주시고
노래와 춤을 찾아주셨습니다

아 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수령님께서서는 진정
기적과 행복을 창조하시는 이
수령님께서서 계심으로 하여

일본땅 그 어디를 가나
우리 동포들 사는곳이면
태양은 휘황한 빛을 뿌리고
꽃은 붉게붉게 피여납니다
.....

장사에서 노래한바와 같이 일제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에도 재일동포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스러운 혁명위업에 참가할수 있은것도 해방후 민족적공지감을 안고 조국을 위해 일할수 있는 것도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 원수들에게 타격을 준것도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이 있었기때문이라고 노래하였다.

장시에는 또한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영예를 안겨주시고 인간의 자주성을 되찾아주셨기 때문에 생활이 그대로 노래가 되고 투쟁이 그대로 시가 되었다고 노래하면서 이 세상 끝까지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따르며 그이께 충성다할 재일동포들의 불타는 애국적열의를 일반화하였다.

그러기에 송시는 해외공민들의 자애로운 어버

이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고마움에 북받치는 영광의 노래이며 그이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영원토록 빛내이며 이 세상 끝까지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고 따르려는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노래이다.

서정시 《찬가》에서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령도하시여 조국을 해방하시교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행복의 은인이시며 자애로운 아버지시라고 노래하였다.

서정시 《감격의 이날》은 어린시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신출귀몰하는 전법으로 일제의 백만대군을 족치시던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으며 자라온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을 진실하게 노래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서정적주인공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꿈결에도 바라마지 않던 아버지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옵는 최상의 영광을 지녔던것이다.

.....

어찌하여 이렇게도 따듯이 잡아주십니까
나라 위해 벽돌 한장 쌓은적 없는,
가렬한 전쟁의 그날에도
총 한번 잡은적 없는 이 손을...

아버지 뭇도 잡아주십니다
어머니 뭇도 잡아주십니다
자식의 뭇도 잡아주십니다
대대의 소원이 다 풀리도록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서정적주인공 총련일군들의 간절한 소망과 온 가족의 절절한 념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도록 해주시였으며 그들을 만나 따듯이 손을 잡아주시며 크나큰 아버지사랑을 베풀어주신것이다.

그러기에 서정적주인공은 결구에서 온 가족의 소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의 소원까지 다 풀어주시였다고 노래함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어떻게 재일 70 만동포들에게 끌고루 미치고 있는가 하는것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일반화하였다.

재일작가들의 송시작품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사회주의조국과 백전백승의 당 조선로동당에 대한 찬가들이 수많이 창작되었다.

서정시 《내 조국을 찾아가면》(김두권), 《조국의 품》(남시우), 《안해여 오늘따라》(정화수) 등은 조국과 당에 대한 찬가이다.

서정시 《안해여 오늘따라》는 안해에 대한 살뜰한 생활적감정을 통하여 조국에 대한 고마움과 공화국의 아들딸된 보람을 민족적정서으로 잘 노래하고있다.

조국의 고마움을 뜨겁게 느낀 서정적주인공의 가슴에는 조국을 끝없이 동경하며 사랑하는 젊은 투사의 감정이 맥맥히 흐르고있다..

서정시 《당이여! 당신에게 최대의 영예를 드립니다》에서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벅차오르는 감동을 노래하면서 당의 숨결로 살며 싸워나갈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드림없는 결의를 일반화하였다.

재일동포들은 어제날의 나라앓고 고통받던 망국노가 아니라 위대한 **김일성** 원수님을 수령으로 모신 존엄있고 당당한 해외공민이며 백전백승하는 조선로동당의 빛받아래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인민들이다.

그러기에 재일동포들과 재일조선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건하시교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의 향도의 해빛아래에서만 모든 기쁨과 행복이 마련되며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에 당을 그렇게 우러르며 노래부르는것이다.

.....

영명하신 수령님의 초상을 우리러보며
어린 학생들의 랑랑한 목소리에
우리들은 미래의 조국을 간직합니다
로동당의 크나큰 배려와
원수님의 따뜻한 체온을
몸가까이 느낍니다
나에게 참삶의 노래를 안겨준
백전백승의 로동당이여
태양이 있어 밤을 모르고
당이 있어 패배를 모르고
수령이 있어 락망을 모르며 살아온 우리...

시인은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이 있어 패배와 락망을 모르고 살며 투쟁하는 재일동포들의 높은 긍지와 자랑을 노래하였으며 또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당의 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당의 가수로서의 높은 영예를 간직하고 재일동포들의 투쟁에 앞장설 결의를 노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노래한 송시와 당과 조국을 노래한 찬가들은 이미 재일 70 만동포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수많이 창작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창작될것이다.

재일조선작가들의 새로운 주제탐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재일조선작가들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고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실시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귀국운동과 조국으로의 자유래왕, 공화국해외공민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헌신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재일조선작가들은 제반 애국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동포들의 생활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다방면적으로 반영하면서 자기들의 작품에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지향과 높은 정신세계를 지닌 긍정적주인공들을 등장시키고있다.

가사 《아들자랑 딸자랑》(한덕수), 가사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고》(한덕수), 가사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한덕수), 서정시 《룽마의 노래》(허남기), 서정시 《당이 키워주신 우리 대학에서》(남시우), 서정시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이네》(남시우), 서정시 《해산없는 대회장에서》(정화수), 서정시 《어머니 차려입은 치마저고리》(김학렬), 단편소설 《비오는 날》(조남두), 단편소설 《승리의 날에》(김재남), 단편소설 《가장 귀중한것》(소영호), 장편소설 《눈속에 핀 매화꽃》(량우직), 단편소설 《동포》(박종상), 단편소설 《고마운 하루를》(리은직), 영화문학 《갈길을 찾는 날에》(운채), 노래이야기 《붉은 한마음》(집체작), 장막희곡 《뜨거운 심장》(서목, 서상각), 영화문학 《우리에게는 조국이 있다》(허남기), 《은혜로운 해빛은 여기에도 비친다》(허남기) 등은 공화국해외공민의 영예와 긍지를 안고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켜 싸워나가는 총련일군-혁명투사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한 성과작품들이다.

가사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고》와 《아들자랑 딸자랑》은 재일동포들뿐만아니라 조국에 있는 근로자들이 가장 즐겨부르는 노래로서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을 위하여 떼떈하게 살며 싸워나가는 총련일군된 자랑과 영예를 매우 밝은 서정속에 노래부르고있다.

우리 분회 최로인은 금년봄에 환갑인데 고생속에 오남매를 오롱조롱 키웠다고 공화국의 혜택으로 우리 학교 공부시켜 총련일군 되었노라 그 자랑이 대단하오 큰아들은 연구사요 딸은 커서 인민교원 둘째셋째 대학생에 막내딸은 고급학교 부모노릇 잘하자면 무식해서 되겠는가 늙은 부부 손을 잡고 성인학교 다닌다오

가사 《아들자랑 딸자랑》은 말그대로 총련분회 최로인의 생활이며 공화국해외공민의 영예를 안고 살아가는 총련일군의 생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으로 자식들을 조선학교에서 공부시켜 키워온 총련분회장의 애국적형상을 담시적인 요소들을 도입하면서 훌륭하게 노래하였다.

자식들을 고이 키워 조선학교에서 공부시켰을 뿐만아니라 그들모두를 총련애국사업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부모된 도리와 해외공민된 영예를 빛내이기 위하여 예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글과 역사를 배우러 밤마다 성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총련분회장부부의 모습은 얼마나 생동하고 감동적인가.

우리는 가사를 읊으면서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흐뭇하고 기쁜 마음을 억제할수 없다.

육체적으로는 비록 늙어도 사상적으로는 로쇠되지 않고 혁명사업에 투신함으로써 혁명의 꽃을 대를 이어 계속 피워나가는 재일 70 만동포들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참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가사는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의 환경에서 비록 생활은 구차하지만 조국을 위해 살며 일해가는 거기에서 참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재일조선공민들의 사상정신세계의 새로운 변화를 일반화하였다.

이러한 신념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살며 일해가는 재일조선공민에게 간직된 가장 큰 행복이며 자랑인것이다.

가사 3절에서는 총련분회 박씨부인의 무남독녀 외딸과 최로인의 아들과의 결혼문제를 두고 변화된 박씨부인의 사상정신적품모를 재치있게 보여주었다.

최로인이나 박씨부인은 자기들의 기쁨과 자랑을 바로 조국을 위해 총련분회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는데서 찾고있는것이다.

가사는 이와 같이 조국을 위하여 살며 일하는 재일동포들의 생활을 소박하고 생동하게 노래한 것으로 하여 총련시가문학을 더욱 풍부하게 장식하였으며 총련일군된 영예와 긍지를 한가슴 안고 일하는 모든 재일동포들에게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고있다.

단편소설 《가장 귀중한것》은 가장 귀중한것은 조국이라는 종자에 기초하여 조선사람찾기운동에 일떠선 총련일군-긍정적주인공의 성격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 조선동포들의 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문제는 조선사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리며 조선사람이 일본사람으로 동화되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

주인공 김창수는 조선사람찾기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신념하고 무조건 관철하기 위하여 일본인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미조직동포인 조봉수를 뜨거운 동포애와 참을성을 가지고 꾸준히 교양개조하여 떳떳한 조선사람으로 살며 일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총련일군의 전형이다.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재일동포들이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떻게 살며 싸우는것이 참되고 보람있게 살아가는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하여 풍부하고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해답을 주었다는데 있다.

이러한 성과는 단편소설 《가정》(김영곤), 《가족구두》(조혜선), 《한권의 수첩》(박관범), 《약속》(리인철) 등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교육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기간 총련의 교육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총련교육일군들은 일본의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사업에 대하여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후대교육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하였습니다.》

가사 《조국의 사랑은 파사로워라》는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위하여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북반쳐오르는 감사의 정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나라에서 나라에서 돈을 모낼줄은
꿈결에도 꿈결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교육원조비 장학금의 많고많은 귀한 돈을
바다너머 저멀리 조국에서 보내왔어요

아, 수령님의 높고 큰 이 사랑을
산이나 바다에 그 어이 비기랴

수령께서 수령께서 돈을 주실줄은
그날까지 그날까지 생각을 못했지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북구건설 다그치는
그 어려운속에서도 우리 위해 보내셨어요
.....

이역에서 이역에서 나서자라는
아들딸도 아들딸도 지덕체 갖추어서
사회주의조국의 역군이 되여라

아버이심정으로 수령께서 보내셨어요
.....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해외공민으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총련일군으로 일하며 생활하는것만 해도 고맙기 그지 없는데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전후 한오리의 실, 한장의 벽돌이 귀한 매우 어려운 시기였던 195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총련교육일군들과 학생들을 조국에 불러 친히 만나주시어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으며 교과서와 교구비품, 민족악기와 학용품 등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러기에 북으로는 흑가이도로부터 남은 규슈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선학교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공화국기발을 하늘높이 휘날리면서 우리의 재일동포자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을 우리르며 세상에 부럼없이 배우고있는것이다.

때문에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발전을 말할 때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떼어놓고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시조 《학원시조》(남시우), 단편소설 《임무》(리은직) 등 수많은 작품들의 주인공들은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한몸바쳐 싸우면서 동포대중의 심장에 민족적자부심과 혁명의 붉은씨앗을 심어주는 인민교원, 혁명가의 생동한 전형들이다.

《학원시조》에서의 서정적주인공, 《인민교원》에서의 삼수교장과 영철교원, 단편소설 《승리의 날에》에서의 박태민교원, 장편소설 《눈속에 핀 매화꽃》에서의 한경훈, 단편소설 《임무》에서의 김지태 등을 비롯한 수많은 긍정적주인공들은 가장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오직 후대들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한몸바쳐 싸우는 애국자의 전형들이다.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재일조선공민들의 조국에로의 귀국실현을 위한 투쟁이다.

가사 《조국으로 가는 길》(한덕수), 《귀국 100선 축하의 노래》(한덕수), 시정시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이네》(남시우), 《귀국시조》(허남기), 《달밤》(김룡택) 등 수많은 작품들은 귀국사업에 바쳐진 직품들이다.

서정시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이네》에서는 비가 많이 내려 《비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니이가다항구에 귀국선이 뜨는 날에는 흐렸던 날도 개이고 안개도 걷힌다고 노래함으로써 귀국선

을 혈육의 정으로 열렬히 환영하는 재일동포들과
선량한 일본인민들의 뜨겁고도 격동적인 마음들
을 함축성있게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잘 노래한
성과작의 하나이다.

.....

귀국선 고통이 울어터지면

그날이면 지꽃게 흐렸네
하늘도 상을 펴고 구름도 물러서네
즐거운 출항, 희망의 길을
해님도 웃으며 배길을 열어주네

항구에 새 전설이 돌아네
어른들도 반가워라 이야기하였네
아이들도 즐거워라 노래불렀네
-귀국선 뜨는 날은 날이 개인다-고

재일작가들의 창작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의 하나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반부인민들의 반파쑸민주화투쟁을 형성
하며 그를 적극 지원하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지금 총련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나라의
완전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기본로선에 기초한 네가지 기본과
업을 훌륭하게 실행하고있습니다.》**

재일작가들은 창작활동과 생활을 통하여 재일
동포들의 반미구국투쟁을 고무하고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도 전투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
고 있다.

이와 함께 재일조선작가들은 각계각층 동포들
의 민족단합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
다.

서정시 《화산》(김학렬), 서정시 《빼라를 뿌린
다》(정화수), 《남녘땅에 눈이 내린다》(허남기),
《통일의 문을 열자》(김두권), 《분격이 새로와서》
(문중렬), 단편소설 《신작로》(리은직), 《마지막
총부리는》(리은직), 《고향손님》(소영호), 희곡
《다시 만날 때까지》(김수중) 등은 《민단》계와의
단합사업과 남반부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내
용으로 하는 작품들이다.

서정시 《우리는 빼라를 뿌린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기 위
하여 파쑸의 총구앞에 결연히 나선 청년학생들의
심정으로 통일의 길을 닦는 겨레들의 뜨거운 마
음으로 이룬아침 역두에서 빼라를 뿌리는 서정적

주인공의 형상을 통해서 반미구국투쟁에 떨쳐나
선 재일동포들의 애국적감정을 일반화하였다.

단편소설 《마지막 총부리는》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파쑸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막다른 골목에
이른 주인공이 사회적모순과 불합리속에서 총부
리를 원썩놈들에게 돌리게 되는 과정을 생활론리
에 맞게 생동한 형상을 통하여 보여준다.

단편소설 《신작로》에서의 머슴군-길씨와 철이
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자연발생적인
반항에 머무른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반미구국
투쟁을 벌리는 투사의 형상들이다.

이 작품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는 고향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공화국복반부의 눈부신 발전에 고무되면서 어버
이수령님의 파사로운 품속에서 행복하게 살 그날
을 그리며 살며 싸워나가는 남반부혁명투사들의
전형을 일정한 수준에서 창조하였다는데 있다.

총련애국문학이 거둔 이상과 같은 성과는 전적
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올바른 지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문제사상과 당의
주체적문제리론을 높이 받들고 재일작가들을 창
작적열정으로 조직동원한 총련의 올바른 지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총련애국문학의 성과를 말할 때 그것은 재일작
가들의 투쟁을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재일작가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주체적이며
애국적인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작가로서의 높은
영예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
방법에 확고히 의거하여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작
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오늘 총련애국문학은 재일 70 만동포들의 생활
과 투쟁을 더욱 고무하고있으며 주체적이며 혁명
적인 우리 문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재일작가들은 창작사업에서 거둔 성과들을 공
고히 다지면서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를 높은 정
치적열의와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하여 위대
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총련
조직을 반석같이 다지면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고 조국통일위업과 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아로새기고
창작사업에 모든 정열과 심혈을 기울이고있는 재
일작가들은 앞으로의 창작사업에서도 더욱 거대
한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기발을 흔든다

한류무

차창은 눈물에 흐려지고
달리던 승용차는 다시 멎고
눈물만이 피어올라
손에 든 공화국기발을
흔들고 흔들어라

흰옷 입은
머리 허연 할머니는
멀리 떠났던 아들을 안은듯
나의 머리를 쓸어주며
그 주름진 눈가에 이슬은 맺히고

따라오며 따라오며
잡은 나의 손을 놓을줄 모르는
혈육의 뜨거운 그 마음들
가고가는 길우에
끝없이 흘러넘쳐라

이역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어머니 품을 찾아온 이 아들을
온 거리거리가 달려나와
안아주는 조국이어

길을 메우고
꽃보라를 뿌려주며
바람 세찬 이국땅
험한 길을 걸어왔다고
가는 길마다
사랑의 길을 펼쳐주는구나

눈물로도 말할수 없어라
이 뜨거운 가슴으로도 말할수 없어라
설음 많던 이 가슴을 안아주는
그 품의 파사로움을
그 품의 따뜻한 사랑을

밤이슬에 젖으며
온종일 헤매였어도
아들에게 마음밖에 주지 못하던
아버지의 그 사랑밖에 모르던 나였노라

흔들리는 등잔불아래
바느질을 하여도
아들에게 마음밖에 줄수 없었던
어머니의 그 사랑밖에 모르던 나였노라

조국이어 그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줄수 없었던
그 모든 사랑을 이 아들에게 주는구나

아, 어버이수령님 계시는 조국
그 어디를 가나
손을 흔들어주더라 반겨 맞아주더라

들길을 가면
김매는 기계대우에서도
손을 높이 흔들어주고
푸른 바다 기슭에 가도
붉은넥타이를 날리는
소년단원들이 달려와 가슴에 매달리더라

아, 조국이어
그 고마운 사랑에 목이 메고 눈물이 피어
나는 흔들고흔든다

이국땅에서 원수들이
내 손에서 뺏으려던
그 기발을
공화국기발을 나는 흔들고흔든다

군사분계선에서

정화흠

해묵은 갈대숲이 길길이 자라
녹슨 철조망에 뒤엉켰구나
저 멀리 흘러가는 림진강도
분노에 몸부림치는가

질어가는 산그늘아래
떠도는 산새들을 놀래우며
짐승처럼 웅크리고 서있는
검은 그림자들

바로 저놈들이 아니냐
이렇게 철조망을 치고 장벽을 쌓고
한두해도 아닌 30 여년간을
오도가도 못하게 길을 막아선놈들이

바로 저 미국놈들이 아니냐
그전날은 《해방자》의 탈을 쓰고서
《원조》를 미끼로 모조리 앗아가고
《안보》의 연막뒤에서
무수한 우리 부모 우리 형제를
무참히도 학살한놈들이

오늘도 듣는다
네놈들의 만행을
땅크와 장갑차를 내몰고서
네살짜리 어린이의 생 눈을 뽑고
녀인의 배를 대검으로 가르며
구두발로 짓밟은 광주의 목소리를

아, 산천초목도 비분으로 떨고
흐르는 영산강도 피에 물들어
서슬을 갈기며 광 광
네놈들을 저주하며 기슭을 친다

내 어찌 용서하랴
긴긴 30 여년 하루한시도

몇은 일 없는 네놈들의 죄악을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안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모든 사람 그 누구 가림없이
온갖 불행과 참화를 들썩운
네놈들은 철천지의 원썩

나는 네놈들을 저주하기 위해 살아왔고
네놈들을 복수하기 위해 동해바다 넘어
이렇듯 여기 와서 네놈들의 물골을 푹푹히 본다

내 어찌 죽음을 알랴
네놈들을 복수하기전에
내 어찌 죽은들 눈을 감으랴
네놈들을 몰아내기전에

아, 하늘에 사무친 원썩의 죄악이
준엄한 징벌의 시각을 기다리고
불같은 인민의 분노가
번개와 우뢰를 안고
땅을 치는 군사분계선

여기는 조선땅
민족도 력사도 하나인 땅이다
무죄장벽인들 허물지 못하랴
《두개 조선》조작놀음 걷어치우고
네놈들은 당장 물러가라

보라 미제살인귀들아
분렬의 고통이 쌓이고 맺혀
화산으로 터치는 조선이 웨친다
《미제는 당장 물러가라!》
《조선은 하나다!》

고마운 제도, 복받은 세대

리춘복

해마다 9월이 오면 나는 마음껏 배우며 무력무력 자라나고있는 우리의 복받은 새 세대들을 두고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근심걱정이 없을뿐더러 자식들을 그의 재능과 소질에 따라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마음껏 공부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일자리가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밥을 빌어먹는 사람도 없으며 모든 근로자들은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대해서도 아들 딸들을 공부시키는데 대해서도 병을 치료하는데 대해서도 근심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하고 배우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은혜로운 그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었으며 오랜 세월 때묻고 꿰어진 누데기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유와 참된 삶의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되었다.

그런 행복은 우리 가정에도 레외없이 차례졌다.

우리의 생활에서 그 어느 평범한 날도 다 명절처럼 기쁘고 즐겁지만 9월은 류다른 정서를 자아낸다. 학교에 다니는 네 아이는 한학년 진급한것으로 하여 나이를 한살 더 먹은 설명절때처럼 기뻐서 야단들이다. 그중에서도 막내아들의 기쁨과 자라는 여간이 아니다. 그 애는 과목이 늘어나 교과서를 더 받은것이 어찌나 자랑스러운지 애당초 시간표를 볼 생각조차 없어 새로 받은 교과서와 학습장을 몽땅 가방에 넣느라고 꿈꿨었다. 나는 막내아들이 새로 받은 《지덕체》라는 글발이 또렷이 새겨진 자주빛 책가방을 감회깊은 눈길로 바라보면서 조용히 타일려주었다.

《철 준아, 가방이 터지겠구나. 치꼭차꼭 넣으렴.》

《형, 아버지 몰라. 난 이제 2학년인데두.》

인민학교 2학년이 되었으니 웅당 교과서도, 학습장도 많이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공지와 자랑이 앵두불에 차고넘친다.

《그래두 가방을 정성스레 다뤄야지. 나라에서 꼭게 만들어준건데...》

그러자 아들애는 또한번 형-소리를 질렀다.

《상점에 이딴 가방 많은데두...》

숨겨진 말꼬리에는 《꺾지면 또 사줘야 돼.》하는 소리가 붙어있는것이다. 막내라고 응석을 받아줘서 그런것만이 아닌듯싶었다.

나는 아들애의 손목을 잡아 곁에 앉히고 이제는 옛말로 되여버린 가슴아프던 그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왜놈들은 봄철에 개학을 했다. 래일이 첫 개학날인데 가방이 없어서 나는 울며불며 어머니의 치마꼬리에 묻어다녔다. 아무리 트집을 부리고 발버둥질을 쳐야 그날그날 빌어먹고 사는 형편에 잘 사는 집 애들처럼 가게방에서 누런 가죽가방을 살수는 없었다.

트집을 쓰다가 어느새 잠들었던 나는 한밤중에 눈을 뜨게 되었다. 고춧불이 송진내를 풍기며 뿌지직뿌지직 타오르고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지 않고 일손을 놀리고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신을 미투리를 삼고있었고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무명치마를 뜯어 내 옷을 장만하고있었다.

《양주소집은 세루양복에 가죽구두까지 장만했다는데...》

어머니가 꾸념비슷이 말했다.

《별소리, 학교에 보내는것만도 큰일인줄 아오. 달마다 널 월사금과 기성회비도 목에 메는판에...》

아버지는 신총을 비비며 근심스레 뇌었다.

《옷과 신발은 그럭저럭 됐는데 책을 뭇에 싸들고 가겠소?》

《글쎄말이유.》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고받는 그 말소리를 들으면서 다시는 트집을 부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튿날아침 막상 학교갈 차비를 하고보니 책보가 말이 아니었다. 여러군데 기운데다 새빨간 천이었다. 나는 밥을 뜨던 숟가락을 뺄 뻔개치고 다시금 트집을 부렸다. 하지만 책보도 없이 가면 학교에서 들여놓지 않는다는 말에 빨간 보를 집어들었다.

그럭저럭 첫시간 수업이 끝났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나는 그 자리에 웅이 박힌듯 굳어져버렸다. 양주소집애녀석이 지시봉에다 잡아맨 빨간 보를 기발처럼 휘두르며 고래고래 소리치고있었다.

《이게 누구 책보냐? 계집애들 치마자락을 찢어

왔지.》

너자애들이 까르르 호들갑스레 웃어댔다. 그것은 내 책보였다. 어머니가 밤을 지새며 꿰여진 이불 한귀를 뜯어내어 만들어준 책보였다. 나는 쥐구멍으로라도 들어가고싶었다. 말할수없이 창피스러웠다. 성큼 내 책보라고 나설수 없는 자신이 용렬했다.

《주인이 없냐? 그럼 거렁뱅이네 앞치마로구나.》

그 말에 다시금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어댔다. 양주소집애녀석은 나와 눈길이 마주치자 술진 눈섭을 꿈틀하며 입가에 알긋은 웃음을 띠었다. 나는 모욕감에 온몸을 떨었다. 우리는 비록 가난했지만 거렁뱅이라는 말만은 듣기 싫었다. 다짜고짜 앞으로 달려나간 나는 양주소집애녀석의 손에서 지시봉을 빼앗아들자 그자식의 등허리를 으깨쳐라 죽쳐댔다. 그통에 가뜰이나 낡은 책보는 갈갈이 찢어지고말았다.

그날 나는 악착스럽기로 유명한 왜놈녀자교원인 고주마년의 손가락에 꼬집히고 통통 부은 볼이 피투성이로 되었으며 온종일 의자를 두손으로 허공중에 쳐들고있어야 했다. 이것은 결코 내가 책가방이 없어서 당한 모욕과 수치가 아니였다.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집개만도 못하다고 주권이 없는탓에 남의 종살이를 하는탓에 빚어진 슬픔이었던것이다...

아들애는 머루알처럼 까만 눈알을 굴리며 야-소리를 질렀다.

《그때 내가 있었더라면 이런 좋은 가방 아버지한테 주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아들애는 학교길로 달려나갔다. 얼마나 천진란만한가. 아직은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어떤 피의 대가로 세워졌으며, 그 고마운 제도아래 우리 인민의 생활이 나날이 꽃피여난다는것을 알기에는 너무도 어리고, 너무도 행복한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으로 일곱살에 11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에 들어섰으니 벌써 인민학교 2학년이지 여전같으면 입학할 나이가 된것이다.

나는 이런 일이 결코 우리 가정에만 있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거사회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천대받던 우리 인민은 누구나 이런 가슴아픈 추억을 안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상에 부럼없이 살고있는 오늘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있다고 생각한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따뜻한 배려로 인구의 근절반에 달하는 학생들이 각급학교에서 무료로, 철따라 내주는 교과과 학용품을 받아가며 마음껏 배우고있다. 외진 섬과 두메산골의 몇 안되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워주고 통학열차가 달리게 하는 그 사랑, 아이들이 디디고 다니는 징검다리가 위태롭다고 무지개다리를 놓아주는 은혜로운 그 손길아래 정녕 우리 아이들은 《나라의 왕》으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자라나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벗들마다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라고 감탄하는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공장에도, 농장에도 그 어디를 가나 일하면서 대학까지 마음껏 다닐수 있는 나라, 머지 않아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실현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그들은 경탄의 눈길로 보았던것이다. 하기에 외국의 벗들은 배우는것이 의무로 되고 권리로 된 우리 제도를 부러워하고있으며 끝없이 동경하고있는것이다.

내가 빨간 책보때문에 창피를 당했던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인민학교아이들이 메고다니는 책가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곤 한다. 온 나라의 아이들이 누구나 그렇게 맵시고운 책가방을 메고 달랑거리며 제집드나들듯 무람없이 교문에 들어서는데 내 조국, 이 고마운 제도를 생각하면서 눈시울을 붉힌다.

온 나라가 축복의 꽃보라속에 잠긴 환희로운 9월의 이 아침, 나는 아직도 책보조차 변변한것이 없이 학교문밖에서 그 옛날 나처럼 수모를 당하고있을 남녘의 어린 학생들을 그려보며 철천지원췌 미제와 그 주구들에 대한 증오로 가슴을 불태운다.